

국립국어원 2014-01-6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60-01

2014년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주관 사업 기관: (주) 브랜비즈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위탁 사업 계약에 따라 ‘2014년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14년 4월 ~ 2014년 12월

2014년 12월 22일

책임자: 박영희((주)브랜비즈)

주관 사업 기관: (주)브랜비즈

공동 협력 기관: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

참여 인력

주관 사업 기관 (주) 브랜비즈

참여인력 : 박 영 희
권오성, 김영우, 김재원, 임우빈, 정대성,
황미화, 조은희, 박정은, 이태라, 박영주,
조평화, 송지연, 이용도

협력 사업 기관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

참여인력: 최 홍 열
최 윤, 박광길, 이종현, 홍단비, 손윤권,
심재욱

<국문 초록>

2014년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본보고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하고, 주식회사 브랜비즈에서 주관하며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이 협력한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준비하고 개최한 전 과정을 정리·평가하고 행사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는 2014년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사단법인 이효석문학선양회가 주최하는 ‘제16회 평창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제16회 평창 효석문화제’는 2014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흘 동안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국립국어원의 강원 언어문화 행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은 전시 행사와 무대 행사로 나누어 전시 행사는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흘 동안, 무대 행사는 9월 13일 하루 동안 개최되었다.

전시 행사는 효석문화마을 내 전시 부스 세 개를 활용하여,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강원 문학 속 사투리 기행, 강원 지역별 사투리 지도, 강릉 방언 대사전 전시 등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투리 낱말 퍼즐을 통해 축제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강원 사투리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무대 행사로 준비된 내용은 평창 둔전평 농악, 정선 아리랑 공연, 강원 사투리 만담 공연 ‘알코 드래요’, ‘사투리 골든벨’ 퀴즈 대회, 사투리 뮤지컬 공연 등이었다. 평창 둔전평 농악과 정선 아리랑 공연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서 평창 둔전평 농악 보존회와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었다. ‘알코 드래요’는 강원도의 사투리 경연 대회 수상자 등이 출연하여 강원 사투리를 만담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사투리 골든벨’은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과 협력하여 강원도의 사투리 음운, 어휘, 문법 등의 분야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강원 도내 고등학생 43명과 함께 사투리 실력을 겨루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를 아울러 모든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함으로써 무대 행사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무대 행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던 ‘며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는 강원도 사투리를 활용한 창작 뮤지컬 공연으로서 전통 민요와 전통 놀이가 결합되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강원도의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본보고서는 ‘2014년 지역 언어문화 행사’를 주관하여 준비하고 개최하는 절차와 과정, 결과물을 함께 다룸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

에서 지역의 언어문화를 주제로 하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를 위한 절차와 일정, 인력 구성 방법, 여러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홍보 전략 및 실행 방안, 행사 진행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모형’을 제시하는 바이다.

주제어: 강원 민속 문화의 해, 평창 효석문화제, 지역어,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강원도 지역별 사투리 지도, 전국 사투리 상품 공모전, 강릉 방언 대사전, 평창 둔전평 농악, 알코 드래요, 정선 아리랑 공연, 사투리 골든벨, 며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

<Abstract>

Opening Event for Local Language and Culture in 2014

This report was created with the purpose of organizing, evaluating and proposing the event model for the entire process of 2014 Gangwon's Language Culture Event called 'Maka Oseoyeo, Satturi Hanmadang' hos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organized by the Brand Biz Corporation in cooperation with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n Cultural Center.

The 2014 Gangwon's Language Culture Event was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16th Pyeongchang Hyoseok Festival' hosted by Lee Hyo Seok Literature Promotion Association to commemorate the year of 2014 Gangwon's folk culture. 'The 16th Pyeongchang Hyoseok Festival' was held for 10 days from September 5 to September 14, 2014 at the regions of Gangwon-do Pyeongchang-gun Bongpyun-myun Hyoseok Village, where during the period, Maka Oseoyeo, Satturi Hanmadang' hos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was largely divided into exhibition event and stage event lasting 10 days for exhibition event(September 5th to September 14th) and 1 day for stage event(September 13th).

For the exhibition event which was held by renting 3 booths presented national dialect product idea competition award, dialect journey within Gangwon's literature, map of dialect per regions of Gangwon-do and exhibition of Gangneung dialect dictionary. Also, through the event 'Garo Saero Satturi Nattmal Puzzle(horizontal/vertical dialect word puzzle)' it induced the participation of festival audiences and interest on the Gangwon dialect. The contents of stage event was 'Pyeongchang Deunjun-pyung Nongak', 'Jungsun Arirang Performance', 'Alcho Deraeyo', 'Dialect Golden Bell' and 'Fairy Tales Musical Dialect', etc. 'Pyeongchang Deunjun-pyung Nongak' and 'Jungsun Arirang Performance' as the representat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Gangwon-do have shown a high level of performances by inviting professional performers. 'Alcho Deraeyo' has received a great response from the audience by hosting the event in storytelling format using Gangwon dialect with

participation by the awardees of Gangwon dialect competitions. 'The Dialect Golden Bell' was progressed in the form of dialect competition with 43 high school students of Gangwon-do by selecting the questions from the field of dialect vocabulary, grammar and phoneme of Gangwon-do. The program was hos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n Cultural Center. This program lead to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all audiences and received the most attention among all events. The last program of the event was called 'Myoneuri Banggui-ae Maemil Kkot Peeutnae' which is a creative musical performances utilizing Gangwon-do' dialect combined with a traditional folk songs and traditional games, it provided a time to share the language and culture of Gangwon to the audiences and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This report will be able to provide basic guidelines to the municipalities, various local agencies and organizations for actively promoting the local language culture events by dealing with the procedure, process and results of preparing and hosting the '2014 local language culture event.' Therefore, 'the local language culture event model' is hereby presented which includes configuration of dedicated team for hosting the local language culture event, structuring of cooperation system with variou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PR strategy and action plan with event scenario.

Key words: Year of 2014 Gangwon's folk culture, Pyeongchang Hyoseok Cultural Festival, local dialect, dialect, Gangwon-do dialect, map of dialect per regions of Gangwon-do, national dialect product idea competition award, Gangneung dialect dictionary, 'Pyeongchang Deunjun-pyung Nongak', 'Jungsun Arirang Performance', 'Alcho Deraeyo', 'Dialect Golden Bell', 'Myoneuri Banggui-ae Maemil Kkot Peeutnae'

Project Director: Park young-hee(branbiz)

목 차

I. 사업 소개	1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1) 사업의 배경	3
2) 사업의 목적	4
2. 사업의 범위	5
1) 사업 기간	5
2) 사업 범위	5
3. 사업 추진 전략	7
1) 행사 추진 절차	7
2) 업무 분장 구성	13
4. 세부 추진 사항	14
5. 기대 효과	17
II. 사업 연구	19
1. 기초 연구	21
1) 지역 언어문화 행사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21
2) 효석문화제(2013년도)의 분석	23
3)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 기본 계획	26
2. 실행 분석 및 평가	29
1)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요	29
2)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전시)	31
3)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무대 행사)	49
4)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홍보)	68

Ⅲ. 지역 언어문화 행사 발전 방향 및 모형 개발 81

1. 발전방향	83
1) 행사 준비 과정 평가 및 개선 방안	83
2) 전시 부문 평가 및 개선 방안	84
3) 무대 행사 부문 평가 및 개선 방안	89
4) 홍보 부문 평가 및 개선 방안	95
5) 지역 언어문화 행사 발전 방향	96
2. 지역 언어문화 행사 모형 개발	98
1) 행사 모형	98
2) 행사 추진 절차	100
3) 추진 일정	108
4) 홍보 전략	110

부록. 2014년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개최 및 운영 관련 자료 113

부록1. ‘사투리 골든벨’참가 협조 공문	115
부록2. ‘사투리 골든벨’ 개최요강	116
부록3. ‘사투리 골든벨’ 시행 세칙	118
부록4. ‘사투리 골든벨’ 출제 범위	120
부록5. ‘사투리 골든벨’ 참가 신청서	126
부록6. ‘사투리 골든벨’ 시행 문제	127
부록7.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홍보 자료	154
부록8.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기념품 자료	158
부록9.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사투리 퍼즐 예시 및 홍보지	159
부록10.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시나리오	160

제1장 사업 소개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1) 사업의 배경
- 2)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범위

- 1) 사업 기간
- 2) 사업 범위

3. 사업 추진 전략

- 1) 행사 추진 절차
- 2) 업무 분장 구성

4. 세부 추진 사항

5. 기대 효과

2014년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1) 사업의 배경

● 표준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가치 절하된 지역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 최근 필리핀의 경우 그들의 민족어 중 하나인 타갈로그어 대신 영어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교육에서 소외된 하위 계층으로 보는 현상이 나타남
- 언어의 다양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지배 언어가 피지배 언어를 포식하는 현상은 한국가 안에서도 발견됨
- 표준어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정의를 잘못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어는 ‘교양 없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어를 재담의 소재로 격을 낮추어 사용하거나 교정 대상의 언어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함

●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역 언어문화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필요

- 표준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제한적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우리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가치 있는 언어로 인식 전환 필요
- 지역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가치의 확산 필요
- 지역민들에게는 지역어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언어의 공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언어 속에 있는 문화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 세대와 지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행사 개최

- 지역어가 안고 있는 세대적, 지역적 차이와 한계를 축제라는 요소를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사투리 향유의 장을 마련

2) 사업의 목적

●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관광객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언어나 예술 작품 속 지역어를 무대 행사 및 전시와 연결하여 관람객의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로서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다양한 콘텐츠의 부재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 축제에 지역의 말 문화를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축제의 재미와 의미를 더하는 효과를 제공
- 지역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모형을 지역민과 지역축제에 제공하여 타 축제와 차별되는 특징으로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언어를 활용한 행사 개최의 가능성 확산

- 다양한 축제 속에서 교육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의 의미가 있는 하나의 지역 언어문화 행사로 자리매김
- 1회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지역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형을 제시
- 지역 문화 축제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타 행사와 차별되는 핵심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보급하도록 함

● 지역어의 경쟁력 및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지역어를 활용한 상품이나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어에 대해 인식을 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지역어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자리로서 행사의 의의와 가치를 공유

2. 사업의 범위

1) 사업 기간: 2014. 4. 18. ~ 2015. 1. 13.

2) 사업 범위

● 행사 기획 및 진행

- ‘2014년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강원도의 대표적 지역 축제인 평창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지역 언어문화 행사 기획 및 개최
- 이효석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을 포함하여 강원도를 대표하고 강원 지역어가 잘 드러난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활용하여 ‘강원 문학 기행’을 주제로 선정
- 제1~제3회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패넬과 상품, 노트북,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영상 및 음성 형태로 다양하게 전시
-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서/영동/영북의 사투리 어휘를 비교할 수 있는 사투리 지도 제작 및 전시
- 영서/영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무대 행사에서 공연
- 관람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지역의 말을 자유롭게 즐기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연 콘텐츠의 기획 및 진행

● 지역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지속 가능한 행사의 모형 개발

-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언어문화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범용의 행사 모형 개발
- 강원도의 지역적 측면, 문화적 측면, 언어적 측면에서의 지역의 언어문화 활성화 및 지역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행사 모형 개발

강원 지역 측면

강원 지역의 활성화 도모

지역 축제와 연계한 행사로 관광객 증가

문화유산 측면

한국어 풍부화 방안 마련

사라져 가는 지역어 자료 DB로 한국어 풍부화 방안을 마련

지역어 측면

언어는 문화유산이라는 인식 제고

언어는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와 문화 전통 계승

3. 사업 추진 전략

1) 행사 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유관 단체 협력 체계 구축	업무 분장 구성 및 자료 수집	지역어 연계 행사 및 전시 기획	지역 언어문화 행사 진행	지역 언어문화 행사 모형 개발

❶ 1단계 :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 국립민속박물관,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평창군청 문화관광과와 협력 체계 구축
- 효석문화제 축제위원회((사)이효석문학선양회)와의 MOU 체결

❷ 2단계 : 업무 분장 구성 및 자료 수집

- 지역 언어문화 행사 추진 및 자문 위원회 구성



● 3단계 : 지역어 연계 행사 및 전시 기획

- 지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 마련 및 교육적 정보 제공을 위한 기획

<표 1-1> 행사 및 전시 기획 개요

	내용	비고
프로그램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형적 연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연계 영역 기획 - 전시 특성에 따른 전시품 수집 및 선별 기획 - 무대 공연 프로그램 형태 및 공연 시간 기획 · 내용적 연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축제의 특색을 강화하면서 지역 언어문화의 성격을 결합한 콘텐츠의 기획 - 지역 축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계성 높은 핵심 콘텐츠 개발 	
홍보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제작 콘셉트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슬로건 기획, 포스터 등 홍보물 디자인 - 기념품 선정 및 견적 조사 · 단계별 홍보 목표 및 전략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진행 절차에 따른 홍보 목표 및 전략 설정 · 미디어 매체별 홍보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축제 및 국립국어원 유관 미디어/매체 조사 - 매체별 일정 확인 및 매체 홍보콘텐츠 기획 	
의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 및 단체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민속박물관, 강원도청, 평창군청, 강원대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행사 참석 협조 공문 발송 · 의전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참석 인원에 따른 의전 장소 기획 - 축제장과의 이동 거리를 고려한 간담회 장소 선정 - 이동 계획 및 이동 수단에 대한 기획 · 의전 일정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및 강원 지역 의전을 분리하여 일정 기획 	

- 전시 행사 프로그램 기획: '강원 사투리와 강원 예술의 만남'

• 강원 예술 작품 속 사투리 기행

① 기획 의도: 외국의 많은 작가들이 문학작품에서 자신의 출신 지역을 재현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올린 것처럼, 한국의 작가들 역시 자신의 작품 속에서 해당 공간을 개성적이고 특수한 의미로 재현하면서 출신 지역에 대한 사랑(애증)을 표현해 옴. 이번 '강원 언어문화'행사의 참가자들 역시도 자신의 출신지역이 언급된 작품을 전시를 통해 접할 때 애향심과 지역 언어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② 작품 선정 기준

(㉠) 작가 및 작품군: 1930년대 등단한 춘천 출신 김유정, 평창 출신 이효석, 철원 출신 이태준 등은 자신의 고향을 물리적 배경 그 이상의 의미로 재현한 작품 창작. 해방 이후에 활동한 작가들 중 구혜영, 전상국, 이외수, 윤후명, 서영은, 최수철, 이순원, 심상대, 김도연, 강영숙, 김별아, 이기호 등의 작품에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은 다채롭게 등장함

(㉡) 선정 기준: 강원 방언이 반영된 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고향 이름이 언급된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더욱 복돋우게 하기 위해 각 출신 지역이 언급된 작품을 선정하기로 함. 해당 지역 출신의 작가가 그 지역 방언을 잘 드러낸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방언 중심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장소성을 강조한 작품 중심으로 선정

예) 김유정이나 이효석의 경우는 고향 춘천과 봉평의 방언과 지역색을 잘 살렸지만, 해방 이후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방언보다는 장소성 개념으로 그 지역을 재현한 작품이 더 많았음. 이때는 방언보다는 다른 요소(기후적 특성이나 생활 환경 등)가 더 부각된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

(㉢) 소설: 강릉이 언급된 소설로는 이순원의 「은비령」을, 홍천이 언급된 소설로는 전상국의 「형벌의 집」을, 원주가 언급된 소설로는 이기호의 「원주통신」을, 동해가 언급된 소설은 심상대의 「목호를 아는가」를 선정. 반면 강원도 출신 작가가 아니지만 대중성과 문학성을 잘 갖춘 작가들 중 그들의 눈에 낮설게 비친 강원도, 그 강원도의 지역색을 강조한 작품이 있을 경우 차선으로 해당 작품 선정

예) 이제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에는 인제가, 김영현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서는 태백이, 백영옥의 「결혼기념

일』에는 속초가 상징적으로 잘 재현됨. 한편 한국문학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박완서의 마지막 장편소설 『그 남자네 집』에는, 작가의 분신으로 보이는 주인공이 양구 출신 화가 박수근을 기리는 미술관으로 가는 장면의 묘사가 강원도 양구만의 특색을 유감없이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

- (ㄹ) 영화: 지역별 사투리가 부각된 작품을 우선으로 선정. 춘천처럼 소설과 영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지역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강원도 사투리가 나타나는 문학작품을 선정. 가능한 한 관람객에게 친숙한 1990년대 이후의 작품을 선정하고자 함. 영화의 경우에는 에피소드 전체를 편집하고 상영하지 않는 한 음성적인 측면에서의 사투리 감흥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워서 지역색이 강하게 표현된 장면이나 유명한 장면의 이미지를 함께 첨부

예) 영화 <생활의 발견>이나 <가족의 탄생>의 경우에는 청평사 선착장이나 옛 버스터미널, 세월교 등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만 그보다는 김유정이라는 한국문학사 대표 작가의 소설 「봄·봄」을 선정하고 소설 속 한 대목을 발췌

예) 삼척 노곡면 양리마을에서 촬영한 <봄날은 간다>의 경우에는 대밭 이미지를 선택하였고, 영월을 배경으로 한 <라디오스타>의 경우에는 배우 이미지를 선택하였다. 아울러 대중들의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흥행작 중심으로 작품들을 선정

- ③ 전시 형태: 18개의 강원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선정, 2013년 경남 지역 언어문화 행사의 시화전을 보다 확대하여 소설, 영화, 시 등의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통해 볼거리 제공

④ 기대 효과

- (ㄱ) 문화적, 문학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져왔던 강원지역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ㄴ) 강원도의 문화가 다양한 문화 장르에 작품을 대표하는 대표적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
- (ㄷ) 강원 관련 예술 작품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나 상징물 제작 등에 활용

- 강원도 지역별 사투리 어휘 지도

- ① 기획 의도: 강원도 사투리의 특성으로 영동/ 영서/ 영북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지역별 사투리 어휘 비교 지도를 전시
- ② 어휘 선정 방법 및 기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휘 중 영동/ 영서/ 영북의 사투리가 모두 다른 경우를 우선 선별. 1차 선별한 사투리 중 표준어와 큰 차이를 보이는 사투리를 2차선별. 이후 두 지역의 사투리는 같으나 다른 한 지역의 사투리가 다른 경우를 추가로 선별하여 전시
- ③ 전시 형태: 선별한 사투리를 강원도 지도에 표시함. 지도는 영동/ 영서/ 영북을 색으로 구분하여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하고 우측 상단에 표 형식으로 제시.
- ④ 기대 효과: 강원도에 다양한 사투리가 있으며 이를 각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시해 강원도 사투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 ※ 지역 구분

- * 영서: 인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철원
- * 영동: 정선, 평창, 삼척, 강릉, 태백, 동해
- * 영북: 화천, 양구, 속초, 고성, 양양

- 무대 행사 프로그램 기획: 강원도 지역민과 타 지역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통 공연과 현대 공연 프로그램 속에서 강원도 지역어를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효석문화제의 특색에서 벗어나지 않는 프로그램의 개발 :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개발, 지역 언어문화 축제로서의 권위와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핵심 콘텐츠 개발

- ① 효석문화제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핵심 콘텐츠에 대한 고려
- ② 지역민에게 거부감이 없으면서 관광객에게 강원도 효석문화제 만의 특색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기획

● 4단계 : 지역 언어문화 행사 진행

- 교육 및 체험, 예술, 오락 등 다양한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효석문화제 프로그램에 강원 지역어 프로그램을 더해 지역 축제로서의 특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강화함
 - ① 교육 및 체험: 사투리 골든벨, 사투리 어린이 뮤지컬, 문학으로 보는 강원 사투리 기행, 강원 사투리 어휘 비교 지도, 사투리 상품 전시
 - ② 예술: 평창 둔전평 농악, 정선 아리랑 공연
 - ③ 오락: 알코 드래요
- 무대 진행: 6시간 (11시~17시)동안 진행되는 행사로 사전 공연, 개막식, 축하공연, 오락, 교육, 뮤지컬, 폐막식으로 진행
 - ① 사전 공연: 평창 둔전평 농악이 관객몰이 및 축제 개막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며 무대 밖 마당에서 시작하여 무대로 올라와 종료
 - ② 개막식 및 축하공연: 참석한 의전들의 축제의 취지와 의의를 알리는 축사 및 인사말로 시작하며 의전들이 단상에 올라와 제막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축제에 참석한 관객들도 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로 축제의 시작을 알림. 축제를 축하하는 축하 공연을 이어 다음 프로그램의 관심을 유지
 - ③ 오락 및 교육 공연: 지역민들의 축제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축제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알코 드래요’를 진행하며,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어의 가치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취지로 ‘사투리 골든벨’, 사투리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진행
- 전시 진행: 9월 5일부터 14일 약 10일간 효석문화제와 함께 주요 행사장 내 전시 부스에서 지역어 관련 전시를 진행
 - 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전시: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들과 강원도 관련 예술 작품 속 사투리 콘텐츠를 보면서 제주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안동 사투리 노래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시청각 기기 설치
 - ② 체험요소를 가미한 전시: ‘사투리 학습 전자책’을 아이패드로 전시하여 사투리를 따라해 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품들(사투리 큐브 등)을 전시하여 체험을 유도함. 또한 전시 콘텐츠를 보면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체험 요소를 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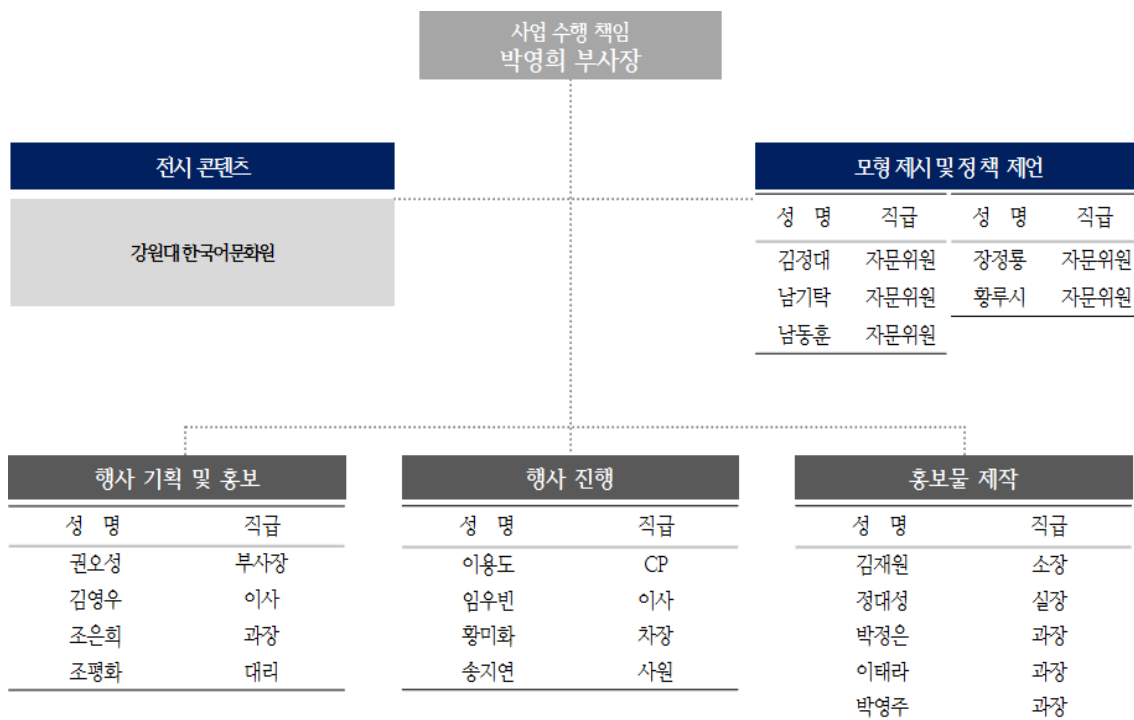
5단계 : 지역 언어문화 행사 모형 개발

- 행사 진행에 대한 평가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타 지역의 기관들이 지역 언어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모델 구축
- ※ ‘3장. 지역 언어문화 행사 발전 방향 및 모형 개발’ 참조

2) 업무 분장 구성

- (주)브랜비즈: 행사 기획 및 운영, 행사 홍보물 제작
-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 전시 및 콘텐츠 선정, 감수, 사투리 골든벨 진행 협조
- 자문위원단 : 강원 지역 대학교 국문학 및 민속학 전공 교수, 공연 연출가 등으로 구성 행사 및 전시 콘텐츠 검토 및 지역 언어문화 행사 관련 정책적 제언

<표 1-2> 업무 분장



4. 세부 추진 사항

● 2014년 4월 23일: 사업 착수

● 2014년 5월 16일: 착수 보고회 개최

- 참석자: 이승재, 홍서현(이상 국어원), 박영희, 조인호, 조은희(이상 브랜비즈)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 주요 내용
 - 행사 운영을 위한 지역어 전문가, 콘텐츠 전문가, 행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추진 필요
 -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세부적인 행사 기획

● 2014년 6월 24일: 사업 수행에 대한 기획 협의 및 자문회의 개최

- 참석자: 국어원(2명), 브랜비즈 (4명), 강원도 소재 대학 교수(2명), 축제 위원회 관계자(1명)
- 장소: 이효석 문학관 1층 강의실(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소재)
- 협의 주제: 현장 방문 , 행사 진행 조직과 세부 내용 협의
- 주요 내용
 - 강원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투리 콘텐츠에 관한 논의
 - 행사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및 세부 실행안 제시
 - 부스(3개) 운영에 대한 주제 논의

● 2014년 8월 8일: 효석문화제 연계를 위한 업무 협의

- 참석자: 브랜비즈(2명), 축제위원회(1명)
- 장소: 이효석 문학관 1층 강의실
- 협의 주제: 효석문화제와 연계 협의 및 행사 세부 계획 조율 협의
- 주요 내용
 - 9월 13일(토) 행사 개최에 대한 협의 및 행사장 활용에 관한 논의
 - 귀빈 의전 관련 협의

● 2014년 8월 12일, 8월 24일: 행사 및 전시 콘텐츠 관련 업무 협의

- 참석자: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7명), 브랜비즈 (2명)
- 장소: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
- 협의 주제: 지역어로 된 전시 콘텐츠 및 행사 콘텐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세부 조율 협의
- 주요 내용
 - 사투리 골든벨에 대한업무협의- 참가자 40명 섭외에 대한 지원
 - 전시 콘텐츠에 대한 검수 및 수정

● 2014년 8월 12일~20일: 자문회의(서면 협의)

- 행사 기획에 대한 자문위원단의 자문 의견 수집 및 종합

● 2014년 8월 28일: 중간 보고회

- 참석자: 정희원, 이승재, 홍서현(이상 국어원), 조인호, 박영희, 조은희, 이용도(이상 브랜비즈)
- 장소: 국립국어원
- 주요 내용
 - 행사 진행 전 최종 기획 점검 및 운영 감독 최종 세부 조율 협의

● 기타 과업 진행 회의 및 협의 내용

- 2014년 9월 4일: 전시 부스 최종 확인 및 설치, 무대 행사 최종 점검

● 행사 진행

- 2014년 9월 5일 ~ 2014년 9월 14일: 전시 행사
- 2014년 9월 13일: 무대 행사

● 2014년 9월 30일: 최종 보고회

<표 1-3> 추진 일정 개요

날짜	장소	내용	참석인원	비고
4/18		사업 계약		
4/22	이효석 문학관	축제위원회와의 축제 연계 협의	축제위원회1, 브랜비즈 2	
4/23		사업 착수		
5/16	국립국어원	사업 착수보고회	국어원 2 브랜비즈 3	
6/13	이효석 문학관	축제위원회와의 축제 연계 협의	축제위원회1, 브랜비즈 2	MOU 체결
6/24	이효석 문학관	현장 방문 , 행사 진행 조직과 세부 내용 협의	국어원 2, 브랜비즈 4, 강원도소재대학 교수 2, 축제위원회 1	
8/8	이효석 문학관	효석문화제 연계 업무 협 의	브랜비즈 2, 축제위원회 1	행사장 사용 및 귀빈 의전 계획
8/12	강원대학교	전시/행사 콘텐츠 관련 협의	한국어문화원 7, 브랜비즈 2	사투리 비교사전 협의
8/20	브랜비즈	자문위원단 자문의견 취합	브랜비즈 4	
8/24	강원대학교	행사 콘텐츠 관련 협의	한국어문화원 7, 브랜비즈 2	사투리 골든벨, 참가자 섭외 협조
8/28	국립국어원	최종 매뉴얼 점검 및 감독 최종 세부 조율	국어원 3, 브랜비즈 4	
9/4	효석문화제 행사장	부스 최종 확인 및 설치	국어원 1 브랜비즈 4	
9/5	효석문화제 행사장	전시 행사 진행	국어원 1 브랜비즈 4	
9/12	효석문화제 행사장	무대행사 최종점검	국어원2 브랜비즈 6	귀빈 대기실 단장
9/13	효석문화제 행사장	무대행사 진행	국어원 4, 한국어문화원 3, 브랜비즈 6	
9/30	국립국어원	최종보고회		

5. 기대 효과

● 지역 언어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콘텐츠의 전문성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 행사의 전문성(브랜비즈), 행사 연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지역자치단체, 축제 위원회)이 확보된 안정적인 업무 분장 구성으로 지역 언어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언어문화와 행사가 연계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마련
- 사라져 가는 강원도의 지역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숨어있던 강원 지역어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국립국어원, 지방자치단체, 지역 축제위원회, 강원 지역어 전문가, 강원 방언 보존회 등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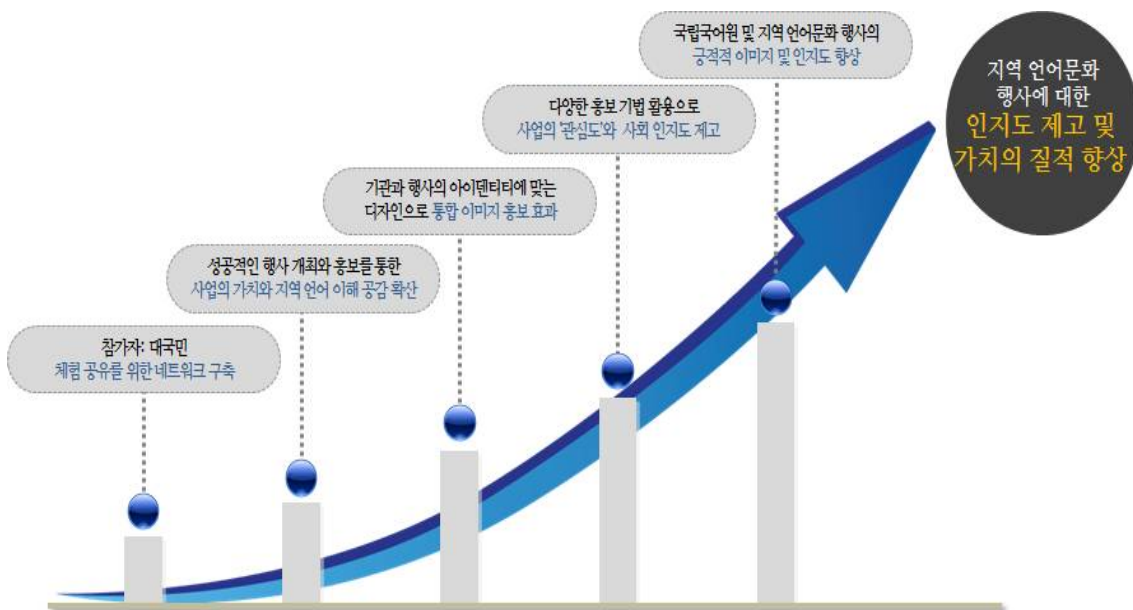
● 지역 축제의 이미지 제고

- ‘효석문화제’의 기존 틀 안에 이효석 문학과 강원 지역어 콘텐츠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원 지역의 우수한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
- 재미와 동시에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효석문화제에 강원도 사투리라는 강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접목시켜 타 지역 행사와의 차별성 확보
- 다양한 프로그램의 모형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에 제공하여 지역 언어문화 행사 중 핵심 콘텐츠들을 지역 축제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적 요소와 체험적 요소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관람객들의 행사장 체류 시간을 늘려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 관광 산업의 시너지 효과 제공
- 교육적 효과를 높여 학생, 가족 단위의 관람객 층을 넓힌 교육 문화 축제의 토대 마련
- 볼거리(전시), 들을 거리(사투리 한마당 공연), 놀 거리(체험 행사), 배울 거리(지역 언어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의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 기틀 마련

❶ 지역 언어문화 가치의 공유 및 지역 축제의 질적 향상

- 행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행사 지역 언어문화라는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행사 개최
- 기존의 행사 프로그램에 '지역 언어문화 행사'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구축된 행사 모형은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닌 지속적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어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 제공
- 궁극적으로 지역 언어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행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행사의 질적 가치 향상

<그림 1-1> 사업 추진 목표 및 기대효과



제2장 사업 연구

1. 기초 연구

- 1) 지역 언어문화 행사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 2) 효석문화제(2013년도)의 분석
- 3)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 기본 계획

2. 실행 분석 및 평가

- 1)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요
- 2)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전시)
- 3)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무대 행사)
- 4)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홍보)


2014년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1. 기초 연구

1) 지역 언어문화 행사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 강원도의 문화 예술, 대표 지역 축제 그리고 가치 및 보존의 세 가지 측면의 연계성을 고려한 성공적인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강원 지역어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축제로 대표 지역 축제인 효석문화제와 연계
 -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2개 (정선아리랑제, 평창 효석문화제)를 선정하여 문화적 측면, 행사적 측면, 접근성, 축제 외부 평가 요소를 비교하고 지역 언어문화 행사와 연계성이 높은 행사를 선정

<그림 2-1> 지역 언어문화 행사 연계성을 고려한 정선아리랑제와 효석문화제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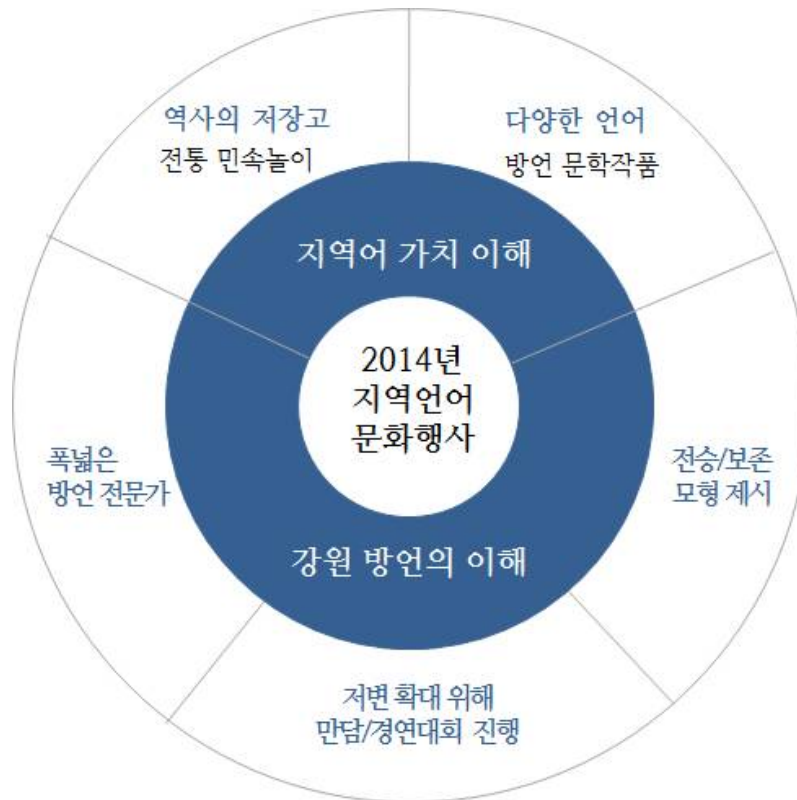
			
문화적 측면	“아리랑”	=	“메밀꽃 필 무렵”
행사 관객 측면	약 30만 명 (2013기준)	<	약 103만 명 (2013기준)
접근성	3시간 30분 (서울 기준)	<	2시간 30분 (서울기준)
축제 외부 평가	2년 연속 “유망 축제”	<	“우수 축제”
지역언어 연결 측면	전국 아리랑 속 지역언어	=	이효석 작품 속 지역언어

-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언어문화 행사를 개최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외적 조건

- ① 축제위원회와의 MOU 체결 및 사업 나눔(축제와 지역 언어문화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협력 관계 유지
- ② 지역 축제와 연계한 행사 홍보를 통해 홍보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축제 안에 행사 내용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관람객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노출

• 내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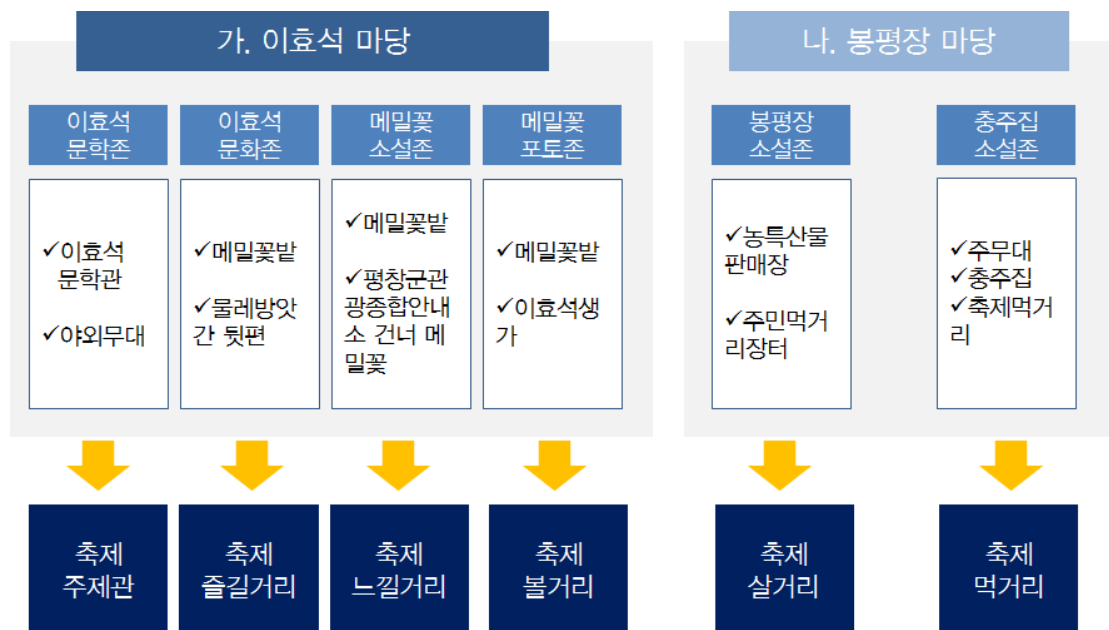


- ① 축제위원회와의 MOU 체결 및 사업 나눔(축제와 지역 언어문화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협력 관계 유지
- ②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홍보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축제 안에 행사 내용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관람객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노출

2) 효석문화제(2013년도)의 분석

- ❖ **기간:** 2013. 9. 6.(금) ~ 9. 22.(일) (15일간)
 - 메밀꽃 개회시기에 따라 변경되나 9월 1~2째 주로 (10일이나 15일간 진행)
- ❖ **장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원
- ❖ **주관:** (사)이효석문학선양회
-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평창군 등
- ❖ **산학협력:** 오산대학교 이벤트연출과
- ❖ **주요 행사**
 - 2개 마당, 6개 구역으로 나누어 행사 구성

<그림 2-2> 효석문화제 행사 구성 내용



- ❖ **기존 축제 분석 및 방향:** SWOT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지역 언어문화 축제 방향 도출
 - 색다른 볼거리 유지 및 보완
 - 기존의 효석문화제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볼거리는 유지하되 축제를 특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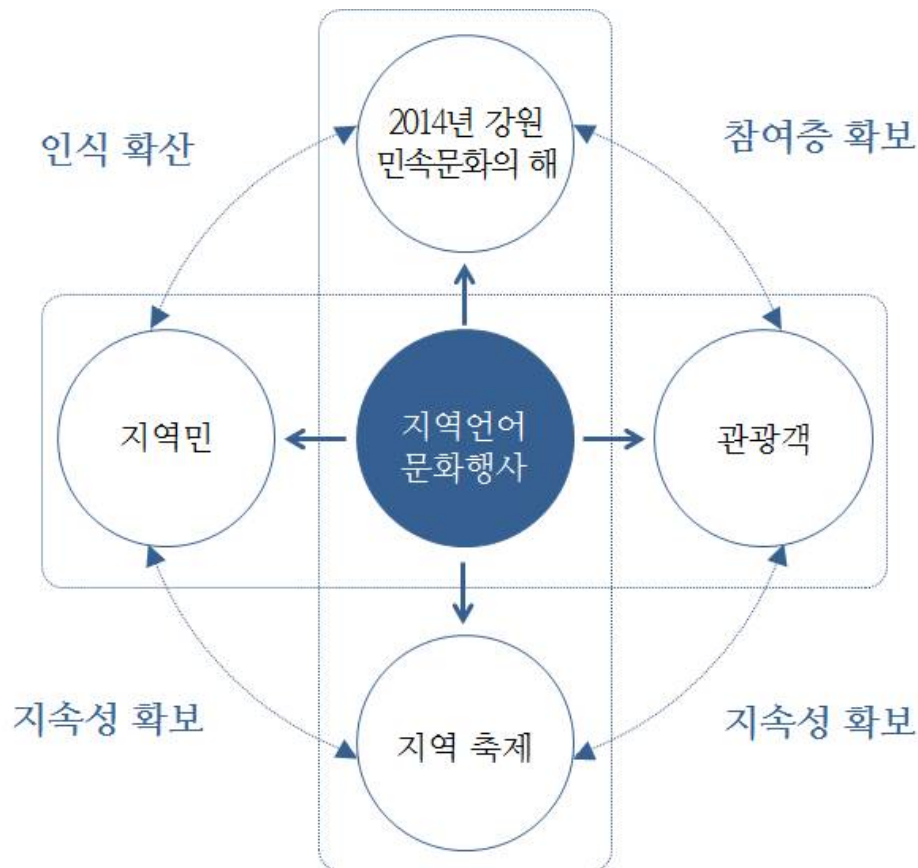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문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메밀꽃 필 무렵> 관련 콘텐츠 외에 다양한 콘텐츠 보완 및 관람객의 현실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강원도의 대표 지역 축제로서 특색 강화
 - 국화, 메밀꽃 등 다양한 타 꽃 축제와의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의 민속 문화를 반영한 특색 있는 전략 개발

<그림 2-3> SWOT 분석



● 많은 지역 축제 중에서 강원 지역의 효석문화제의 차별화 방안으로 지역어를 활용하여 강원만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로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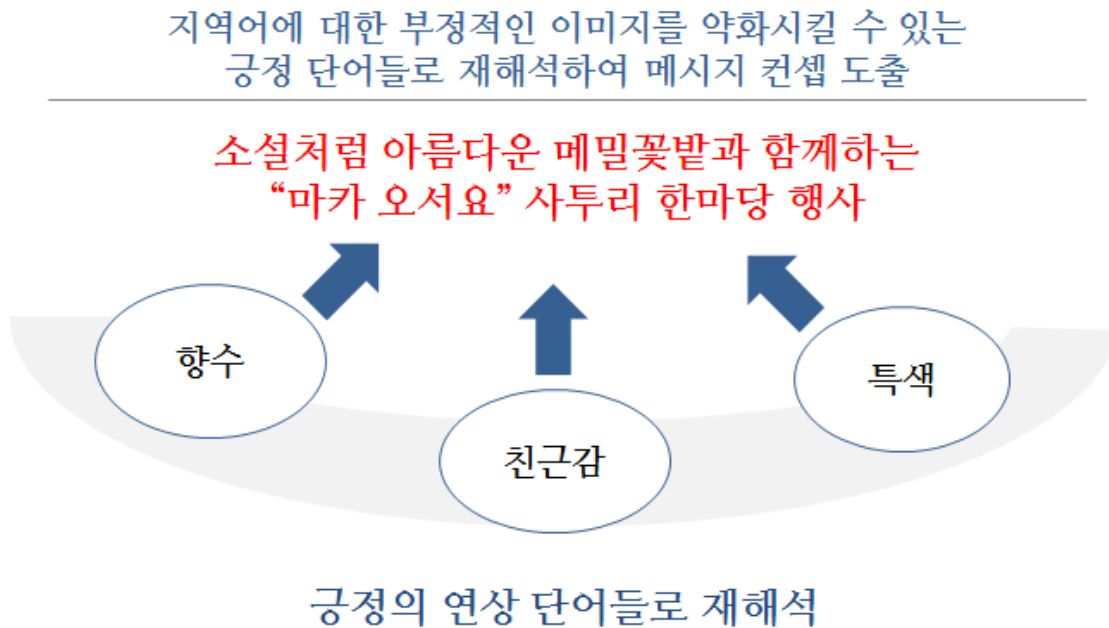
- 강원 지역의 “효석문화제”를 관광객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지역 특색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 작업이 필요
- 프로그램 개발 연계 모델



- 지속성 확보
 - 민속 문화의 해를 매년 진행하는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새로운 축제의 콘텐츠로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상승 효과 제고
- 참여층 확보
 -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강원 도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 인식 확산
 - 지속성 확보와 참여층 확보를 위해 ‘2014년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지역 언어문화의 소중함을 확산하는 계기 마련

3)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 기본 계획

- 지역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단어들을 활용하여 핵심 주제 도출



- 효석문화제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지역어의 특징 및 행사의 취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 지역 언어문화의 발견 : 지역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소개
 - 강원 지역어 문학 기행: 이효석의 작품과 함께 강원도의 지역어와 관련된 다양한 시, 영화, 문학 등을 선별하여 전시
 - 민속 문화 관람: 강원도 전통 예술 공연 - 평창 둔전평 농악, 정선아리랑
- 지역어의 향유와 보존 : 강원 지역어, 강원 언어문화의 발견과 가치 공유
 - 지역어의 향유: 강원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담 공연 ‘알코 드래요’
 - 지역어의 보존과 교육: 강원 도내 고등학생들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사투리 골든벨’

❖ 언어, 예술, 교육, 체험이 어우러진 축제 구성

- 강원 대표 축제의 하나인 ‘효석문화제’의 불거리에 사투리 행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축제로 거듭나도록 지원 및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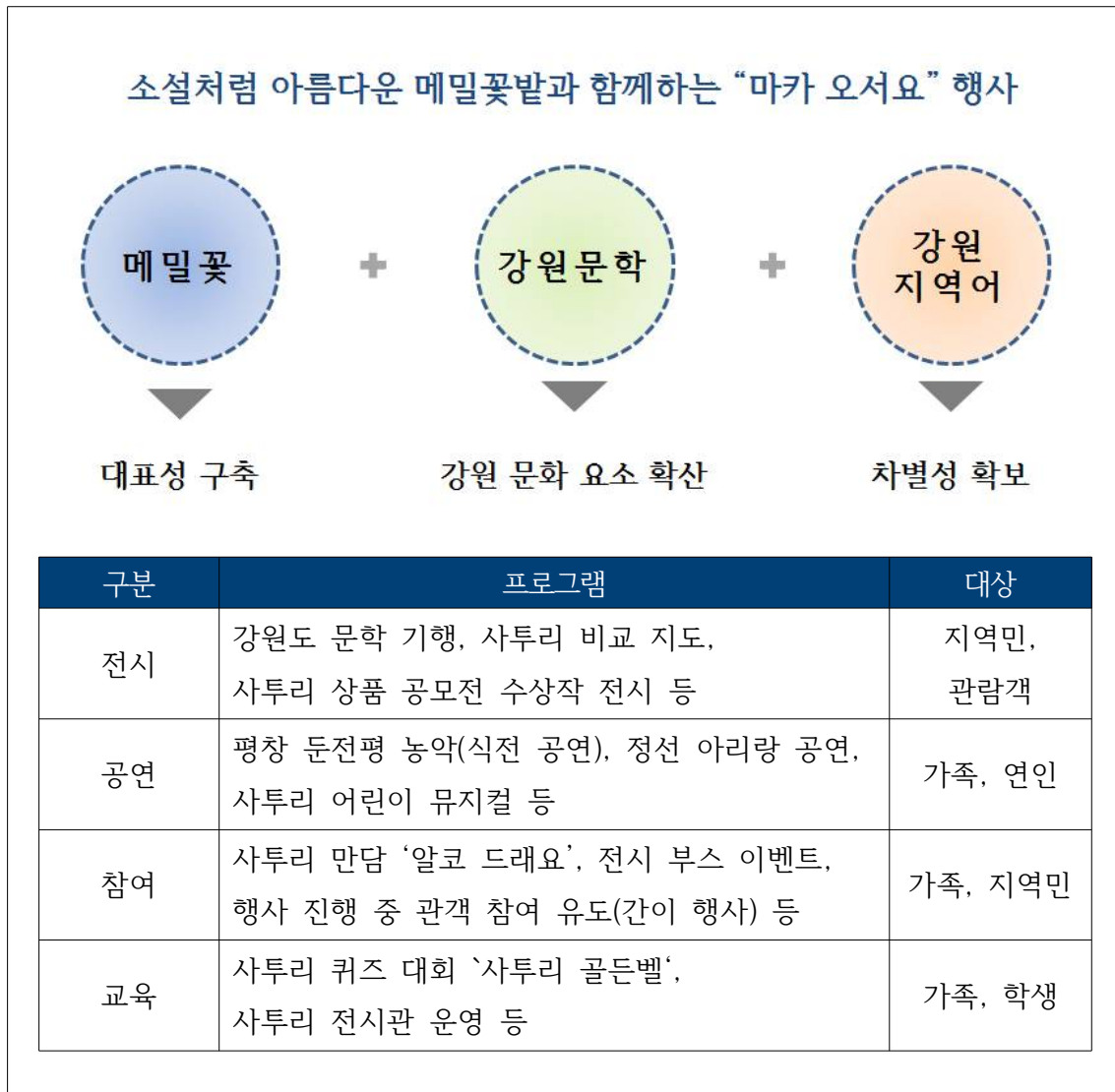
<그림 2-4>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



❖ 지역 언어문화 행사의 프로그램 구성안 및 세부 내용

- 전시부분
 - 강원 문학 기행 (강원 지역어와 관련된 영화, 시, 소설 등 다양한 작품 전시)
 - 강원도 사투리 비교지도(영동/영서/영북의 단어를 비교할 수 있는 지도 전시)
 -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 행사부분
 - 식전 공연(평창 둔전평 농악), 축하 공연(정선아리랑 공연)
 - 사투리 만담 ‘알코 드래요’
 - 사투리 퀴즈 경연대회 ‘사투리 골든벨’
 - ‘며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어린이 뮤지컬

<그림 2-5> 프로그램 개발 기본 계획



2. 실행 분석 및 평가

1)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요

- **행사명:**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 **행사 슬로건:**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 **일시 및 장소**
 - 전시 행사: 2014년 9월 5일(금)~9월 14일(일)/효석문화마을 전통 장터
 - 무대 행사: 2014년 9월 13일(토)/효석문화마을 특설 무대
- **참가 대상:** 강원 도민 외 국내외 관광객
- **주최:** 국립국어원
- **주관:** (주)브랜비즈
- **협력:**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
-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 전시 부문
 - ① 강원 문학 기행, 강원도 사투리 비교 지도
 - ② 국립국어원의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 행사 부문
 - ① 식전 공연(평창 둔전평 농악)
 - ② 개막식 및 축하 공연(정선아리랑 공연)
 - ③ '알코 드래요', '사투리 골든벨', 어린이 뮤지컬(머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
 - ④ 폐막식(시상식 포함)

<표 2-1> 행사 일정

일자	시간	분야	프로그램
9.13	11:00~11:40	개회식	· 식전공연: 평창둔전평 농악 · 개막선언, 축하, 내빈 소개 등
	11:40~12:40	축하공연	· 정선 아리랑 공연
	12:45~13:45	오락	· ‘알코 드래요’사투리 만담
	13:50~15:00	교육	· 사투리 골든벨
	15:00~16:00	뮤지컬	· ‘며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 전래동요 뮤지컬
	16:00~16:30	폐막식	· 폐막선언, 시상식
9.5 ~9.14	기획 전시		·강원문학기행 -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에서부터 영화, 시, 아리랑 등 다양한 강원도 문 학작품 기행 ·강원도 사투리 비교 지도 - 강원도 영서, 영북, 영동의 사투리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연계 전시		· 제1~3회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2)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전시)

■ 부스 운영

● 부스 구성 : 3개의 전시 부스를 사용

- 3개 면을 강원 문학 기행 및 사투리 비교 지도로 디자인하여 현수막으로 부착
- ① 강원도 지역별 사투리 비교지도
- ②, ③ 강원도 문학기행
- 탁자 (120*90) 5개를 연결하여 사투리 공모전 상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구성
- 안내 탁자 및 이벤트 응모함은 부스 앞에 별도로 구성



<사진 2-1> 부스 기본 사진







■ 전시 부문

● 전시 콘텐츠 개요

- 강원 예술작품 속 사투리 기행
- 주요 내용

지역	소설 속 해당 지역 삽입 부분 및 영화 배경 설명
삼척	<p>삼척시 노곡면 양리마을 대밭-〈봄날은 간다〉, 2001.</p>  <p>“할머니, 여기 몇 년 사셨어요? 여기 대밭 쪽에 이사 온 지가?” “52년.” “아, 52년 되셨어요? 여기 대밭 소리 너무 좋네!…… 대밭 소리, 언제가 제일 좋아요?” “바람 불고 눈보라 칠 때 좋지. 짹- 소리가 나쁜, 마음이 심란한 것이 삭- 풀리고 얼마나 좋나!” -은수와 대밭집 할머니의 대화-〈봄날은 간다〉 중에서</p>
영월	<p>영월군 별마로 천문대 및 전 지역-〈라디오 스타〉, 2006.</p>  <p>“야, 너 서울 청취자까지 다 뺏어 먹기냐?!” “어따대고 비교하세요? 옛날의 영월이 아니에요!” -본부장과 영월지국장의 대화-〈라디오 스타〉 중에서</p>

정선	<p>정선군 청림초등학교 산내분교-〈선생 김봉두〉, 2003.</p>  <p>“너희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울로 전학가고 싶지?” “아니래요, 전학 가는 거는 싫어요.” “왜 가기 싫은데? 응?” “도시는 공기도 안 좋고, 이런 개울도 없잖아요.” “그리고요, 전학 가면 선생님도 못 보고요, 우리학교에도 못 오잖아요.”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선생 김봉두〉 중에서</p>
평창	<p>평창군 미탄면 울치리-〈웰컴 투 동막골〉, 2005.</p>  <p>“이런 데 진짜 부락이 있네?!” “여가, 우리 부락 동막골이래요.” “아니 동막골이요?” “그, 저래, 저 아들처럼 막 살아라 해서 붙인 이름이라는데…… 그 내막은 내 잘 몰라요. 그냥 뭐, 옛날부터 그냥 그래 부르고 그랬드래요.” -한국군 병사와 동막골 주민의 대화-〈웰컴 투 동막골〉 중에서</p>

고성	<p>고성군 화진포-〈파이란〉, 2001.</p>  <p>“강재 씨에게. (……) 여기 사람들은 머두 친절합니다.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도 손님두 머두 친절합니다. 바다두 산두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소리가 들립니다. 머두 친절하지만 강재 씨가 가장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백란의 편지, 〈파이란〉 중에서-</p>
화천	<p>화천군 산양리 일대-〈고지전〉, 2011.</p>  <p>“애록고지*는 반경 2.5Km로, 은화-용성 지구 주변 30Km 지점을 커버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7시간 전만해도 재들 거였는데, 다섯 번 공격 실패하고, 여섯 번 만에 겨우 뺏었습니다.” -신일영 중대장의 애록고지 보고-〈고지전〉 중에서 (*영화 속 애록(AERO-K)고지는 실제 화천군 산양리 일대로 당시에는 425고지로 불렸다. 현재 이곳에는 ‘칠성전망대’ 및 ‘DMZ 카페’가 있다.)</p>

- 참고 자료: DVD 자료(<봄날은 간단>, 허진호 감독, 이영애·유지태 주연, 2001 / <라디오 스타>, 이준익 감독, 박중훈·안성기 주연, 2006 / <파이란>, 송해성 감독, 최민식·장백지 주연, 2001 / <선생 김봉두>, 장규성 감독, 차승원 주연, 2003 / <웰컴 투 동막골>, 박광현 감독, 정재영·신하균·강혜정 주연, 2005 / <고지전>, 장훈 감독, 신하균·고수·이제훈 주연, 2011.

<표 2-2> 전시 콘텐츠 개요

번호	지역	전시콘텐츠
1	고성	관동별곡- 정철
2	삼척	봄날은 간단 - 이영애, 유지태
3	양양	고향의 노래- 황금찬시인
4	영월	라디오스타-박중훈, 안성기
5	정선	정선아리랑
6	정선	선생 김봉두-차승원
7	춘천	봄봄-김유정
8	태백	태백 아라레이
9	평창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10	횡성	울 할어머이의 추억- 김성수
11	평창	지꿈 그늘어 댜 아문긋두 읊네- 이영춘
12	평창	웰컴 투 동막골 - 정재영, 신하균, 강혜정
13	고성	파이란- 최민식, 장백지
14	동해	목호를 아는가- 심상대
15	속초	결혼기념일 - 백영옥
16	양구	그 남자네 집 - 박완서
17	원주	원주통신-이기호
18	인제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이제하
19	철원	고향-이태준
20	태백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김영현

21	홍천	형벌의 집-전상국
22	화천	고지전- 신하균, 고수, 이제훈

- 강원 지역별 어휘 비교 지도

- 주요 내용: 강원 지역별(영서, 영동, 영북) 사투리 분포 및 표준어와 사투리 비교
- 작품 유형: 지도로 제작하여 패널로 전시함
- 참고 자료: 남기탁 외 3인(2002), 『강원전통문화총서4 -방언』, 국학자료원, pp263-385./최학근 (1978),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 영서/영동/영북 구분

- ① 영서: 인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철원
- ② 영동: 정선, 평창, 삼척, 강릉, 태백, 동해
- ③ 영북: 화천, 양구, 속초, 고성, 양양

<표 2-3> 어휘 비교 지도 기초 자료

번호	표준 어휘	영서		영동		영북	
		지역	어휘	지역	어휘	지역	어휘
1	누룽지	횡성	누렁지	삼척	소디끼	고성	소세이
2	다래끼	영월	눈사바리	속초	눈아리	양구	데레끼
3	모통이	춘천	모소리	삼척	귀투이	양구	구텅이
4	반딧불이	영월	개똥벌기	삼척	깨땅벌레	속초	개똥불
5	흰떡	춘천	왕모래미	삼척	백실기	속초	절편
6	말더듬이	횡성	버어리	삼척	더듬발히	화천	반병어리
7	바위	영월	방구	삼척	바이	속초	바우
8	겨울	원주	겨을	삼척	겨우레	고성	저을
9	꽃봉오리	춘천	꽃봉우리	동해	꽃망우리	화천	꽃몽우리
10	거울	춘천	섹경	삼척	민경	속초	세깁

11	수제비	춘천	수지비	삼척	붕그레이	양구	뜨덕국
12	뚝배기	홍천	뚜가리	삼척	투가리	고성	실투바리
13	거지	춘천	각서리	정선	거러지	양양	그지
14	사나이	홍천	사나애	삼척	머스메	양양	머스마
15	아이	영월	아가	삼척	해든나	고성	아예
16	언청이	홍천	해청이	평창	해채이	양양	째보
17	절름발이	춘천	쩔뚝바리	삼척	쩔룩배이	고성	쩔국바리
18	궁둥이	춘천	궁두이	삼척	궁데히	양양	궁덩이
19	눈곱	홍천	눈꺼비	평창	눈껍	고성	눈꼬비
20	눈두덩	춘천	눈두덩이	삼척	눈뚜경	속초	눈껍질
21	뺨	홍천	볼때기	동해	기태기	양양	뺨
22	수염	원주	시염	삼척	쉬염	양양	썸
23	송늑	춘천	밥송늑	태백	송님	양구	송녕
24	씨레기	원주	싸래기	태백	쓰래기	속초	경추
25	아궁이	영월	아궁지	삼척	벽아궁지	속초	부강지
26	얼굴	춘천	얼구리	강릉	낮작	고성	낮
27	외양간	춘천	마우간	정선	마구	화천	마구간
28	진드기	홍천	진데기	삼척	진두	고성	진디미
29	고들빼기	춘천	꼬들빼기	태백	꼬들빼	양구	꼬들뺨
30	가위	춘천	가새	태백	각개	양양	가우
31	여우	원주	여수	강릉	불경깨히	양양	여깁이
32	가지	원주	가지	삼척	아쟁이	화천	가지

33	개구리	인제	개구락지	강릉	깨구락찌	양구	깨구리
34	구더기	인제	구데기	동해	구디기	양구	구데기
35	구멍	춘천	구녕	동해	구명	양구	구녕
36	껍질	인제	껍풀	동해	껍질	고성	껍데기
37	닭장	춘천	닭장	정선	달구집	속초	훼
38	딸꾹질	춘천	딸꾹이	동해	깔띠기	화천	피리
39	목말	영월	무등	강릉	통구리	고성	목마
40	홀아비	춘천	홀애비	동해	호부래비	속초	홀애비

- 국립국어원 사투리 상품 공모전 수상작 목록

- 2012년~2014년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 패널 : 약 22장/ 상품 : 약 36개

<표 2-4> 사투리 상품 공모전 수상작 목록

연도	상급	분야	주제	형태	총 수량	
2014	대상	아이디어	NFC관광정보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패널		2
2014	최우수상	상품	사투리 양말	상품· (패널)	양말/패키지 (패널)	5/1 (1)
2014	최우수상	상품	사투리 타투	상품	종이	3
2014	우수상	상품	술잔 활용 상품(향초, 화초)	상품	1SET (술잔 2*2)	2
2014	우수상	아이디어	금연 스티커	패널		1

2014	우수상	상품	사투리 보드 게임	상품	SET	1
2014	장려상	상품	철도 관광 안내도	상품	종이 (전국, 전라도)	2
2014	장려상	상품	사투리 머그잔	상품		6
2014	장려상	아이디어	관광 안내 표지	패널		1
2014	장려상	아이디어	사투리 사탕- 안동의 달콤한 맛	패널		1
2014	장려상	아이디어	사투리 마스크 테이프	패널		1
2014	장려상	아이디어	화개장터 브랜딩	패널		1
2014	장려상	아이디어	슬리퍼 밑창	패널		1
2014	장려상	상품	전국 6도 사투리 큐브	상품		1
2014	장려상	상품	휴대폰용 케이스	상품		2
2014	장려상	상품	스토리텔링 어플리케이션	상품	CD 노트북/스 피커필요	1
2014	장려상	상품	사투리 스탬프	상품		6
2013	대상	아이디어	모바일 사투리 이모티콘	패널	2세트	4
2013	최우수상	아이디어	자석 지도 '어서 오세요' (냉장고 자석)	패널		1
2013	우수상	아이디어	가비(커피) 컵 디자인	패널		1
2013	우수상	아이디어	에너지 절약 캠페인 부채	패널		1
2013	장려상	아이디어	부산 남포동 먹자골목 음식 용기	패널		1
2013	장려상	아이디어	부산 전통 시장 앞치마	패널		1
2013	장려상	아이디어	정선 아리랑 벽지 디자인	패널		1
2013	장려상	아이디어	사투리 학습 전자책	상품· (패널)	아이패드/ 패널	1 (2)
2013	최우수상	상품	사투리 교통 카드	상품		1
2013	우수상	상품	사투리 날아오르다(연)	상품		3
2013	우수상	상품	사투리 스탠드	상품		1

2013	장려상	상품	사투리 앞치마 “엄마 솜씨 대끼리재?”	상품	세트	2
2013	장려상	상품	사투리 컵 받침과 쟁반	상품	평면 세트	1
					수직 세트	1
					쟁반	4
2013	장려상	상품	사투리 기념우표	상품	세트	1
2013	장려상	상품	사투리 양념 용기, 밥 공기	상품	양념통 세트	1
					밥공기 세트	1
2013	장려상	상품	사투리 젓가	상품	세트	1
2012	대상	상품	사투리 응원 야구 모자 - 온몸으로 응원하라! -	상품 (패널)	1세트/ 패널 1장	2 (1)
2012	최우수상	상품	사투리 관광 도장책	상품 (패널)	책/ 패널 1장	7 (1)
2012	우수상	상품	사투리 떡- 이리온나-	패널		2

■ 전시 부문 사전 준비사항

❖ 포스터 및 홍보지 개발

- 강원도의 지역적 특색과 효석문화제의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되는 달밤과 메밀꽃을 소재로 활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융성’상징 이미지, 국립국어원의 상징 이미지 반영
- 사투리 한마당 행사 일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사투리 낱말 퍼즐을 함께 제시하여 관람객의 관심과 참여 유도
- 2014 평창 효석문화제의 공식 홍보지와 홍보물에 국립국어원의 ‘지역 언어문화 행사’관련 내용을 연계 게재하여 홍보 효과를 상승시킴

<그림 2-6> 공식 포스터 및 홍보지



제2장 _ 사업 소개

제2장 _ 사업 연구

제3장 _ 발전 방향 및 모형 개발

<그림 2-7> 2014 평창 효석문화제 홍보물 및 홍보지



- 강원도를 배경으로 하거나 강원도 사투리를 사용한 문화 예술 작품들을 선정하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배경을 활용하여 전시 공간 디자인
- 영동/영서/영북의 사투리 어휘들을 수집하고 선정하여 지역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지도 제작

<그림 2-8> 배경 디자인



지역별 사투리 비교지도



제1장 _ 사업 소개

제2장 _ 사업 연구

제3장 _ 발전 방향 및 모델 개발

-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패널 및 상품의 전시 공간을 가운데로 확보하여 관람객의 자연스러운 동선 확보

- 패널 12개 작품에 대해서는 와이어를 이용하여 공중 전시
- 상품의 경우 테이블 이용하여 관람객들이 쉽게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전시

<그림 2-9>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 패널 및 상품 전시 형태



● 이벤트 개발

- 가로세로 사투리 퍼즐 이벤트 운영
 - 전시 내용이 확정 된 후 전시 내용을 중심으로 가로세로 퍼즐 이벤트 문제 출제
- 이벤트에 응모한 관람객에게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로고가 새겨진 볼펜과 기념 책갈피, 커피 쿠폰 발송
- 전시관의 전시 콘텐츠를 관람한 후, 홍보지의 사투리 낱말 퍼즐을 작성 및 절취하여 응모 → 행사 마감 후 추첨을 통해서 기념품 발송
 - 응모 기간: 2014. 9. 5.(금) ~ 2014. 9. 14.(일) (10일간)
 - 당첨자 발표: 2014. 9. 19.(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지
 - 경품 내역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30명)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책갈피(50명)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볼펜(참가자 모두)

<그림 2-10> 가로 세로 퍼즐 이벤트 문제 내용

				①				⑥
			②					⑦
						③		
③					④			
								⑨
		⑤						
						⑩		

가로

② “가위”의 강원도 영서 지역의 사투리
□□ - 「강원도 지역별 사투리」 중

③ “수제비”의 강원도 영동 지역의 사투리
□□□□ - 「강원도 지역별 사투리」 중

⑤ 태백지역의 “아리랑”을 부르는 말
태백 □□□□

⑦ “거울”의 영북 지역의 사투리
□□ - 「강원도 지역별 사투리」 중

⑧ “안반(떡을 칠 때에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의 강원도 횡성 사투리
흘러깡이와 □□□를 가져온 - 김성수 「올 할머미의 추억」 중

⑩ “불박이(한 곳에 고정되어 이동이 없는 상태 또는 사물)”의 강원도 사투리
□□□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 김유정의 「봄봄」 중

세로

①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빠국새”를 부르는 말
물 대신 □□□ 울음이 가득 차 - 황금찬의 「고향의 노래」 중

② “가장자리”의 강원도 사투리
발 □□□ 로 돌적마다 - 김유정의 「봄봄」 중

④ “모퉁이”의 강원도 영북 지역의 사투리
□□□ - 「강원도 지역별 사투리」 중

⑤ “아이”의 강원도 영북 지역의 사투리
□□ - 「강원도 지역별 사투리」 중


⑥ 강원도 횡성에서 “홍두깨”를 일컫는 말
아아, 정지에 가서 □□□□와 편당이를 가져온 - 김성수 「올 할머미의 추억」 중

⑨ “흰 떡”의 강원도 영동지역 사투리
□□□ - 「강원도 지역별 사투리」 중

가로세로 퍼즐 정답 맞추기


- 응모방법 : “마카 오서요” 사투리 전시관 내 응모함에 정답을 적은 쪽지를 전 화번호와 함께 넣어 주세요.
- 응모기간 : 2014. 9. 5.(금)~2014. 9.13.(토)
- 당첨자 발표 : 2014. 9. 19. (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지 (www.korean.go.kr)
- 경품 내역 :

3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50명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책갈피

모두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기념볼펜

■ 전시 부문 운영 결과

- 18개의 강원 지역 문학 기행 콘텐츠 발굴, 22개 어휘의 사투리 비교지도 작성, 약 60점의 사투리 상품 및 아이디어 수상작 전시
- ‘사투리 가로세로 낱말 퍼즐’ 이벤트 참가 현황: 총 1,050명 응모

<사진 2-2> 전시관 운영 사진





<사진 2-3> 이벤트 응모 사진





3)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무대 행사)

■ 귀빈 의전 개요

- 참석 일시: 2014년 9월 13일 (토) 오전 10시
- 장소 : 행사장 내 교통 통제로 인해 사전 간담회 장소에서 행사장으로 이동
 - ① 서울 인사: 휘닉스파크 더 호텔 로비
 - ② 강원 현지 인사: 봉평면사무소 면장실(*봉평면과 사전 협의)
- 오전 10시 20분경, 행사장 내 귀빈실로 이동(의전 담당자)

<표 2-5> 의전 일정

시간	분	프로그램	비고
10:00~10:20	20	·주요 인사 집결 및 사전 간담회	휘닉스파크 더 호텔 로비 봉평면사무소 면장실
10:20~10:30	10	·주요 인사, 귀빈실 이동	(주)브랜비즈 의전 담당
10:30~10:55	25	·주요 인사 담화(행사장 내 귀빈실)	
10:55~11:00	5	·행사장으로 이동	
10:55~11:15	20	·식전 공연(평창 둔전평 농악)	
11:15~11:17	2	·개막 선언	
11:17~11:22	5	·주요 귀빈 소개 및 제막 행사	모든 인사 참여
11:22~11:27	5	·국립국어원장 인사말	국립국어원장
11:27~11:40	13	·주요 귀빈 축사	강원도 경제부지사 평창군 부군수 강원대학교 학생처장
11:40~13:40	120	·점심 식사 [옛골]	도보이동

■ 귀빈 의전 사전 준비 내용

- 강원 언어문화 행사 참석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초청장 및 행사 추진 일정 발송
- 참석자 및 배행자 파악, 기타 의전 계획 수립

<사진 2-4> 초청장 디자인 및 발송 사진



■ 귀빈 의전 운영 결과

- 참석자(총 11명): 민현식(국립국어원장), 김미영(강원도 경제부지사), 지형근(평창군 부군수), 조남환(강릉사투리보존회장), 양근용(축제위원장), 권석주(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장), 이익섭(서울대 명예 교수), 유재춘(강원대 학생처장), 남기탁(강원대 교수), 장정룡(강릉원주대 교수)

<사진 2-5> 의전 진행 사진





■ 무대 행사 운영 개요

- **사회자:** 전체 진행 사회자 1명
 ‘알코 드래요’ 보조 진행자 1명
 ‘사투리 골든벨’ 보조 진행자 1명
- **음향:** 앰프, 스피커, 디버, 음향 조절 감독
 스탠드 마이크 1대, 핸드 마이크 2대
- **무대 디자인:** 지역 언어문화 축제의 통합 이미지를 이용한 별도 디자인 제작
 농기(農旗) 형태의 현수막과 메인 무대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제막식과
 함께 동시에 펼쳐지는 효과 활용

<그림 2-11> 무대 디자인 스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크기 : 가로 14M* 세로 10M 동근 아치 ○ 메인 무대막 1600M(세) * 4,750M(가) ○ 만장형태의 현수막을 세로로 부착 : (가로 90M* 세로 1600M)
--	---

■ 개막식

- **식순:** 식전 공연 → 제막식 . 개막 선언 → 내빈 소개 → 축사 → 축하 공연
 - 식전 공연: 평창 둔전평 농악
 관광객들을 주 행사장으로 이끌어 오는 효과
 - 제막식: 배너 이탈 효과 및 헬륨 풍선 효과
 - 개막 선언: 사회자
 - 귀빈 소개: 사회자 (의전: 브랜비즈) 총 11명

- 민현식(국립국어원장), 배행 2명(정희원 어문연구실장, 이승재 어문연구과장)
- 권석주(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장), 배행 1명(권태효 학예연구관)
- 김미영(강원도 경제부지사), 배행 1명(김남균 학예연구사)
- 지형근(평창군 부군수), 배행 1명(정의철 주무관)
- 조남환 (강릉사투리보존회장)
- 양근용 (효석문화제 축제위원장)
- 이익섭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 유재춘 (강원대학교 학생처장), 남기탁(강원대학교 교수)
-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축하: 국립국어원장 인사말, 주요贵宾 축하(강원도 경제부지사, 평창군 부군수, 강원대학교 학생처장)
- 축하공연: 정선아리랑 공연

<사진 2-6> 개막식 운영 사진





■ '알코 드래요'

◆ 프로그램 개요

- 특정 주제에 대한 사투리로 된 연극이나 만담, 노래 등 자유 형식으로 진행
- 1~2명으로 구성하여 자기소개, 자신의 이야기 및 장기자랑으로 5분 내외 진행
- 영동 및 영서 강원도 사투리를 비교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회자와 사투리에 능통한 사회자가 출연진과 사투리로 인터뷰 진행하여 강원 지역민과 타 지역 관람객들의 이해와 흥미를 동시에 높임

◆ 사전 준비 내용

- 8월 4주차 : 진행자 섭외: 주 사회자 + 보조 진행자 심명숙 교수 섭외
- 9월 1주차 : 총 4팀 섭외 후 프로그램 구성
- 9월 2주차 : 행사 전 최종 점검 및 대담 주제 공유, 시나리오 구성

● 운영 결과

- 시나리오에 따라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가 교차하며 진행
- 자기소개: 1분 정도, 대담(토크쇼) 5분 정도 진행

<표 2-6> 알코 드래요 참석자 명단

연번	이름	제목	비고
소개	사회자	“알코 드래요는요”	알코 드래요의 프로그램 소개
	심명숙 교수		
1	한예원(강릉)	“신사임당과 율곡선생님”	강원도의 위인(신사임당, 율곡선생)에 대한 이야기
	최홍서(강릉)		
2	김흥식(영월)	“이장님의 ‘모운동의 자랑’ 이야기”	폐광촌 모운동을 동화마을로 바꾼 이야기
3	윤돈중(정선)	“정선 토속사투리와 때사공이야기”	한복 분장, 정선 아리랑도 소개
4	장성선(평창)	“강원도 농산물이 최고야”	특별 분장을 하고 강원도 농산물을 사투리로 소개

<사진 2-7> 알코 드래요 운영 사진





제1장 _ 사업 소개



제2장 _ 사업 연구

제3장 _ 발전 방향 및 모델 개발

■ 사투리 골든벨

● 프로그램 개요

- 목적: 골든벨 퀴즈 대회 형식을 빌려 강원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지역어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동시에 세대를 아울러 지역어를 학습하고 전승하는 기회를 마련
- 주요 내용
 - 문제 출제 방식: 사투리의 일반적인 내용과 강원도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를 대상으로 문제를 출제.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출제 범위 일부를 제공하고 문제 유형을 달리하여 난이도를 상, 중, 하로 구분
 - 운영 방식: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지역 축제위원회와 협조하여 사전 참가 접수 받은 후 사투리 학습자료를 배포하여 학습 기회 제공
 - 진행 방식: 사전에 지급한 출제 예상 문제 내에서 현장 출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부터 ‘상’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고르게 출제함. 학생들의 탈락 정도를 고려하여 패자부활전을 진행하여 긴장감을 높임.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문제를 출제하여 대상을 가림.
- 일시: 2014년 9월 13일(토) 오후 2시, 효석문화마을 특설 무대
- 상금 기획 : 대상(1명): 500,000원×1명=500,000원 / 국립국어원장상 수여
금상(2명): 300,000원×2명=600,000원 / 국립국어원장상 수여
은상(3명): 200,000원×3명=600,000원 / 국립국어원장상 수여
동상(5명): 100,000원×5명=500,000원 / 국립국어원장상 수여
문화상품권: 20,000원×43명=860,000원
- 인력 구성 : 주 사회자 + 문제 출제자 + 평가 판정단+ 운영 요원 8명

● 사전 준비 내용

- 7월 2주차 :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 협력 체계 구축 및 기획 회의 실시
- 7월 3주차 :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이 300항목을 내외의 출제 범위 선정, 단답형, 사지선다형, 완성형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 출제, 문제의 난이도는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출제

- 8월 11일, 18일 : 강원 도내 고등학교 앞 전자 공문 발송

※ 붙임 서류: 개최 요강, 시행 세칙, 참가 신청서

- 8월 28일 : 전자 우편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참가자들에게 학습 자료 발송
- 9월 5일 : 효석문화제 추가 현장 접수 실시

● 운영 결과

- 진행: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문제출제자), 전체 사회자(인터뷰 진행)
정답 확인을 위한 운영 요원 8명 배치
평가판정단: 남기탁, 최홍열 (이상 강원대학교 교수)
- 참석: 총 9개 고등학교, 43명 고등학생 참석
- 시상: 총 11명 시상(시상자 :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이승재 어문연구과장)

<표 2-7> 사투리 골든벨 참석자 명단

연번	고등학교명	참가 학생 수	수상 학생 수
1	북평여자고등학교	2명	1명(대상)
2	강릉여자고등학교	2명	1명(은상)
3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2명	-
4	주문진고등학교	6명	2명(금상1, 동상1)
5	진부고등학교	4명	-
6	평창고등학교	8명	1명(동상)
7	대화고등학교	5명	-
8	봉평고등학교	10명	4명(은상2, 동상2)
9	상지대관령고등학교	4명	2명(금상1, 동상1)
총계	강원 도내 9개 고등학교	43명	11명

<표 2-8> 사투리 골든벨 수상자 명단

상급	학교명	수상자
대상	북평여자고등학교	최아현
금상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최은도
금상	주문진고등학교	박지민
은상	봉평고등학교	원주향
은상	강릉여자고등학교	이지운
은상	봉평고등학교	설현진
동상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이우진
동상	봉평고등학교	김유진
동상	봉평고등학교	주세빈
동상	평창고등학교	이예빈
동상	주문진고등학교	조정수

<사진 2-8> 사투리 골든벨 운영 사진





제1장 _ 사업 소개



제2장 _ 사업 연구

제3장 _ 발전 방향 및 모델 개발

■ 어린이뮤지컬: ‘머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

● 프로그램 개요

- 전래 동요 뮤지컬 ‘머느리 방귀 나와라’를 효석문화제의 주 테마인 메밀꽃과 접목시키고 강원 지역어로 각색하여 공연
- 등장인물: 뽕순이, 갑돌이, 말순이, 개똥이, 결혼식 사회자, 결혼식 도우미, 시아버지, 시어머니, 비단 장수, 그릇 장수
- 주요 내용 및 기획 의도
 - ① 강원 사투리를 사용하는 뽕순이가 잘하는 거라고는 방귀 끼는 것뿐이다. 서울에서 이사 온 갑돌이는 매일 잘난 척을 하면서 뽕순이를 구박한다. 그러다 갑자기 산에서 나타난 곰을 만나게 되고 뽕순이는 방귀로 곰을 물리치고 갑돌이를 구하게 되면서 갑돌이는 뽕순이를 좋아하게 된다. 결국 뽕순이와 갑돌이는 결혼을 하지만 갑돌이의 집에서는 뽕순이를 싫어한다. 그러나 아무 특색이 없던 마을에 뽕순이가 방귀로 메밀꽃을 피우자 마을 사람들은 뽕순이에게 고마워하고 갑돌이네 집은 뽕순이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잘 살게 된다
 - ② 전래 동화와 강원 지역 사투리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으로 재구성. 전래 놀이와 전래 동요를 결합하여 체험 효과 제고
- 특징
 - ① 관객들과 함께 전래 놀이를 즐기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는 체험형 뮤지컬
 - ② 부채춤, 꼭두각시춤, 상모돌리기, 탈춤 등 전통 무용이 결합된 공연
 - ③ 우리 귀에 친숙한 전래 동요를 관객과 함께 부르며 즐기는 뮤지컬
 - ④ 전통 혼례 장면과 전통 의상 등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즐기는 뮤지컬
 - ⑤ 강원 사투리를 가미함으로써 더욱 특색 있고 구성진 공연
 - ⑥ 집단 따돌림의 문제를 고민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 사전 준비 내용

- 7월 4주차 : 공연 콘텐츠 확정(공연팀 및 배우 섭외 확정)
- 8월 2주차 : 시나리오 협의 후 지역어 번안, 한국어 문화원에서 대본 검토
- 8월 3주차: 번안 시나리오 연습 시작 및 공연 및 무대 기획
- 9월 1주차: 예행연습 및 최종 점검

❖ 세부 내용(장별 전개)

① 1장 - 전래 놀이

마을 아이들이 나와서 전래 놀이를 한다. 배우들은 관객과 함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여우야 여우야’ 등의 노래를 사투리로 부른다. 재미 있게 놀고 있는데 놀이의 규칙을 잘 모르는 뽕순이는 실수투성이다. 서울에서 이사 온 잘난척쟁이 갑돌이는 이런 뽕순이가 싫다. 갑돌이는 뽕순이를 구박하며 잘하는 것도 없다고 놀린다. 친구들은 제기차기, 춤추기 등 자신의 장기를 뽐낸다. 뽕순이는 방귀를 잘 뀌다며 방귀를 뀌어 보지만 냄새가 지독하다며 친구들은 뽕순이를 왕따 시킨다. 갑돌이는 숨바꼭질을 하며 숨어 있는데 뽕순이가 나타나 같이 놀아 달라고 한다. 이때 곰이 나타나고 뽕순이가 방귀로 곰을 물리친다. 갑돌이는 뽕순이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친한 어깨동무가 되자고 한다.

② 2장 - 전통 혼례

어깨동무였던 뽕순이와 갑돌이가 결혼을 한다!

뽕순이와 갑돌이의 결혼식. 사회자들은 객석에서 뽕순이와 갑돌이의 어머니를 찾아 무대로 올리고(관객 중 2명) 어머니들은 맞절을 하고 초에 불을 붙인다. 뽕순이와 갑돌이는 결혼식 순서에 따라 결혼을 한다. 신명나게 꼭두각시춤을 추며 결혼을 축하한다.

③ 3장 - 시댁

아침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며느리 뽕순이에게 밥상을 차려 오라 한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으려는데 뽕순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 가족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물어 본다. 알고 보니 뽕순이는 방귀가 끼고 싶다. 가족들은 뽕순이에게 방귀를 끼어도 좋다고 하고 뽕순이는 가족들에게 나무와 기둥을 잘 잡고 있으라고 한다. 뽕순이가 방귀를 끼니 집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엄청난 방귀가 나온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 당장 뽕순이를 내쫓으라고 말한다.

④ 4장 - 방귀로 꽃 피웠네

시아버지는 산속에 있는 뽕순이의 친정으로 뽕순이를 데려다 주러 간다. 그런데 가는 길에 논과 밭에는 가뭄이 들어 꽃이 전혀 없다. 효석문화제 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메밀꽃을 볼 수가 없다. 비단 장수와 그릇 장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장사를 하려고 했으나 사람이 없다며 불평을 한다. 이때 뽕순이가 자신의 방귀 한 방이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한다. 장수들은 뽕순이 말을 믿지 않고 뽕순이는 장수들과 내기를 한다. 뽕순이가 방귀를 끼자 메말랐던 땅이 기름지게 되며 메밀꽃이 만개한다. 비단 장수와 그릇 장수는 뽕순이에게 고마워하며 비단과 그릇을 준다.

<사진 2-9> 뮤지컬 운영 사진





■ 폐회식

- ‘사투리 골든벨’ 시상식
- 시상식: 이승재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 폐회 선언: 사회자

<사진 2-10> 폐회식 운영 사진



4) 2014 지역 언어문화 행사(홍보)

● 세부 홍보 계획

- 단계별 홍보 계획 실행: 1단계(인프라 구축), 2단계(관심 끌기), 3단계(공감 형성)
- 온/오프라인 홍보 연계
 - 온라인: 국립국어원 보유 및 강원도와 효석문화제 전용 블로그 및 누리집 이용
 - 오프라인: 홍보물을 활용한 현장 홍보 및 유관 기관 포스터 배포

<표 2-9> 포스터 등 우편 발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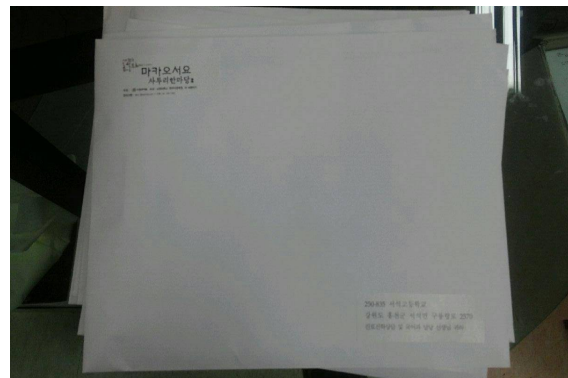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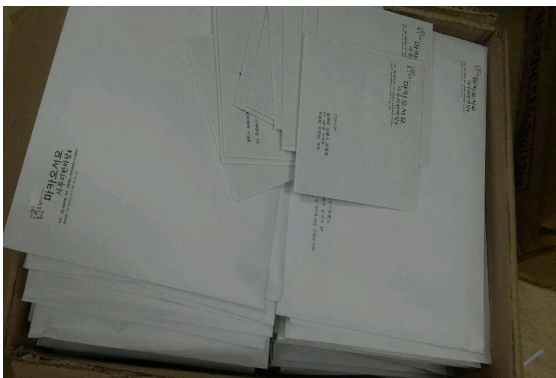
발송처	배송 주소	비고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지역 행사 담당자 귀하. (우. 200-700)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지역 행사 담당자 귀하. (우. 233-807)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창의진로과 진로진학 담당 장학사님 귀하. (우. 200-713)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평창교육지원청 1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중등교육 담당자 귀하. (우. 232-806)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강릉교육지원청 2	강원도 강릉시 노암등길 39 강릉교육지원청 창의진로교육 담당자 귀하. (우. 210-708)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정선교육지원청 3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 정선교육지원청 창의진로교육 담당자 귀하. (우. 233-804)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영월교육지원청 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 영월교육지원청 창의진로 담당자 귀하. (우. 230-808)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강원대학 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국문학과 사무실. (우. 200-701)	
강릉원주대학 2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사무실. (우. 201-702)	
관동대학 3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경영대학 글로벌어문학부 사무실. (우. 210-701)	
평창 고등학교 1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람들길 141 평창고등학교 진로진학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32-806)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대화 고등학교 2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32-8 대화고등학교 진로진학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32-910)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봉평 고등학교 3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4길 27-6 봉평 고등학교 진로진학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32-925)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진부 고등학교 4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솔천길 69 진부고등학교 진로진학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32-948)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상지대관령 고등학교 5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해당화3길 24 상지대관령 고등학교 진로교육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32-956)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강릉고등학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587번길 68 강릉고등학교 진로교육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10-120)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강릉 중앙고등학교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422 강릉중앙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및 국어과 담당선생님 귀하. (우. 210-937)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강릉여자고등학교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07 강릉여자고등학교 진로교육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10-933)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강릉제일고등학교	강원도 강릉시 화부산로 8번길 37 강릉제일고등학교 진로교육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10-923)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경포고등학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547번길 14 경포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및 국어과 담당자 선생님 앞. (우. 210-957)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주문진고등학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학교길 28 주문진고등학교 진로상담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10-801)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정선고등학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4길 15 정선고등학교 진로진학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33-800)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사북고등학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640 사북고등학교 진로진학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33-904)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고한고등학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9길 160 고한고등학교 진로상담 및 국어과 담당자 귀하. (우. 233-813)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여량고등학교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 7길 42 여량고등학교 진로상담 및 국어과 담당자 귀하.(우. 233-846)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임계고등학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백두대간로 1313 임계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및 국어과 담당자 귀하. (우. 233-875)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함백고등학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211 함백고등학교 진로상담 및 국어과 담당자 귀하. (우. 233-826)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영월고등학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오무개길 51 영월고등학교 진로교육 및 국어과 담당자 귀하. (우. 230-801)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마차고등학교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학로길 25-8 마차고등학교 진로진학 및 국어과 담당자 귀하.(우. 230-872)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석정여자고등학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14-11 석정여자고등학교 진로.인성 교육부 앞. (우. 230-808)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주천고등학교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89번길 41 주천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30-854)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상동고등학교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태백산로 3147 상동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및 국어과 담당 선생님 귀하. (우. 230-902)	사투리 골든벨 협조 공문 동봉.

<사진 2-11> 우편 발송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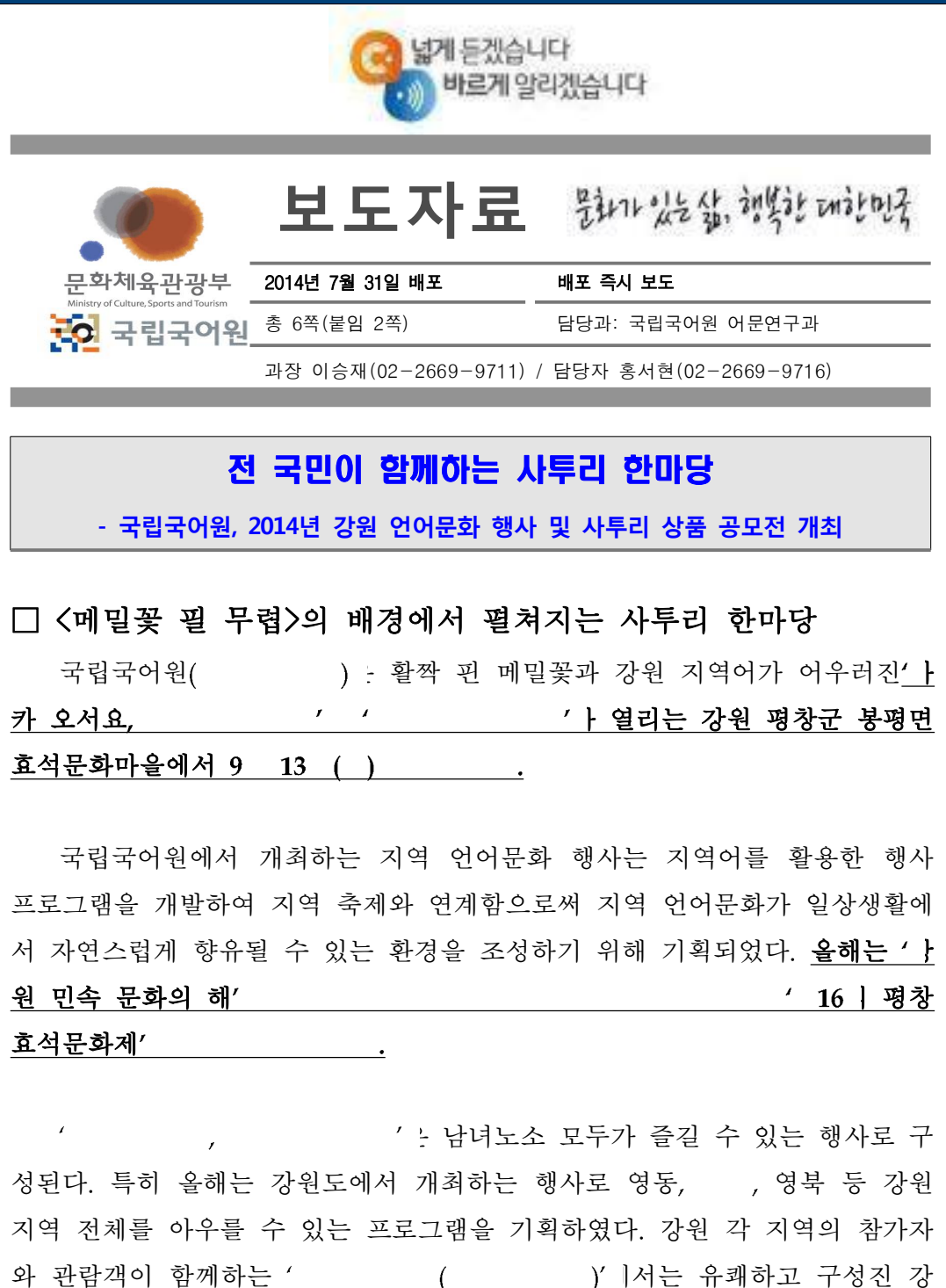
· 언론 홍보: 지역 신문 등 각종 지면 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단계	구분	미디어,매체	세부 내용	
			국립국어원 / 브랜비즈	효석문화제
1단계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보도자료	· 온라인 채널 구축 및 1차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온라인 기사 노출	· 효석문화제 공식 누리집 내 국립국어원 보도 자료 내용 게시
		블로그 및 누리집 채널 검색	· 국립국어원 공식 채널을 활용한 홍보 · 공식 누리집 및 SNS, 온라인 소식지, 정기 간행물 등	· 효석문화제 공식 누리집 및 언론 보도 채널과 연계한 홍보 개시
		홍보물 제작	· 시각적 집중 효과가 뛰어난 홍보물 개발을 통해 국립국어원의 효석문화제 홍보 연계: - 공식 포스터, 홍보지, 거리 배너 등 - 다양한 홍보물의 오프라인 배포, 부스 전시 등을 통해 홍보 효과 극대화	
2단계 관심 끌기	이슈화	홍보 이벤트 실시	· 행사 기간 중 전시 부스의 홍보지 퀴즈 이벤트를 통해 관심 유도	
	관계자 및 대국민 홍보	유관기관 홍보	· 강원 지역 단체 및 대학 대상 홍보 : 포스터 배포	· 축제위원회 연계 홍보: 포스터 또는 홍보지, 보도 자료
3단계 공감 형성	대국민 홍보	방송 미디어	· 방송 촬영 및 녹음 협조, 추진 - 강릉 MBC 라디오 다큐멘터리 - KBS1 <라디오 전국일주>	· 효석문화제 관련 취재 보도 및 중계 보도 유치를 활용한 연계 홍보
		지면 매체	· 지역 언어문화 축제 개최 및 운영 결과에 관한 2차 보도 자료 배포	· 지역 신문(강원일보) 내 지역 언어문화 축제 홍보 자료 게재 추진

■ 보도자료 배포 후 언론 보도 현황

- 국립국어원 보도자료 배포(1회) : 2014.7.30.
-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게재(1회)

보도자료



원 사투리 만담을 만날 수 있고 정선 군립 아리랑예술단의 마당극 ‘
’ |
서는 살아 있는 사투리의 해학과 아리랑 가락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최고의
고등학생 사투리 유망주를 뽑는 ‘
’ : 사투리가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
’ |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 :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참여 기회
를 제공하는 마당이 될 것이다.

**강원 언어문화 행사와 함께 9 5 9 14 ‘
, 사투
리 전시회’** . 예술 작품 속에 담긴 강원 사투리, 각 지역의 사투리를
비교할 수 있는 강원 사투리 지도, ‘
’ 전국 사투
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 <
>
의 배경이 된 봉평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강원 지역의 감성과 정서가 반
영된 다양한 전시작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014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행사 일정

- 행사명: 2014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 일시: 2014년 9월 13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평창 효석문화제(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주요 행사

	시간	행사 내용
개막식	11:00~11:30	개막 선언, 내빈 소개, 축사, 축하 공연 등
1부	11:30~13:00	‘알코 드레요’ (사투리 만담 공연)
	13:00~14:00	정선 아라리 공연 (마당극 양반전)
2부	14:00~15:00	사투리 골든벨
	15:30~16:30	어린이 뮤지컬 (“며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
폐막식	16:30~17:00	시상식 및 폐막 선언

2014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전시 일정

- 행사명: 2014 평창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 전시회'
- 전시 일정: 2014년 9월 5일(금)~9월 14일(일)
- 장소: 평창효석문화제(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주요 전시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국립국어원 공모전 수상작)

예술 작품 속 강원도 사투리 전시

강원도 사투리 어휘 비교 지도


□ 2014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아울러 국립국어원() : 일생생활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는 지역어를 되살리기 위하여 7 21 () 8 18 () '2014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 이번 공모전은 지역어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의 언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는 지역어가 소통되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어 사용자들에게 언어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모 주제는 지역 사투리를 활용한 유· ·형의 상품 또는 상품 아이디어이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실물이나 이미지 보드로 제작하여 신청서 및 제안서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4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공식 누리집(<http://saturi-contest.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012 ' ' 수상작을 보면 지역어 상품의 활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첫 회 대상 수상작인 ' ' 3월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열린 ' : ' , 현재는 공모전 상금을 종잣돈으로 상품화에 성공하였다. 이밖에도 첫 회 최우수상 수상작인 ' ' ' 모바일 메신저용 사투리 이모티콘' .

[그림] 2013년 공모전 수상작(모바일용 사투리 이모티콘 / 사투리 교통카드)



이번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수상작들은 ‘3차 효석문화제’

2014 전국 사투리 상품·아이디어 공모전 일정

- 공모 주제: 전국 지역어를 활용한 유·무형 상품 또는 상품 아이디어
- 접수 기간: 2014년 7월 21일(월)~8월 18일(월)
-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식: 2014년 9월 5일(금) / 9월 중 시상 예정
- 시상 내역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팀)	1,000만 원
최우수상 (국립국어원장상)	2명(팀)	각 300만 원
우수상	4명(팀)	각 100만 원
장려상	약간 명(팀)	각 20만 원

•공식 누리집: 2014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www.saturi-contest.org)

온라인 소식지 게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 국립국어원,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 개최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맞아 (사)이효석문학선양회에서 주최하는 ‘제16회 평창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강원도 평창군 효석문화마을에서 진행하였다.

- 행사명: 2014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 일시: 2014년 9월 13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평창 효석문화제 특설무대(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소재)
- 주요 행사

	시간	행사 내용
식전공연	11:00~11:15	평창 둔전평 농악
개막식	11:15~11:40	개막 선언, 제막식, 귀빈 소개, 축사
1부	11:40~12:40	정선 아리랑 공연
	12:40~13:50	‘알코 드래요’ (사투리 만담 공연)
2부	13:50~15:00	사투리 골든벨
	15:00~16:00	어린이 뮤지컬 ‘며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
폐막식	16:00~16:30	시상식 및 폐막 선언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되었다. 식전 행사인 ‘평창 둔전평 농악’ 길놀이를 시작으로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의 ‘아리랑 공연’ 등 강원 주요 무형문화재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강원 사투리 만담 ‘알코 드래요(알려 드려요)’에서는 살아있는 사투리의 해학을 엿볼 수 있었으며, 강원 도내 고등학생들과 함께한 ‘사투리 골든벨’에서는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대회를 통해 북평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아현 학생이 대상을,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최은도 학생과 주문진고등학교 박지민 학

생이 각각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 밖에도 어린이 뮤지컬 ‘며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강원의 언어문화와 전통 예술을 함께 체험하는 마당이 되었다.



또한 이번 효석문화제 기간(9 5 ~9 14) ‘강원 사투리 전시회’ . 18 개 시·군을 대표하는 예술 작품 속 강원 사투리,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한 ‘ ’ 수상작들이 한곳에 전시되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전시 부스에서 진행한 ‘ ’ 1,000 개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강원 언어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효석 문학의 정취와 강원 사투리가 어우러진 ‘
마당’ : 사라져 가는 지역어에 녹아 있는 지역민의 삶과 정서의 가치를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게 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 문화유산으로서 지역어를 보존하고 지역의 언어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든 세대를 아울러 지역어가 자연스럽게 향유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표 2-10> 언론 보도 현황

보도일	언론사	기사제목
2014. 7. 31.	뉴스1	국립국어원, '마카 오서요-사투리 한마당' 개최
2014. 7. 31.	뉴스시스	국립국어원, 지역 언어문화를 위하여... '사투리 한마당'
2014. 7. 31.	연합뉴스	국립국어원 '강원도 사투리 한마당'
2014. 9. 13.	강원일보	오늘 효석문화제서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2014. 9. 15.	강원일보	평창 '사투리 한마당' 성료

<사진 2-12> 홍보 현황 사진 자료



제3장

지역 언어문화 행사 발전 방향 및 모형 개발

1. 발전 방향

- 1) 행사 준비 과정 평가 및 개선 방안
- 2) 전시 부문 평가 및 개선 방안
- 3) 무대 행사 부문 평가 및 개선 방안
- 4) 홍보 부문 평가 및 개선 방안
- 5) 지역 언어문화 행사 발전 방향

2. 지역 언어문화 행사 모형 개발

- 1) 행사 모형
- 2) 행사 추진 절차
- 3) 추진 일정
- 4) 홍보 전략

2014년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1. 발전 방향

1) 행사 준비 과정 평가 및 개선 방안

● 성과

- 행사 기획 단계에서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으로 행사 콘텐츠의 전문성과 행사의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축제 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 미흡

- ① 사투리 한마당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석문화제 축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관계 유지가 필요
 - 효석문화제위원회 조직 구성에 관한 이해 부족
 - 효석문화제의 자체가 민간 주도 행사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여 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업무 협조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기는 어려움.

● 개선 방안

- ① 축제위원회의 조직 구성 파악 및 지속적인 소통 필요
 - 연계 업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고 협력하기 위해 전체 조직도를 파악하고 해당 담당자와의 직접 소통하여 적절한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② 지역축제와 상생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도출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축제위원회와의 기획 회의 및 업무 협의가 필요함
- ③ 행사 콘텐츠를 구상할 때 언어적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전문성, 그리고 해당 지역민들의 참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전시 부문 평가 및 개선 방안

(1) 전체 평가

● 성과

- ① 지역 축제의 행사 프로그램 다양화, 질적인 제고 도모
- ② 충분한 부스 확보 및 자리 선정으로 효율적 부스의 운영 및 설치
- ③ 차별화된 내부 디자인으로 전시 효과 극대화
- ④ 이벤트의 효율적인 실시로 내부 전시 관람 유도 및 집객 극대화
- ⑤ 전문 운영 요원의 전시 부스 상주로 돌발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처
- ⑥ 상품, 패널, 전시 콘텐츠, 영상, 음향 등 다양한 요소로 전시 부스를 구성하여 볼거리를 풍부하게 함

● 문제점

- ① ‘예술 작품 속 사투리 기행’의 경우 전시 공간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아 양질의 전시 자료임에도 전시 효과가 떨어짐
- ② 전시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이 연계되지 않음
- ③ 규격화되지 않은 부스 크기와 형태로 전시를 진행하기에 다소 협소
- ④ 야외 전시에 따른 방법, 전시물들의 손상에 대한 대비에 어려움
- ⑤ 진행 요원 교육 및 관리 미흡

● 개선 방안

- ① 사전에 전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간 특성을 분석하여 전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 및 배치가 요구됨
- ② 전시물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 ③ 전시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상업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④ 배경 현수막, 이동식 이젤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대한 연구 필요

- ⑤ 패널 등 야외 전시를 위한 전시물 손상 보호를 위한 별도 보관소 개설 필요
- ⑥ 전시 부스 및 사투리 골든벨을 운영하는 요원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관리 장치 필요
- ⑦ 방언 및 국어국문학 전공자 등 전문성 있는 요원 배치

(2) 전시 프로그램별 평가

■ 예술 작품 속 강원도 사투리 전시

● 성과

- ① ‘강원 문학 기행’이라는 전체 콘셉트를 기초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과 관련 있는 예술 작품들로 구성하여 관객 흥미 유발
- ② 문화적, 문학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져왔던 강원지역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③ 강원도의 문화가 다양한 문화 장르에 작품을 대표하는 대표적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

● 문제점

- ① 전시물을 적극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요인 부족
- ② 전시 현수막의 배경이 어두워 오후 시간대 관람에 장애가 됨

● 개선 방안

- ① 전시물을 감상하고 전시관 안에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체험 기회 제공
- ② 전시 공간과 배경을 고려한 디자인 및 색감 선택의 중요성 파악

■ 강원도 사투리 어휘 비교 지도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① 절차: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강원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를 확인하고 이중 일상에서 쓰는 어휘를 우선 선별함. 선별한 어휘 중 표준어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사투리로 2차선별하고 강원도 영동, 영서, 영북의 사투리가 모두 다른 경우를 최종 선별함. 또한 두 지역의 사투리는 같으나 다른 한 지역의 사투리가 다른 경우를 추가로 선별함.

- ② 문제점: 사투리 선별이 문헌 자료에만 의존하여 현지답사의 확인 과정을 거치지 못함. 또한 사투리를 문자로만 제시하여 참가자들이 사투리가 실제 어떻게 발음 되는지 알기 어려움.
- ③ 개선 방안: 문헌 자료를 이용하되 각 지역의 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행사장의 전시 패넬에 음성 단추를 제작하여 해당 사투리의 음성 단추를 눌렀을 시 실제 발화를 들을 수 있는 등의 방법을 고안해야 함.

■ 전시 운영

- ① 성과
 - (ㄱ) 사투리 퍼즐 이벤트와 연계하여 관객들의 관심 유발하여 관람
 - (ㄴ) 부모와 자녀 간 ‘교수-학습’활동이 자연스럽게 유발
- ② 문제점
 - (ㄱ) 사투리 어휘 선정의 전문성 부족
 - (ㄴ) 단순 어휘 나열, 배치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었음
- ③ 개선 방안
 - (ㄱ) 방언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질적으로 향상된 지도 전시 기획이 필요
 - (ㄴ) 사투리의 단순 나열보다 음성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 성과

- ① 전시 프로그램 가운데 관람객의 반응이 가장 높았음

■ 문제점

- ① 판매하는 상품으로 여기는 관람객들이 많아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음
- ② 지역 축제 개최 기간 동안 관리 및 보안이 취약하여 수상작의 분실 위험이 있었음

● 개선 방안

- ① 비매품인 경우 별도의 안내문과 같은 장치 필요
- ② 전시 공간 확보와 함께 전시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 공간 및 체계 구축 필요
- ③ 향후 지역 축제에서 유사한 전시를 할 때 축제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소량의 상품을 준비하여 판매 수익을 ‘문화 기금’ 형식으로 제작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있음.

■ 사투리 낱말 퍼즐 이벤트 및 기타

● 성과

- ① 총 1,050명의 관람객 응모
- ② 전시 부스 관람을 한 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여 부스 프로그램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
- ③ ‘강릉방언대사전’과 같이 지역 사투리 보존회의 방언 관련 자료를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지역어를 찾아보고 활용해 보는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

3) 무대 행사 부문 평가 및 개선 방안

(1) 전체 평가

● 성과

- ① 사투리 한마당의 행사 기간을 적절히 설정하여 다수의 집객 실현
- ②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어에 대한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이 가능
- ③ 행사의 사전 점검으로 프로그램별 무대 장치, 음향 시설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 ④ 효석문화제 특성상 메밀꽃 개화 시기와 추석 연휴가 겹쳐 집객(주최 측 추산, 75만 명)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모델을 제공받았다는 축제위원회 측의 의견 있었음

● 문제점

- ① 마당놀이가 가능한 무대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 ② 무대 주변 거리 공연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 무대 행사에 대한 집중이 어려웠음
- ③ 충분한 무대 환경 준비가 부족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미흡

● 개선 방안

- ① 야외 행사 준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완
 - 무대 행사나 마당놀이 행사 등 행사 시간 사이 휴식 시간을 마련하여 관객들인 편하고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
- ② 축제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
- ③ 소요 장비에 대한 사전 준비로 문제점 발생 시 탄력적 대응 방안 마련
- ④ ‘알코 드래요’, ‘사투리 골든벨’과 같이 지역 언어문화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추가로 필요

(2) 무대 행사 프로그램별 평가

■ 식전 공연 및 축하 공연

● 성과

- ①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평창 둔전평 농악’의 길놀이는 효과적이었음.
- ② ‘정선 아리랑 공연’의 경우 검증된 전문가 공연팀의 공연으로 관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다음 프로그램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

● 문제점

- ① ‘강원 지역 언어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어휘적 콘텐츠가 부족
- ② 강원도 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평창, 정선 지역에 국한한 섭외
- ③ 길놀이와 공연 무대 사이의 공간적 제약이 아쉬움

● 개선 방안

- ①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각 지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강원도의 콘텐츠가 포함된 프로그램 공연 필요
- ②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표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 필요
- ③ 무대 공연장의 특색을 반영하여 농악의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무대 연출 필요

■ ‘알코 드래요’

● 성과

- ① 관객들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구수한 사투리의 만담 형식으로 관객 호응도 증가
- ② 영서와 영동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박이들로 구성하여 강원도 사투리의 특성

을 두루 잘 나타낼 수 있었던 프로그램

- ③ 성공담이나 주변에 있었던 일을 소재로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관객들의 집중도를 높임
- ④ 작년 경남 언어문화 행사에서 일반인 출연자들의 경연 무대 진행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객의 호응도를 높이고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준전문가의 공연 형식을 선택
- ⑤ 강릉 단오제 ‘강릉 사투리 경연 대회’ 사회자인 심명숙 교수를 섭외하여 전문 사회자와 지역 언어 전문 사회자가 교차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선택하여 강원 지역민을 포함하여 타 지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함

❖ 문제점

- ① 출연자 섭외의 어려움
 - 실제 무대에서 공연 형식으로 사투리를 구연할 수 있는 참가자 섭외가 어려움
 - 영서/영동/영북 각 지역별 팀 구성 및 2인 이상의 팀 섭외에 대한 어려움
- ② 만담 주제들의 다양성 확보 미흡으로 관객 호응을 유도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 다소 부족함
- ③ 프로그램 성격(공연 또는 경연)을 사전에 규정하지 못해 출연자 섭외나 시나리오 구성이 지연됨

❖ 개선 방안

- ① 일반인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
- ② 집객 호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재 발굴에 대한 기획적 접근이 필요
- ③ 행사 준비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대본 구성, 연습, 수정 및 보완에 투자 필요

❖ 자체평가 점수

진행평가 - 중상 / 지속성 - 중상

■ 사투리 골든벨

● 문제 출제

- ① 절차: :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강원도 내의 사투리를 확인하고 이중 문제로 가공했을 때 적합한(적절한 오답이 유도될 수 있는가, 보기의 구성이 용이한가 등.) 사투리를 출제 범위로 정함. 출제 범위의 사투리 외에 사투리의 일반적인 내용을 추가로 출제함.

이를 바탕으로 단답형, 사지선다형, 완성형 등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오답 확률이 높은 문제로 패자부활전 문제를 별도 출제함. 출제한 문제들 중 난이도 중, 하에 해당되는 것을 중심으로 사전 참가자들에게 출제 범위를 제공하여 문제 풀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② 문제점: 참가 대상자는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지역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많은 지역의 참가자를 유치하기 어려웠음. 또한 현장에서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사투리를 그 지역의 발음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는데 문제 출제자 한 사람이 출제하였기에 실제 사투리와는 발음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③ 개선 방안: 참가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행사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폭넓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대표 지역의 사투리를 잘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골든벨 문제 출제자로 활용할 수 있음.

● 행사 운영

① 성과

- (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학습 기회도 마련
- (ㄴ) 관중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구성으로 골든벨 참여자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함께할 수 있는 무대 마련
- (ㄷ) 기관장 상장 및 장학금 등 적절한 보상으로 학생들의 참여 유도 및 지역 사회에 기여

- (ㄹ) 문제 출제자와 사회자를 분리시키고 평가 판정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문제 출제 및 정답 판정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움
- (ㄴ) 관람객들에게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객의 호응도를 높였음

② 문제점

- (ㄱ) 여름방학 기간과 겹쳐 참가 학생 섭외가 어려웠음
- (ㄴ) 진행 요원들의 운영 미숙함 발생
- (ㄷ) 정해진 수상 인원에 따라 상급에 맞추어 탈락자를 만들어 내야 하므로 운영이 지연되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함
- (ㄹ) 사투리 문제 맞추기 외에 관객과 호흡을 맞추고 참가자들과의 다양한 재미 요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함

③ 개선 방안

- (ㄱ) 사전에 지역 대표 대학, 지역 교육청과 교육 지청과의 충분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사투리 골든벨 행사의 취지를 홍보하고 참가 협조 요청
- (ㄴ) 진행 요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
- (ㄷ)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준비로 난이도 및 출제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행사의 성격상 대회 결과에 따라 상급을 조절하는 여유 필요
- (ㄹ) 다양한 재미 요소를 살리고 사투리 골든벨의 취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터뷰 등의 시간 마련 필요

■ 자체평가 점수

진행평가 - 상 / 지속성 - 상

■ 머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어린이 뮤지컬)

● 성과

- ① 전래 동요를 사투리로 뮤지컬화한 점이 돋보임
- ② 다양한 소품과 무대 효과가 있는 뮤지컬 형식이라 야외 공연에 적합
- ③ 체험형 뮤지컬로 구성되어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용이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 집객에 유리
- ④ 전통놀이의 다양한 콘텐츠와 동요에 대한 음향 효과 등 뮤지컬 구성 효과들이 다양하여 관객의 집중도 향상에 좋음

● 문제점

- ① 사투리와 지역 축제 모두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
- ② 대본 번안의 검증이 충분하지 못함

● 개선 방안

- ① 기본 줄거리 안에 강원도 지역어의 특성을 녹일 수 있도록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지역 사투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행 연습 필요
- ② 지역어 보존회 또는 지역어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시나리오에 대한 사투리 번안의 검증 절차가 필요

● 자체평가 점수

진행평가 - 상 / 지속성 - 상

4) 홍보 부문 평가 및 개선 방안

● 성과

- ① 효석문화제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축제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연계 홍보
 - 효석문화제 콘텐츠 속의 사투리 한마당 행사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효석문화제 홍보에 자연스럽게 노출
 - 행사의 준비에서 실행까지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취재 및 보도기사를 공동 제작하고 반영함으로써 다각적인 홍보 지원
- ② 지역 신문, 방송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
- ③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전시 행사의 관람객을 확보하고 무대 행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

● 문제점

- 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홍보 부족
- ② 지역 홍보 집중으로 인한 지역적 한계성 도출
- ③ 누리집이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1차적 홍보 외의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
- ④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축제로서 효석문화제를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매체가 많았으나 ‘강원 언어문화 행사’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개선 방안

- ① 홍보 전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홍보 계획 수립 및 홍보의 일관성 확보
- ② 홍보 매체의 특성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
- ③ 온라인 홍보에 대한 전략 수립 및 효율적 운영
- ④ 파급 효과가 큰 매체 보도를 적극적으로 연계 활용

5) 지역 언어문화 행사의 발전 방향

(1) 범용의 모형 개발을 통해 지역 축제의 질적 향상 도모

- 핵심 프로그램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는 여러 지역 축제 위원회와 지역 행사의 질적인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 축제와 연계한 언어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및 보급
- 국립국어원에서 지난 3년간 충청, 경상, 강원 지역에서 개최한 지역 언어문화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범용의 모형 개발 및 보급
- 지역 축제의 경우, 타 지역 축제와의 차별성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축제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검증된 행사 모형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2) 각 지역의 지역 언어문화 관련 행사를 아우를 수 있는 장 마련 필요

- 향후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문화 관련 행사(예: 사투리 경연 대회, 사투리 상품 공모전 등)를 전국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장을 국가 기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 각 지역의 사투리 경연 대회를 통해 선발된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사투리 말하기 대회', '전국 고교생 사투리 골든벨',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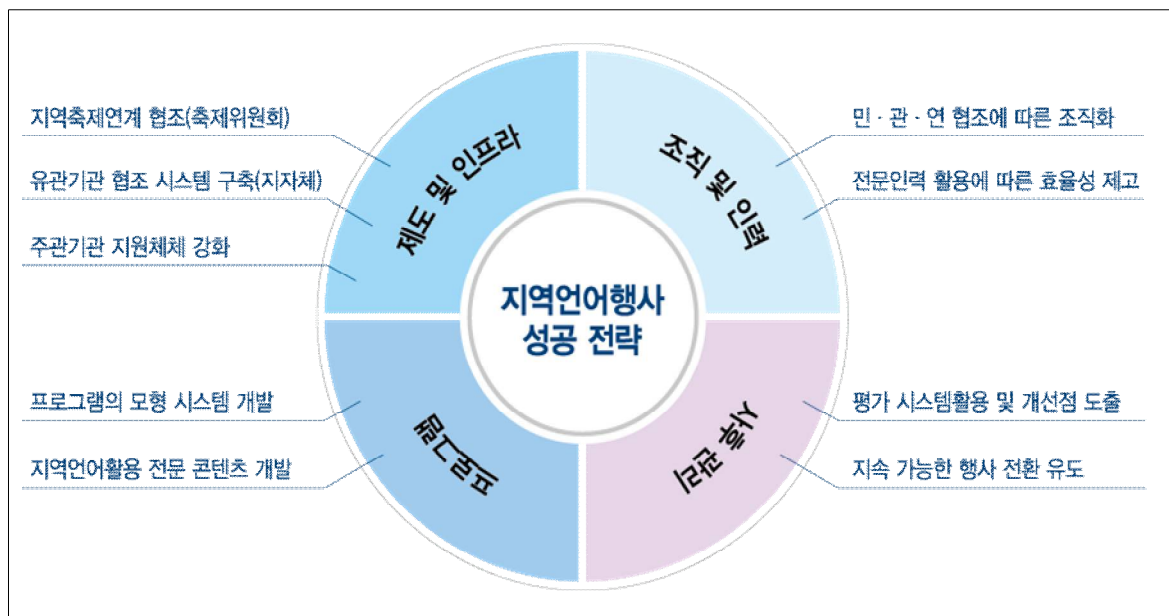
(3) 지역 축제와 관련된 기관, 단체,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제도 및 인프라: 지역축제와 연계하기 위한 축제위원회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며 국립국어원과 협조 가능한 유관 기관뿐만 아니라 축제가 진행되는 시도의 지역자치단체와 지역대표 대학교의 한국어문화원, 방언 및 민속학 전문가, 지역 방언 보존회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해야함
- 조직 및 인력: 행사 전문인들로 구성된 민간 기업, 축제위원회, 지자체의 축제 담당자를 포함하여 지역어 콘텐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 지역 대표 대학교의 한국어문화원이나 방언보존회를 포함하는 인력 구성이 요구됨

(4)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간 교류 확대

- 프로그램 개발: 해당 지역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타 지역 축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지역 간 교류: 전국의 지역 언어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유한 축제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교류망을 조직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함
- 사후 관리: 행사 후 진행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축제 모형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해야 함

<그림 3-1>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를 위한 개발 추진 방향



2. 지역 언어문화 행사 모형 개발

1) 행사 모형

● 조직 및 인력 구성

- 효율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축제 위원회, 행사 전문 기관, 지역 대학의 한국어문화원, 방언 보존회, 국립국어원 등 유관 기관과 단체가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
- ① 지방자치단체, 지역 축제 위원회: 축제 기획 및 총괄 관리, 감독
- ② 행사 전문 기관: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무, 홍보 등
- ③ 지역 대학 한국어문화원, 방언 보존회: 프로그램 콘텐츠 선별 및 검증
- ④ 국립국어원 등 국가 기관: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모델 보급 및 콘텐츠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등

● 지역 축제와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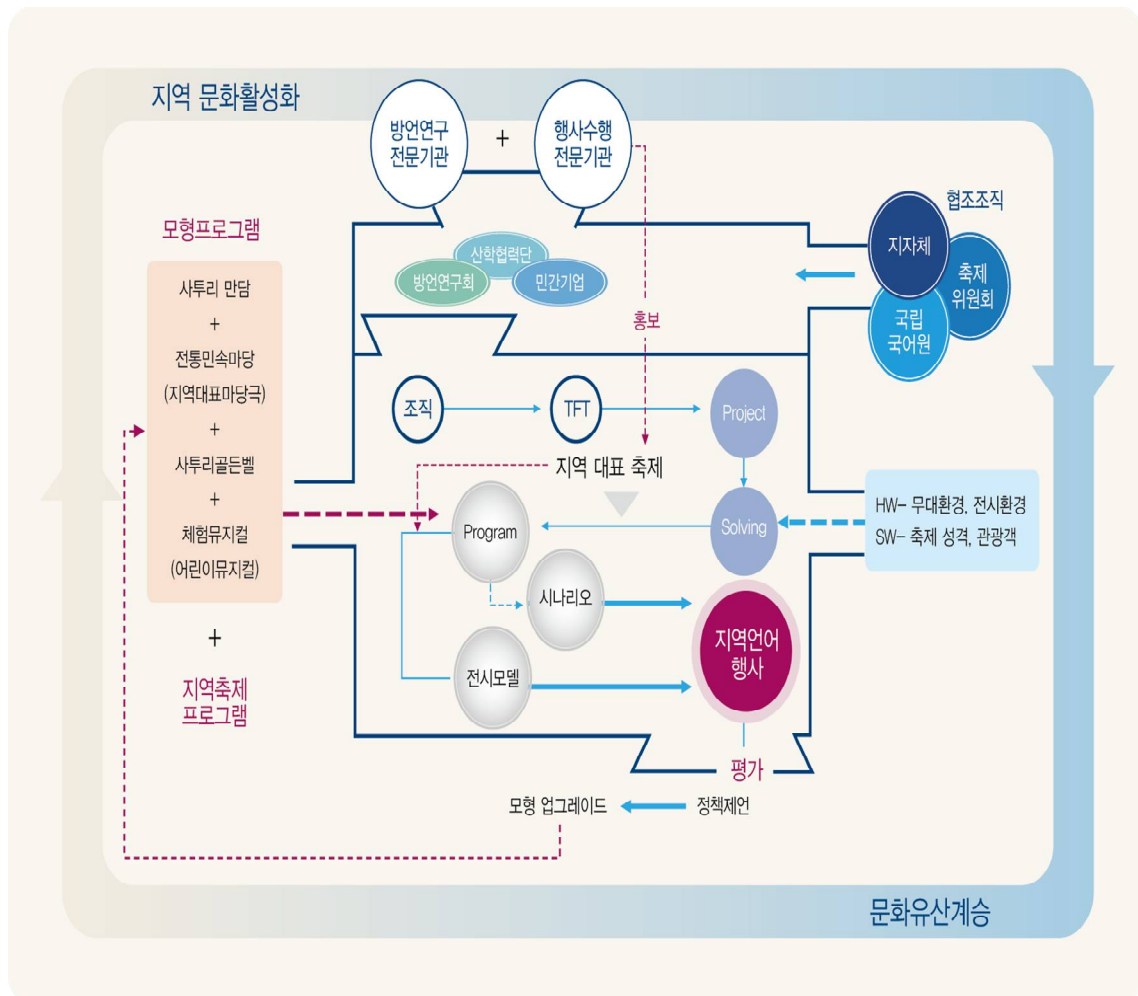
- ① 외형적 연계: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무대 환경과 전시환경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 → 행사 일정 및 공간, 무대 협조에 대한 연계성 확보 중요
- ② 내형적 연계: 지역축제의 특색과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축제 관광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축제의 성격과 관광객의 특색을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
- ③ 홍보 연계: 행사 수행 전문기관의 행사의 콘셉트를 반영하여 개발된 홍보물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의 홍보망과 연계하여 지역 축제 언어문화 행사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 홍보되어야 함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존의 지역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언어문화 행사 프로그램 선정. 크게 사투리 만담, 전통 민속 공연, 사투리 골든벨, 사투리 뮤지컬 등으로 기획

- ① 사투리 만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만담 형태의 제한은 없음
- ② 전통 민속 공연: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축제의 전문성을 살리고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사투리를 콘텐츠를 담고 있으면서 역동적인 마당극을 적절히 활용하여 관람객들의 행사 관람 시간을 유지시키는데 효과적

- ③ 사투리 골든벨: 지역 언어문화 행사의 핵심 콘텐츠. 지역 언어문화 행사의 취지를 잘 반영하면서 각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역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교육용 프로그램으로서 축제 참여 연령층을 넓게 확보하는 강점이 있음.
 - ④ 사투리 뮤지컬: 학생과 지역민들로 구성된 행사 프로그램은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여 행사 집중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폐막식 전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투리 뮤지컬로 기획.
- ❖ 위의 4가지의 예시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및 지역 축제의 성격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음.

<그림 3-2> 지역 언어문화 행사 모형 예시



2) 행사 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협력 체계 구축	업무 분장 구성 및 자료 수집, 분석	지역어 연계 행사 및 전시 기획	지역 언어문화 행사 진행 [사투리 한마당]	지역 언어문화 행사 결과 활용 방안 모색

■ 1단계 : 협력 체계 구축

● 시도의 문화 관련 부서 및 지역 축제 담당 부서와 연계

- 행사 선정: 축제위원회의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원에 대한 협조 요청(공문 필요)
- 추진: 전문 공연팀, 장소 및 장비 대여 등 행사 추진을 위한 세부 협조 사항 협의
- 홍보: 시도 차원의 지역 홍보에 행사 홍보를 함께 노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축제 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사전 협조 : 축제 위원회와 사투리 한마당 행사가 연계하여 상승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협의 필요 (MOU 체결)
- 추진: 축제 기간 중 사투리한마당 행사 진행에 대한 장소 및 시간 협조
 - 사투리 한마당 행사 : 축제 기간 중 하루, 주 무대 행사장
 - 사투리 한마당 전시회 : 축제 기간 내내 진행,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는 부스

■ 2단계 : 업무 분장 구성 및 지역어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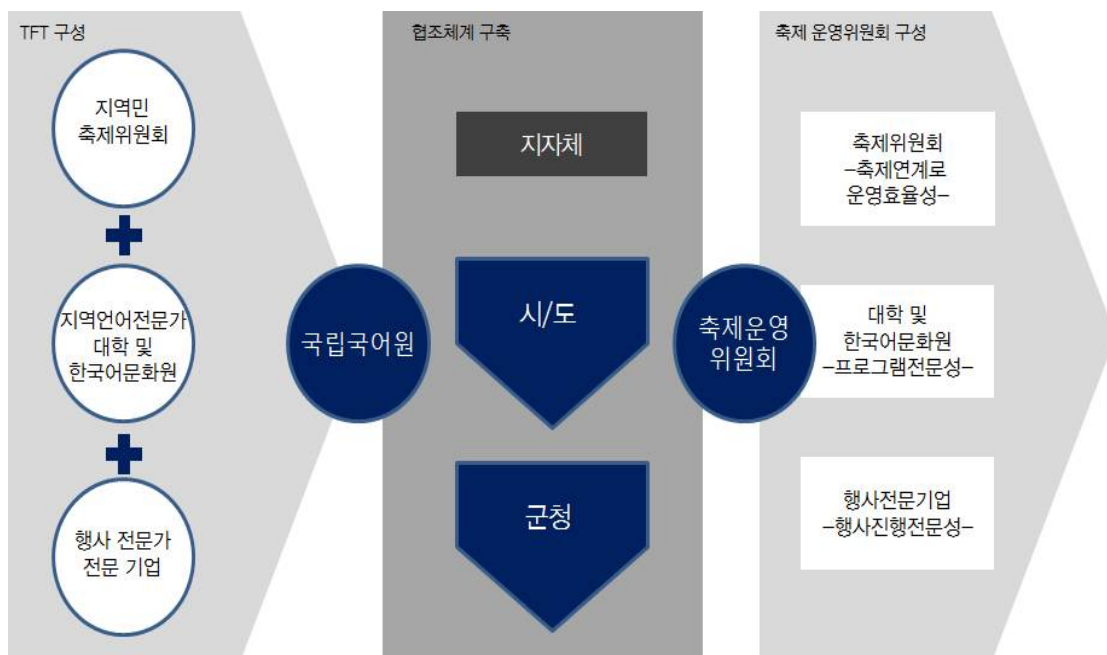
❶ 지역 축제와 연계한 지역어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지역 언어 전문가, 행사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 구성 필요

- 구성된 협력체를 통해 지역 축제와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국어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투리 한마당’ 축제 운영위원회를 구성
 - 축제위원회와의 연계로 사투리 한마당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대학 및 한국어 문화원과의 연계로 지역어 행사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
 - 기획된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행사 전문가의 협조 필요

❷ 콘텐츠의 전문성과 행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이 필요

- 콘텐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언 연구 전문기관으로 방언보존회나 지역 대학의 한국어 문화원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행사 경험이 있는 민간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행사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구성
- 조직의 구성이 되면 지역 언어문화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 분장 구성을 협의하고 각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을 구성

<그림 3-3> 지역 언어문화 수행 조직 모형



❶ 지역 언어문화 행사의 콘텐츠 구성에 가장 중요한 ‘지역 언어’, ‘지역 문화’에 대한 활성화 및 프로그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DB 구축

- 1단계: 기존의 조사되어 있는 ‘지역 언어’에 대해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한 언어를 선정
 -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찾기 > 연구보고서, 국어원 총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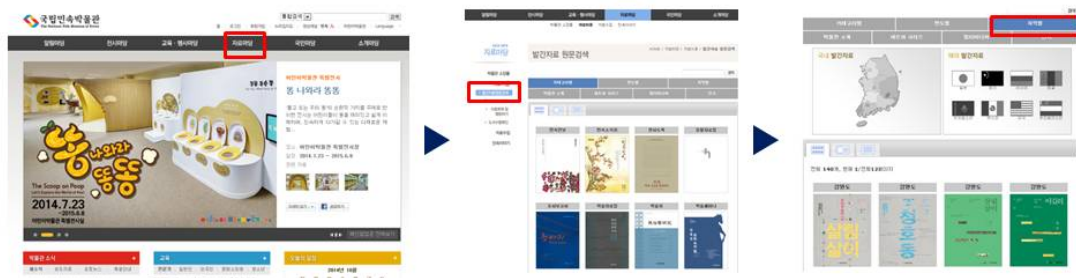
<http://www.korean.go.kr/>로 접속 → 자료실 클릭 → 연구보고서 클릭 → ‘권역별 지역어 조사 결과 보고서’ 검색창 입력



-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자료실 활용



<http://www.nfm.go.kr/>로 접속 → 자료마당 클릭 → 발간자료원문검색 → 지역별클릭



- 2단계 : 각 지역의 지역 언어에 대해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언어를 검증하고 또한, 살아있는 언어를 새롭게 조사하여 DB화

- 각 지역에 대표하는 한국어 문화원과의 협조 체계 구축 → 지역어 조사반 구성

■ 3단계 : 지역 연계 행사 및 전시 기획

● 진행 시 유의점

- 행사 진행 시 행사추진위원회는 4개월 전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축제 홍보 일정은 지역축제의 홍보 일정과 함께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

● 전시 기획

- 국립국어원의 사투리 아이디어 상품 공모전의 수상작 또는 전국의 지역 언어 관련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이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협조 요청
 -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개최하는 ‘지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지역민으로 구성된 축제위원회에게 사투리로 된 상품 패키지 등에 대한 수집이 필요하며 대학 및 한국어 문화원 관계자, 지역 방언 보존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들로부터 사투리 관련 문학 자료나 고어 자료 등에 대한 수집
- 행사 전문가는 수집된 전시품들 효과적인 전시하기 위한 디자인 및 전시품 대열에 대한 기획 진행
- 부스 이벤트 진행: 홍보지, 기념품 제작, 부스 집객을 위한 장치 마련
- 부스 운영 요원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

● 무대 행사 기획

- 무대 디자인: 지역 언어문화 행사의 대표 홍보물, 전시 부스의 디자인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체적인 무대 디자인에 대한 기획 필요

① 배경 디자인

- 배경 콘텐츠: 행사 성격과 주최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 배경의 위치: 무대 정중앙에 위치, 정중앙 설치가 가능하도록 무대 트러스가 있을 경우 현수막 등으로 정중앙에 대형 배경을 설치하나 트러스가 없을 경우는 합판이 있는 배경을 설치(디자인 후 제작 기관 약 5일 소요)

- ##### ② 현수막 디자인: 정중앙 무대 백월의 경우 개회식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행사명이 항상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보통 무대 단상 높이가 있어 단상 높이만큼 현수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무대 공간 기획: 프로그램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대 전체 크기와 행사시 활용 가능한 무대 공간에 대한 기획이 필요, 또한 행사 준비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여유 공간을 마련 (별도 공간이나 무대 뒤에 준비- 물, 거울, 수건 등은 기본으로 준비)
- 개막식 기획
 - ① 의전 계획에 따른 참석 인원 및 축하 인원을 파악하여 개막식 기획
 - ② 관람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막식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
 - ③ 무대 앞에 귀빈 좌석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개막 의식을 위해 단상 위로 이동하는 동선도 사전에 기획하여 혼란을 줄임
 - ④ 개막 의식: 배너 이탈을 이용한 제막식, 개막식 전용 테이프 절단식, 친환경 풍선 날리기, 한지 날리기 등이 있음
- 사전 리허설: 행사 시작 전 약 3~5시간 정도의 사전 리허설이 반드시 필요함
 - ① 점검 사항: 음향, 조명, 구조물 위치, 공연 참가자의 동선 등

■ 4단계 : 지역 언어문화 행사 진행 [주요 프로그램 예시]

● 알코 드래요 : 사투리 만담 공연

- 사투리의 주인인 지역민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여 타 지역 관람객들로 하여금 생생한 사투리 구연을 듣고 지역민들에게는 사투리에 대해 느끼는 억압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기획
- 개인이나 팀으로 구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사투리 만담 형식 : 만담의 형식은 노래, 연극 등 형식의 제한은 없음
- 경연대회로 진행할 경우 심사 기준 필요
 - 소재의 대중성, 청중 호응도, 자연스러움, 청중과의 교류 정도 등
- 수상자 활용 방안: (명예) 사투리 지킴이증 수여, 전국 지역어 관련 행사 초청
- 시상 및 수상: 으뜸상(30만 원),버금상(20만 원), 딸림상(10만 원), 기타(상품권)

- 절차



① 섭외

- 축제 지역 인근의 사투리보존회와 대학교(국어국문학과 또는 한국어문화원), 동사무소와 같은 지자체(축제관련 부서, 관광 및 홍보 관련 부서)의 연락을 통해 지역의 숨어있는 스타 발굴하거나 전국 사투리 경연 대회 수상자 역시 섭외 가능 (단, 사투리 만담이 공연이 아니라 경연 대회 형식을 띠는 경우 타 행사에서 수상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필요)
- 1명~2명 이상의 팀으로 약 5팀 정도 섭외
- 섭외 시 주의사항: 본인의 사업 홍보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제외하며 되도록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

② 대본 작성: 약 7분~10분미만으로 구성하되 가상의 스토리보다는 본인들의 경험담 위주로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만담뿐만 아니라 사투리로 변안한 노래나 연극도 가능함

③ 출연자 간 연결 고리 구성: 작성된 대본을 바탕으로 출연자들의 이야기 간 연결 고리를 만들어 하나의 공연 프로그램으로서 완성도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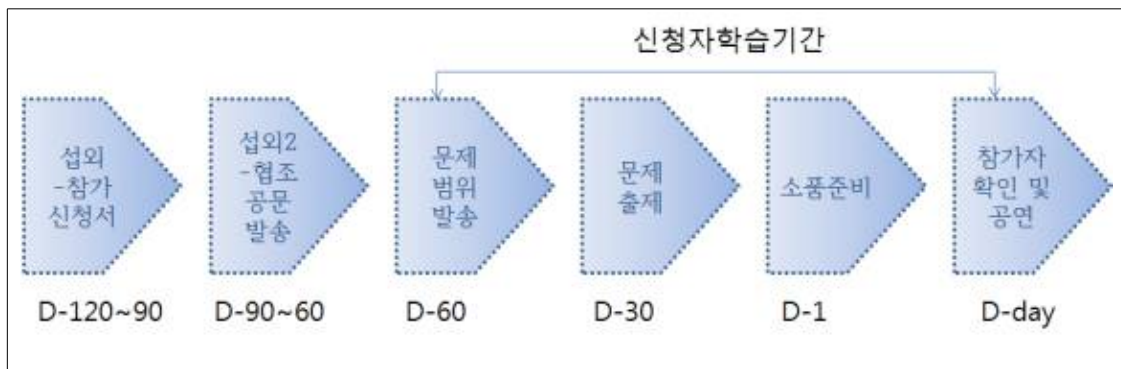
④ 소품 준비: 소품을 활용하거나 분장을 할 경우 무대 호응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대본에 맞춘 소품 준비(이야기 소재가 잘 나타날 수 있는 판넬 등을 미리 제작)

- 주의 사항: 분실의 위험이 있거나 무대 전환 시 어려움이 있는 소품은 사전에 모형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⑤ 리허설: 리허설 시 출연자들의 무대 동선(무대에 올라와서 내려가는 경로, 주 공연 위치 등) 파악이 중요하며 마이크를 사용한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실제 공연처럼 마이크를 들고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함. 사전에 만든 대본을 암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프롬프터를 활용할 수 있음

● 사투리 골든벨

- 대상: 지역 내 고등학생
- 방법: 고교생 40~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 접수(*공문 발송 등 부록 참조)
- 출제 : 200항목에 이르는 방언을 선정하여 자료를 제공한 뒤,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리 공부하게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출제함
- 주의 사항: 실제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진행의 문제를 고려하여 난이도별 다양한 문제를 준비하며, 만일을 대비하여 범위 밖의 문제를 난이도 상으로 사전 준비
- 진행: 문제 출제자, 전체 진행 사회자(인터뷰 진행), 정답 확인자나 평가단
- 상금(장학금): 상금 및 상장 수여
 - 대상(1명): 500,000원×1명=500,000원 / 지역단체장, 지역 대표 대학 총장상 등
 - 금상(2명): 300,000원×2명=600,000원 / 지역단체장, 지역 대표 대학 총장상 등
 - 은상(3명): 200,000원×3명=600,000원 / 지역단체장, 지역 대표 대학 총장상 등
 - 동상(5명): 100,000원×5명=500,000원 / 지역단체장, 지역 대표 대학 총장상 등
 - 참가상(전원, 문화상품권): 20,000원×50명=1,000,000원
- 절차



- ① 섭외 1, 2 : 각 지역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서를 협조 공문과 함께 발송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참가 접수를 받음(약 한 달 소요, 40명 내외)
- 섭외 2: 섭외 1에서 학생 신청이 마감하지 못할 경우 2차 협조 공문을 발송하며 유선 전화를 통해 행사의 취지를 전달하여 신청을 독려
 - 주의 사항: 학생들이 무대 단상위에 앉아서 진행해야하므로 무대 크기를 고려하여 참가 인원 상한선 변경

② 문제 범위 발송: 행사의 취지가 교육에 있으므로 참가자에게 문제 출제 범위를 일괄 발송하여 사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주의사항: 사투리 어형은 지역마다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출제나 판정에 시비가 적도록 문제 범위와 시행 세칙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

③ 문제 출제: 신청자들이 학습하는 동안 제공된 문제 범위 내에서 실제 출제될 문제를 선별(40명 기준으로 1시간 진행시 약 200문제)

- 문제 출제는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어 전문가 단체(사투리 보존회나 한국어 문화원)의 협조를 받음.
- 주의 사항: 문제에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역어의 경우 다양한 답이 나올 경우가 있으므로 ‘범위에 명시된 것을 답으로 한다.’라는 주의 문구를 시행 세칙에 명시

④ 준비물: 화이트보드(크기 400*600 또는 500*700), 지우개, 보드 마카(검은색), 단체 티셔츠, 모자, 번호표(단체 티셔츠, 모자에 부착), 방석

⑤ 참가자 확인 및 개최: 인근 지역의 각 고등학교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공연 하루 전에 리허설을 진행하기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고 당일 소집함.

- 학생들 개별적으로 참석을 확인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므로 지도교사나 학생 대표와의 연락을 통해 학교의 학생들 참석 인원수를 확인
- 참가자들에게 단체 티셔츠와 번호표 제공
- 주의 사항: 참가자들의 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줄 좌우로 진행 요원을 2명씩(좌측 1명, 우측 1명) 준비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어 전문가를 판정단으로 별도 구성하며 문제 출제자와 골든벨 진행자를 나눠 구성

❖ ‘전통 민속 마당’과 ‘체험 뮤지컬’의 경우, 가족 단위의 행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미 요소로 운영되기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전통 민속 마당: 지역별 전문 민속 마당극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

① 섭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팀을 섭외. 지방자치단체 지역 축제 담당 부서 및 한국어문화원, 지역 대표 대학의 민속학 전공자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음. 섭외 전 사전 관람을 통해 행사 성격과 부하하는지 점검

- 주의사항: 무언극 보다는 지역어가 도드라질 수 있는 대사가 있는 공연이

좋으며 관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동적인 공연 선별

- ② 무대 구성: 무대 위에서만 공연을 하는지, 무대 밖 활용도 필요한지 사전에 점검하며 무대를 구성하며, 음향, 조명 등에 대해 협의. 공연 전문팀의 경우 무대 세트를 직접 준비하여 오기 때문에 리허설 시 무대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줌

■ 5단계 : 지역 언어문화 행사 결과 활용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행사 주최 기관) 홍보 자료로 활용
- ① 행사 영상 제작, 사진집 . 도록 제작, 홍보지 제작 등
- 사투리 관련 상품 등 전시품 대여 및 판매
- 타 지역 언어문화 행사와의 교류 및 협력
- 지역민 등 축제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행사 진행 위원회와 전문가들이 ‘평가회’를 실시하여 모형 개선을 위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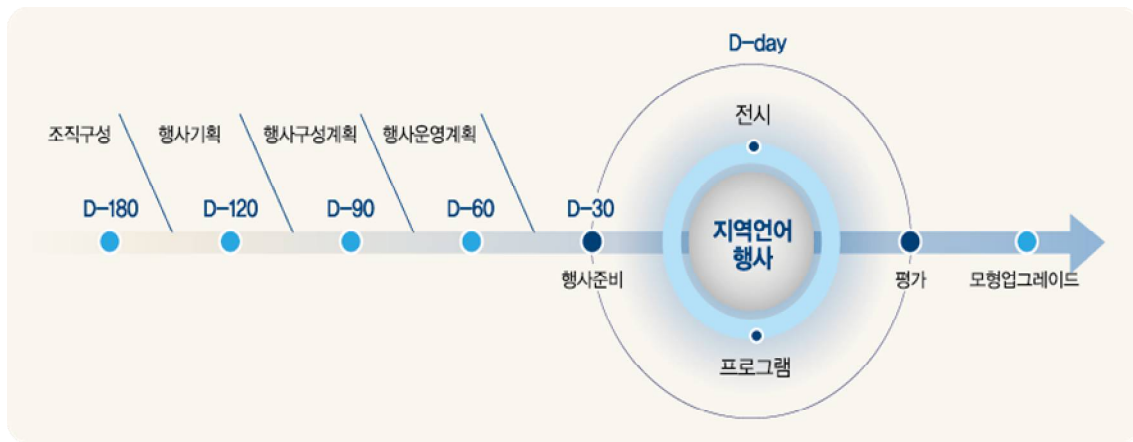
3) 추진 일정

- 조직 구성: 민·관·연 조직 체계 구성, 협조 조직 지원 체계 마련
- 행사 기획: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성 모색, 활용 가능 인프라 구축
- 행사 구성 계획: 프로그램과 전시 모델 형성
- 행사 운영 계획: 행사 운영 인력 및 행사 시나리오 개발
- 모형 업그레이드: 행사 리뷰 평가와 정책 제언을 반영한 업그레이드 모형 개발

<표 3-1> 지역 언어문화 행사 추진 일정표

구분	운영 내용	4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행사당일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기획	세부 기획서 List-up	●																			
	세부 기획서 작성	●	●																		
	행사 문건 작성			●	●																
	공연 세부 기획 작성				●	●	●														
	공연 및 부대행사 섭외					●	●	●													
	세부 시나리오 작성							●	●	●									●		
	행사 리허설																			●	
	홍보 계획안 수립	●	●																		
	홍보 매체 List-up	●	●	●	●	●	●	●	●												
	디자인 시안 확정					●	●														
	언론 매체 홍보 및 섭외	●	●	●	●	●	●			●	●				●	●		●	●	●	
	옥외광고 매체 설치																		●	●	
홍보	인쇄 매체 제작 배포									●	●	●	●	●	●	●	●	●	●	●	
	인터넷 매체 홍보			●	●	●	●	●	●	●	●	●	●	●	●	●	●	●	●	●	
제작 및 설치	무대 시안 및 제작섭외		●	●	●																
	시스템 계획 수립 및 설치			●	●	●													●	●	
	홍보물 제작														●	●	●				
	장식물 제작 및 설치																●	●	●	●	
운영	진행 상황판 제작/ 운영									●	●	●	●	●	●	●	●	●	●	●	
	운영요원 섭외, 구성										●	●	●	●	●	●	●	●	●		
	진행요원 교육													●	●	●	●	●	●		
	진행요원 배치 계획 수립																	●	●		
	최종 점검																		●	●	●

<그림 3-4> 지역 언어문화 행사 추진 일정 모형



4) 홍보 전략

● 홍보 네트워크 형성

- 기본: 구성 조직의 홍보 네트워크 활용
- 심화: 유관 기관 및 지역 언론사와 연계한 홍보의 시너지 효과 제고

<표 3-2> 지역 언어문화 행사 홍보 모형 예시

단계	구분	미디어/매체	세부 내용	
			행사 주관 업체	지역 축제 위원회 등
1단계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보도자료	· 지역 언어문화 행사 준비 상황 (온라인 채널 구축 등 진행 상황) 1차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온라인기사 노출	· 현재 축제 보유 사이트 내 보도자료 내용 게시
		블로그 및 누리집 채널 검색	· 지역자치단체나 행사 주관업체의 보유 온라인 채널: (누리집 및 누리 소통망 등)을 이용한 지역	· 지역 축제 연계를 통한 지역 언어문화 행사 전용 블로그 및 SNS(트위터 또는

			언어문화 행사 전용 온라인 채널 구축 정보 홍보 실시	페이스북) 채널 검색 후 리스트업
		홍보물 제작	· 시각적 집중 효과가 뛰어난 홍보물 개발을 통해 지역 언어문화 행사와 지역축제 연계: 지역 언어문화 축제에 대한 관심 유발	
2단계 관심 끌기	이슈화	홍보 이벤트 실시	· 행사에 대해 소개하거나 공공기관의 지역 행사 홍보용 누리집 및 SNS에 팝업, 배너 또는 이벤트 정보 게시	· OX퀴즈 또는 정답 맞추기와 온라인 이벤트 참여를 통한 자발적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한 이벤트 전략 · 랜딩 페이지 개발 및 홍보 실시
	관계자 및 대국민 홍보	SNS 바이럴 마케팅	· 개발된 홍보물을 이용한 SNS 바이럴 마케팅 실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집중 홍보 실시)	
		유관기관 홍보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홍보 - 포스터, 팝업 또는 배너 등	· 축제 준비 협찬 또는 축제 준비 관련 기관 홍보 - 포스터 또는 초청장 등
3단계 공감 형성	대국민 홍보	· 방송 미디어	· 정책 방송 또는 지역 방송국 촬영 협조 추진 · 행사관련 소개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 현장 프로그램 연계 : 지역방송 취재보도 및 중계방송 유치 등을 통한 방송 홍보
		간행물 홍보	· 공감 코리아, 지자체 소식지 등 간행물 특집기사 또는 홍보 자료 게재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간행물, 관광홍보물 등 발행물 내 홍보자료 게재 협조 추진
		지면 매체	· 지역 언어문화 축제 세부 진행 상황 2차 보도자료 배포	· 지역 신문 내 지역 언어문화축제 홍보 자료 게재 추진

부록

2014년 '마카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개최 및 운영 관련 자료

부록1. '사투리 골든벨' 참가 협조 공문

부록2. '사투리 골든벨' 개최요강

부록3. '사투리 골든벨' 시행 세칙

부록4. '사투리 골든벨' 출제 범위

부록5. '사투리 골든벨' 참가 신청서

부록6. '사투리 골든벨' 시행 문제

부록7. '마카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홍보 자료

부록8. '마카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기념품 자료

부록9. '마카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사투리 퍼즐 예시 및 홍보지

부록10. '마카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시나리오

2014년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부록1. '사투리 골든벨'참가 협조 공문

『실사구시(實事求是)』

KNU

강원대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사투리 골든벨' 행사 참가 협조 요청

1. 2014년 올해는 '강원 민속 문화의 해'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강원도 및 각 시·군)가 힘을 모아 여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국가의 어문 정책을 관장하는 국립국어원에서는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맞아, 제16회 평창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주)브랜비즈가 주관하며,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3.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로, "평창 효석 문화제와 함께하는 '사투리 골든벨' 행사"를 2014년 9월 13일 (토) 오후 2시~3시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4. '사투리 골든벨' 행사는 내 고장 말(방언)이 왜 소중한지, 또 왜 우리가 방언을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지를 몸소 깨닫도록 하는 행사로, 강원 도내 고교생들 대상으로 예상문제를 제공하고 퀴즈대회에 참가하여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5.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 귀교의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마감(연장): 2014년 9월 3일(수) 오후 1시까지

7. 경시 방법

- ① 별첨 “‘사투리 골든벨’ 출제 범위”에 들어있는 방언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② 별첨 “‘사투리 골든벨’ 시행 세칙”에 따라 경시대회를 치른다.

8. 상 품

-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9. 상금(장학금)과 상장

- 대상(1명): 500,000원 / 국립국어원장상,
- 금상(2명): 300,000원씩 / 국립국어원장상
- 은상(3명): 200,000원씩 / 국립국어원장상
- 동상(4명): 100,000원씩 / 국립국어원장상

부록3. ‘사투리 골든벨’ 시행 세칙

‘사투리 골든벨’ 시행 세칙

[1] 목적

- ① 방언을 포함한 모든 언어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고 연구해야 함을 일깨우고자 함.
- ② 모국어가 한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구이듯이, 방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구임을 일깨우고자 함.
- ③ 방언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한 표준어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財源)임을 일깨우고자 함.
- ④ 방언은 우리말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이바지를 하는 언어임을 일깨우고자 함.

[2] 개최 계기

- ① 2014년 올해는 ‘강원 민속 문화의 해’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강원도 및 각 시·군)가 힘을 모아 여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② 국가의 어문 정책을 관장하는 국립국어원에서는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맞아, 강원도에서 ‘2014년 지역 언어문화 행사’를 계획함.
- ③ 이 행사는 강원의 대표 축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 봉평에서 개최되는 ‘2014 효석문화제’와 함께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임.

[3]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은 점

- ① 학력 증진의 측면: 표준어와 방언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우리말 어휘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음.
- ② 경험 축적의 측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골든벨’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③ 애향심 고취의 측면: 내 고장의 말(방언)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역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됨.
- ④ 경제 및 스펙의 측면: 수상자들의 경우, 적지 않은 장학금을 받고 또 국립국어원장의 상을 받음으로써 좋은 스펙을 쌓는 기회가 됨.

[4] 출제 방식

별첨 “‘사투리 골든벨’ 출제 범위”에 드는 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해 나감.

① 단답형: 다양한 방식이 있음.

<보기 1> • 문제: “표준어 ‘잠자리’의 영동 방언을 적으세요.”

• 정답: ‘소금쟁이’

② 사지선다형

<보기> • 문제: “다음 중 표준어 ‘장독 뚜껑’의 강원도 방언형이 아닌 것을 가리세요.”

가. 장소래기 나. 장뚝따껑 다. 소래기 라. 장팍뚜껑

• 정답: ‘라. 장팍뚜껑’(‘장팍뚜껑’은 충남 방언임.)

③ 완성형

<보기 > • 문제: “다음 ()를 채우세요. 코스모스와 함께 가을을 연상하는 어휘로 유형한 곤충가을을 대표하는 곤충류로 ‘멤멤멤멤 고추○○○’란 동요도 있는 이 곤충의 이름을 강원도에서는 ()라고 한다.”

• 정답: ‘잠자리, 소금쟁이’ 등 여러 방언형 가운데 하나만 적으면 정답으로 인정함.

④ ‘동가’형

<보기> • 문제: “‘장뚝 뚜껑’의 방언형으로 ‘소래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방언이 강원 방언이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표(○)를, 틀리다고 생각하면 가위표(×)를 하세요.”

• 정답: ×

[5] 지도 관련 유의 사항

① ‘사투리 골든벨’ 출제 범위로 제시될 어휘들은, 표준어에 대응하는 것으로 적어 놓은 방언이 강원도 전 지역의 방언을 모두 제시한 것은 아님. 중요한 방언들을 적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보다 더 많은 방언이 있을 수 있음.

② 강원도 방언 표기 방법은 쉽지 않지만, “‘사투리 골든벨’ 출제 범위”에 있는 표기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같은 내용을 형태적으로 적으나, 음소적으로 적으나, 그 범위에 들면 정답으로 처리함. <보기>

부록4. ‘사투리 골든벨’ 출제 범위

‘사투리 골든벨’ 출제 범위

*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 범위 내에서 출제되며, 일부 변별력 문제는 출제 범위 외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영역	표준어	사투리(방언, 지역어)	비고
기 상	가랑비	보슬비, 실비, 이슬비	
	고드름	고더름, 고도름, 고두름, 고두르, 곤드래미	
	번개	번개뿔, 번쩍불, 병개, 병게	
	소나기	쏘낙비, 쏘나기, 쏘내기	
	겨울	겨을, 겨우레, 저을	
	우박	누리, 느리, 유리	
지 리	개울	개굴, 개굴창, 개탕, 갯굴	이 방언은 주로 이천 지역에서 사용됨. 이천은 북한지역. 철원일부지역에서도 사용.
	구덩이	구데이, 웅데이,	
	구멍	구녕, 구머히, 구메히, 구영	
	두둑	논뚜렁, 둔덩, 뚜덕, 뚜렁, 뚝, 성뚝, 언덕, 제방	
	들	뜰판, 버덩	
	마당	뜨락, 뜰, 마대히, 마대히, 타작	
	저수지	포광	
	마을	고을, 동니, 메실, 마을	
	모래	모새, 몰개, 몽개	
	모퉁이	귀투이, 모태이, 모투이, 모투히, 버통히, 모소리, 구텡이	
	무덤	매, 메, 모이, 무덤, 산소	
	바위	방구, 바우, 바이	
	우물	운굴, 운물, 옷물	
	웅덩이	덤병, 듸병, 방죽	

	낭떠러지	어낭, 뺑창	
	자갈	자각돌, 재악돌, 잿돌, 짝	
	티끌	티, 티갑지, 티겹지	
시 간	가을	갈, 가슬, 가실, 가을, 가울	
	겨울	겨우레, 겨으레, 겨을, 동삼, 동지, 저실, 저을, 겨레	저실은 평강(북한) 말
	아침	식전, 아츰	
	올해	오래, 어래, 금년, 올개, 올게	
	이제	금시, 방금, 시방, 인제, 지금	
	저녁	제녁, 지낙, 저녁	
친 족	계집	지집	
	계집아이	가시나, 가시내, 계지바이, 기지배, 에미나, 지지바,	
	며느리	며늘아기, 미나리, 미누리, 새아가	
	할머니	할마이, 할망구, 할매, 할머히, 할무니	
	할아버지	하라바히, 하라보히, 할배, 할부지	
신 체	겨드랑이	겨드라히, 겨드래이, 겨드랭	
	그림자	거름자, 그림자	
	눈곱	눈꼽지	
	눈꺼풀	눈가죽, 눈거풀, 눈겹줄	
	눈두덩	눈더이, 눈에, 눈두덕, 눈뚜경, 눈뚜덩히	
	눈망울	눈방굴	
	다리	달구막지, 달구리	
	목	매가지, 모가지	
	무릎	고벙이, 무릅, 무루팍, 무꾸베이, 무꾸방, 무르파기,	
	배꼽	배꾸머, 배꾸멍	
	복사뼈	복상뼈, 복상씨	
	뼈	빼, 빼, 빼대, 뼈다구, 백다구, 백따구, 뺏대	
	집게손가락	지께가락	
	가운데손가락	장가락	
	약손가락	명지가락	
	새끼손가락	애기손가락	
	손바닥	손빼당, 소빠닥, 손빠닥	
	입	아가리, 아갈통, 아구통, 입주둥이, 조데이, 주데히, 주두아리	

	허파	버패, 부애, 허패, 패	
	궁둥이	궁두이, 등데히, 등텅이	
	구레나룻	귀레날구	
	정수리	장배기	
	수염	시염, 쉬염, 씬	
	입덧	입또둑	
	걸음마	걸음발	
	아장아장	아차아차	
	혀	서바닥, 세빠닥, 셋바딱, 헤,	
가 옥	꿀뜩	꿀뿔, 연기통, 꿀뜩	
	기스락	기스리, 처마, 초마, 추녀, 즈마, 찰	
	마루	마룻, 마룻	
	변소	뒷간, 뺨소, 찻간, 정라, 정랑, 통새	
	시렁	살강, 선반, 설공, 섬반, 찬짱	
음 식	가루	가르, 갈기, 갈루, 갈구	
	간장	장물	
	겨	게, 깨, 등게, 등계, 재, 제	
	고기	괴기	
	김치	짐치, 찐지	
	깍두기	깍데기, 깍두기	
	막걸리	대포, 말걸리	
	만두	만투, 맨두	
	메밀	메밀, 미밀	
	메주	미주	
	반찬	간, 찬	
	소주	깡소주, 마어더기, 쇠주, 쏘주	
	수제비	붕그레이, 손국수, 수제비국, 뜨덕국	
	감자	가지감자	
	옥수수	가내히, 강내이, 옥데기, 옥시기, 옥식기	
	무말랭이	우거리	
	흰떡	왕모래미, 백실기, 절편	
	송냥	밥송냥, 송님, 송녕	
	씨래기	싸래기, 쓰래기, 경추	
	수수	쉬끼	
	찰수수	차쉬끼	

	붉은색 수수	소쉬끼	
	고추	꼬추	
	튀밥	광밥, 강밥, 강냉이	
	달래	달롱	
	식혜	감주	
	고명	피미	
	멸치	이르꾸(작은 멸치), 메르치(큰 멸치)	
	새알심	새알, 웅심이	
	참외	물외, 애, 차외, 차무, 차이	
식 기	단지	독, 도이, 물또이, 물통, 웅가지, 웅패기, 장뚝, 푼추	
	뚝배기	투가리, 뚜가리	
	숟가락	수까루, 술, 숙칼, 쏫칼	
	아궁이	아궁지, 벽아궁지, 부강지	
	떡동구미	봉새이	짚으로 등글고 울 이 깊게 걸어 만든 그릇
질 병	다래끼	눈사바리, 눈뽕, 다리끼, 따라끼, 눈사바리, 눈아리, 테리끼	
	두드러기	두드래기, 두두러기, 두드레리	
	딸꾹질	칼데기, 깔떼기	
	학질 (말라리아)	마라리아, 초학, 하루거리, 초심	
	말더듬이	버어리, 더듬발히, 반병어리	
	언청이	해청이, 해채이, 재보	
	절름발이	절뚝바리, 절룩배이, 절국바리	
	사팔뜨기	먼산배기	
	홍역	홍진	
기구	가위	가새, 까새, 까히, 깎게	
	거울	민경, 밍경, 셋경, 섹경, 섹경, 식경	
	광주리	강지리, 과우리, 떡광주리	
	뚜껑	따경, 딱경, 뚜께이, 뚝경	
	바구니	다래기, 다래끼, 바꿈치, 삼태기, 소구리, 소쿠리	
	쟁기	보구래	

	성냥	다황, 당황	
	새총	느르배기, 느르베기	
	요강	타구	
	절구	발까이, 질구통	
	주머니	개항, 쌈지, 주매히	
	담뱃대	공바옴, 담뱃대, 빨뿌리	
	바람개비	팔랑개비	
	목침	몽침이	
	다리미	대레비	
	작은 막대	메뛰기	놀이 ‘자치기’ 용어
	긴 막대	자	
	담장	달구집, 해, 달거장, 달거지	
	길마	지르매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안장.
	구유	구영, 굽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미끼	꼬내	
	얼레	자새	
	지팡이	지패이	
화과	꽃봉오리	꽃바우리	
	복숭아	복상, 복쌍, 복수아	
	사과	능금	
	오디	오동	
	버섯	버섯	
	철쭉꽃	함박꽃, 개꽃	
	냉이	나생이	
	민들레	씨갱이	
	오이	무뢰, 물외, 외	
기타	구두쇠	먹통	
	잠방이	공방주우	
	목침	몽침이	
	고수레	꼬시네, 고시네, 고씨네	

	피라미	참피리	
	방아깨비	방개비	
	메뚜기	밀뛰기	
	망아지	팜아지	
	전부	오부탱이	
	그을리다	끄신다, 끄실린다	
	허수아비	허재비	
	수수깡	쉬시때공	
	버릇	질거지	
	목말	동고리, 무등	
	수탉	장탉	
	실수하다	재간친다, 저지레친다	

표현	방언	의미
	개걸스립다	밥을 먹는 모습이 천하게 먹거나 천하게 보이며 먹는 모습.
	메밀밥	밤송이에 밤알이 네 개 들어 있는 밤송이.
	미실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
	대롭다	생감 같은 뚝은 과일을 먹고 속이 거북할 때 쓰는 말
	봉개	잔치나 제사를 끝내고 참여자에게 나눠주는 몫
	부생이치다	바빠서 안절부절 못 하다.
	잔질구다	밥을 먹고 난 후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잠시 쉰다
	첸신편다	버릇없이 까불며 아양을 떤다
	홀멩이치다	허기가 저서 눈치를 보지 않고 가리지 않고 먹는다.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2014 ‘ ’ 참가 신청서

연 번	학 년	이 름	성 별	생년월일	대표 학생 지정
1					
2					
3					

2014년 일 일

지도교사 _____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부록6. ‘사투리 골든벨’ 시행 문제

사투리 골든벨 문제

- 2014년 ‘사투리 골든벨’의 문제는 국립국어원의 방언 관련 연구 공개 자료와 기타 방언 연구 서적을 바탕으로 출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모든 지역의 모든 사투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방언’ 지역 방언을 의미합니다. 계층에 따른 사회 방언¹⁾이나 개인어²⁾는 본 문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이도 선정 기준.

上: 문제 출제 범위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투리만 들었을 때 표준어를 연상하기 힘들어 정답을 유추하기 어려운 수준. 사투리뿐만 아니라 사투리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질문 포함. 난이도 상의 경우 복수 정답의 인정 여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이 명확한 것만 제시하였음.

中: 표준어와 사투리의 차이가 심한 경우. 문제의 답이 출제 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 안의 예시가 출제 범위에 없는 단어라든지, 답을 요구하는 방식이 까다로운 경우. 출제 범위의 사투리만 외워서는 쉽게 맞추기 힘든 수준.

下: 표준어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이며 사투리 역시 표준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 문제 출제 범위에 질문과 답의 예시가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출제 범위의 사투리만 외운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수준.

1) 직업, 성별 등의 이유로 생겨나는 방언. 같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개인어는 한 개인이 일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특정한 언어를 의미한다. 개인어는 방언과 같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선 지역의 어느 한 노인만이 강아지를 ‘개애지’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 노인의 개인어일 뿐이지 이를 정선 지역의 방언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개념이다.

문제: 효석문화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투리 골든벨. 사투리에 대한 관심과 나아가 우리말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학생들이 골든벨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사투리 즉, 방언 중에는 서울 방언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O.

강원도 방언,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이 있듯이 서울 방언 역시 있습니다. 서울 방언의 가장 큰 특징은 ‘ㄴ’과 ‘ㄷ’의 교체인데 ‘삼촌’을 ‘삼춘’이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그러고’를 ‘그리구, 그러구’로 발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강원도 각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이지요? 여러분이 강원도 각 지역을 대표해서 사투리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강원도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외에도 북한의 지역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북한의 강원도는 총 2개의 시와 몇 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부활 학생 수에 따라서 보기를 3~4개로 조정하여 출제.)

① 8개 ② 12개 ③ 15개 ④ 18개

정답: ③15개.

문천시와 원산시가 있고, 군으로는 천내군, 법동군, 판교군, 이천군, 철원군, 평강군, 세포군, 고산군, 안변군, 통천군, 회양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으로 총 15개의 군이 있다.

문제: 여러분은 지금 제16회 평창 효석문화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효석문화제는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선생님을 기념하는 행사이지요. 효석문화제를 흠뻑 즐겼다면 쉽게 맞출 수 있을텐데요, 이효석 작가가 평창에서 태어난 해는 몇 년도일까요? (주관식 or 객관식으로 질문)

① 1907년 ② 1910년 ③ 1913년 ④ 1920년

정답: ①1907년도.

<난이도 上>

문제: 지역의 사투리를 조사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방언 지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방언 지도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말을 쓰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지요. 방언을 조사하는 조사자들은 방언 지도를 만들기 위해 우선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방언 조사를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원도의 행정구역은 시와 군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렇다면, 강원도는 몇 개의 시와 몇 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서의 강원도 범위는 남한에만 한정함을 밝힘.)

(힌트 제공 여부: 강원도는 총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답: 7개 시(원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태백)

11개 군 (홍천, 철원, 횡성, 평창, 정선, 영월, 인제, 고성, 양양, 화천, 양구)

문제: 모든 사투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투리들은 일정한 규칙을 띄어 국어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꺾기로, 두드러기를 두드레기로, 아기를 애기로 말하는 경우는 어떠한 음운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답: 움라우트 현상 또는 ‘ㅣ’모음 역행동화[이모음 역행동화]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 강원도의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은 말 그대로 어느 령(嶺)의 서쪽과 동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령의 구분으로 사투리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령(嶺)은 무엇일까요?

정답: 대관령.

문제: 강원도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의 강원도 역시 사투리가 있는데요, 강원도 이천(북한) 지역에서는 ‘개울’을 ‘개굴, 개굴창, 개탕, 갱굴’ 등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남한의 강원도에서도 개울을 이처럼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정답: 철원

문제: 강원도 삼척에는 ‘택스갈’이라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사람 몸의 일부이며 북한에서는 ‘당내기’, ‘탕네이’로 불리기도 하는 이것의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제주도에서는 ‘아구탁’이라고 합니다.)

정답: 턱

문제: 친족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강원도 삼척 지역의 사투리로 ‘다선어멍히’(다선어멍히)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원도 외 다른 지역에서는 ‘다수너매, 다시애미’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다선어멍히’의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계모 혹은 새엄마, 새어머니

문제: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인들은 많은데요, 그중에 박경리 선생님을 빼 놓을 수 없죠. 다음 대사는 박경리 ‘토지’의 한 구절입니다.

"배고파 죽은 혼신아! 손님에 죽은 혼신아! 임병에 죽은 혼신아! 괴정에 죽은 혼신아! 칼맞아 죽은 혼신아! 목매어 죽은 혼신아! 가다오다 죽은 혼신아!"

박경리의 토지는 비록 강원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대사 속의 ‘손님’은 강원도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무서운 질병을 직접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사 속 ‘손님’이 의미하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정답: 천연두 혹은 마마

문제: 개울가나 연못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인데요, 긴 발로 물위에 떠있는 것이 특징인 이 곤충의 이름은 ‘소금쟁이’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지역에서는 소금쟁이가 다른 곤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원도 사투리로 ‘소금쟁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잠자리

문제: 사람의 장기 중 하나로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열’이라고 하는 이 장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영월 지역에서는 ‘쓰레’라고 하기도 합니다.) ← 학생 수에 맞춰 힌트 제공 여부 결정.

정답: 쓸개

문제: 다음은 어느 강릉 사람이 지은 시의 한 구절입니다.

(출처: <http://blog.daum.net/llhke/396>)

정지 밖 낭구가리에 소낭그 쌩다리 한 아름 안어다,
발루 찌저 밧아 뿐질귀서 버강지더 넣고

강릉 지역 사투리의 맛이 느껴지는 시네요. 여기서 문제, 위 시 구절에 나온 ‘정지, 버강지’를 표준어로 옮겨 적어주세요.

정답: 정지 → 부역, 버강지 → 아궁이

부역 바깥 나뭇가리(떨감을 쌓은 더미)에 소나무 마른가지 한 아름 안
아다가

발로 눌러 밧아 부러뜨려서 아궁이에 넣고

*채점 요목: 정지→부역, 쌩다리→마른가지 혹은 장작, 떨감, 버강지→아궁이

문제: 사투리를 보존해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의 사투리를 통해서 우리말의 옛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지역과 북한 지역에서 쓰는 떡의 사투리인 이 말은 ‘떡’이라는 단어의 옛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떡’은 옛날에는 ‘씩’으로 표기했는데요, ‘씩’의 모습을 현재에도 찾아볼 수 있는 이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칠판, 전광판 등의 수단으로 사회자 및 진행 요원이 ‘씩’을 적어 보여줌.)

정답: 시더구, 시더기, 시덕

문제: 봄철에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고루 비틀어 뽑은 껍질이나 짤막한 밀짚 토막 따위로 만든 피리를 강릉 지역에서는 주레, 삼척 지역에서는 회뜨기라고 합니다. 주레와 회뜨기에 해당하는 표준어를 표기법에 맞게 적어주세요.

정답: 호드기

문제: 표준어와 사투리 즉 방언은 서로 대비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투리를 사전에서 찾아봐도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표준어와 사투리를 명확하게 구분짓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강냉이’는 옥수수라는 의미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세요.

정답: O.

강냉이는 ‘옥수수’라는 의미와 ‘옥수수를 튀긴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표준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투리였던 것이 세력을 확장하여 표준어로 인정된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문제: 할아버니 할머니에게 사투리를 조사하다보면 그 지역의 옛날 말이라기 보다는 일본어의 잔재를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단어일수록 일본어의 잔재도 자주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면 젓가락을 ‘와리바시’라고 하기도 하지요. 물론 일본어의 잔재는 순화해서 써야하겠지만 어르신들 다수가 쓴다는 점에서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도 전지역에서 사용되며 쟁반과 접시의 일본식인 이 단어를 써주세요.

정답: 쟁반-오봉(おぼん)/ 접사-사라(さら)

문제: 강원도 춘천 지역의 사투리이면서 심마니들의 은어 ‘오림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림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힌트) 표준어로 ‘오림대’는 ‘나무를 가늘고 길게 켜 막대기’를 뜻합니다.

정답: 젓가락

문제: 귀밀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을 강원도 사투리로 ‘귀레날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원도 사투리 ‘귀레날구’의 표준어를 정확한 표기로 써주세요.

정답: 구레나룻

문제: 강원도 삼척 지역은 강원도 내에서도 사투리가 발달한 지역에 속합니다. 삼척 지역에서 ‘그네’의 사투리는 조금 독특합니다. 이 사투리는 강원도의 어느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도시이름과 같은 삼척 지역에서의 ‘그네’ 사투리, 적어주세요.

정답) 춘천.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그네’를 ‘춘천’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난이도 中>

문제: 강원도 사투리를 구분할 때 크게 ○○지역과 ○○지역으로 나눕니다. 간혹 여기에 영북지역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사투리뿐만 아니라 날씨, 문화 등등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 지역은 어디와 어디일까요?

정답) 영서지역, 영동지역

문제: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이라는 동요가 있지요. 고드름은 강원도 강릉, 삼척 지역에서는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다면, 고드름의 강릉, 삼척 지역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곤드래미 (고더름, 고도름, 고두름, 고두르 정답 인정)

표준어 ‘고드름’으로 쓴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제: 속눈썹의 뿌리에 굳이 들어가 눈시울이 발갛게 붓고 굽아서 생기는 작은 부스럼인 이 질병은 사투리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하게 불리기 때문에 오히려 표준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가 힘든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보기 중 이 질병의 표준어를 골라주세요.

①다락지 ②데리끼 ③다래끼 ④다리끼

정답: ③다래끼

다락지, 데리끼, 다리끼 등은 모두 표준어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눈사바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 입술갈림증이 있어서 윗입술이 세로로 찢어진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말로 ‘언청이’가 있습니다. 언청이는 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다음 보기 중 강원도에서 언청이를 이르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엄니쟁이 ②해청이 ③해채이 ④째보

정답: ①엄니쟁이. 엄니쟁이는 경상남도 남해 지역의 사투리입니다.

문제: 짚으로 둥글고 울이 깊게 결어 만든 그릇. 주로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담는 데에 쓰이는 이것의 이름은 ‘떡둥구미’입니다. 떡둥구미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봉새이

문제: 사람의 손에는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의 강원도 사투리를 각각 적어주세요.

정답: 집게손가락-지깨가락/ 가운데손가락-장가락/ 약손가락-명지가락

문제: 강원도 지역에서는 ‘물외’라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이 ‘물외’라는 사투리는 지역마다 쓰임이 조금 다른데요, 그렇다면 영월, 정선 지역에서 쓰는 ‘물외’와 삼척 지역에서 쓰는 ‘물외’는 표준어로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답: 영월, 정선- 참외/ 삼척-오이

(복수 정답 검토. 가령, 삼척 학생 “우리는 참외를 물외라고 한다.”)

문제: 낚시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강원도 사투리로 ‘꼬내’와 ‘자새’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꼬내-미끼/ 자새-얼레

문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거울을 많이 봅니다. 세수를 할 때, 화장을 할 때, 옷을 입을 때 등등 우리와 가장 가까운 물건 중 하나인데요, 거울의 사투리를 들으면 ‘이게 거울과 무슨 상관이지?’라고 할만큼 ‘거울’이라는 단어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지역에서 ‘거울’을 부르는 사투리는 무엇인지 여러개 중에 하나만 써주세요.

정답: 민경, 밍경, 셋경, 섹경, 섹경, 식경

문제: 다음 대사의 ‘이르꾸’가 무엇을 뜻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 이르꾸를 달달 볶다가 마늘도 넣고, 간장, 설탕으로 간을 해 주면 맛있지.’

정답: 멸치(작은 멸치)

이르꾸는 사투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일본식 표현이라는 것을 알림.

문제: 제주도 말로는 굴래파이, 경상북도 말로는 아굼지, 강원도 말로는 조데이 등등으로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입

문제: 흰떡의 강원도 사투리이면서 심마니들 사이에서는 쌀 혹은 쌀밥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로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쓰이는 이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왕모래미

문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은 있다.’ ○○에 들어갈 단어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구녕, 구머히, 구메히(구메히), 구영

표준어 ‘구멍’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제: O, X로 답해주세요. 강원도 사투리로 ‘무덤’은 ‘메땡’이라고 한다.

정답: X.

메땡은 전라남도 사투리.

문제: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버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버덩’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정답: 들(野)

문제: 낙엽이 지는 가을이 있지요. ‘가을’은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투리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가을의 강원도 사투리는 ‘갈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X.

‘갈랄’은 충청북도 사투리이며 강원도 지역에서는 가슬, 가실, 가을, 가을 등이 있습니다.

문제: 전날 라면을 먹고 자면 눈두덩이 퉁퉁 붓지요? 이 눈두덩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사투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강원도 지역의 사투리를 골라주세요.

①눈띠 ②눈뚜덩히 ③눈드불 ④눈뜨부리

정답: ②눈뚜덩히.

눈띠, 눈뜨부리는 경상북도, 눈드불은 경상남도 사투리입니다.

문제: 박수를 칠 때는 양 손바닥을 쳐서 소리를 내지요. 이 손바닥의 사투리 역시 있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서 강원도 사투리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①손빠당 ②소빠닥 ③손빠닥 ④솜뿌닥

정답: ④솜뿌닥.

솜뿌닥은 전라남도 사투리입니다.

문제: 사투리를 보다 보면 표준어를 떠올리기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투리는 주로 영동지역에서 ‘소디끼’ 등으로 쓰이는데요, ‘소디끼’의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누릉지.

‘솔+이끼’로 이루어진 사투리입니다.

문제: 사람의 장기 중 하나인 ‘허파’는 방언으로만 보면 그 표준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허파의 강원도 사투리를 골라주세요.

①배나 ②버패 ③보걸 ④섭세비

정답: ②버패.

배나는 전라남도, 보걸은 경상남도, 섭세비는 북한 함경도에서 쓰이는 사투리입니다.

문제: ‘굴뚝’의 강원도 사투리는 ‘내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X.

내뚝은 제주도 사투리이다.

문제: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을 표준어로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의 강원도 사투리는 ‘마룽, 마룽’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간청’ 역시 강원도 사투리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X.

어간청은 경상남도 사투리입니다.

문제: 변소, 즉 지금의 화장실은 많은 사투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강원도 역시 ‘변소’의 사투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보기 중 ‘변소’의 강원도 사투리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①젯간 ②측실 ③정랑 ④통새

정답:②측실.

측실은 함경남도 사투리입니다.

문제: 집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는 곳을 ‘부엌’이라고 합니다. 부엌에도 여러 가지 사투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구지’는 부엌의 사투리가 맞다.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X.

부엌의 강원도 사투리는 ‘정지’ 혹은 ‘정재’입니다. 정구지는 ‘부추’의 사투리입니다.

참고로 정구지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쓰지 않고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문제: 강원도 사투리 ‘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상추

문제: 강원도 사투리 ‘엉구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엄살

문제: 강원도 사투리 ‘지벌나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요란스럽다

문제: 다음은 강원도 음식 ‘뜨덕국’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밀가루와 바지락 혹은 감자가 주재료이고 애호박과 대파 등등을 넣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주식처럼 자주 먹기도 했는데요, 강원도의 ‘뜨덕국’은 표준어로는 무엇일까요?

정답: 수제비

문제: 성냥을 이르던 옛말 중에는 ‘당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황이라는 말보다 성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실, 성냥 자체가 많이 안 쓰기는 하지만요. 강원도 강릉과 삼척 지방에서는 자음이 탈락하여 형성된 사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황’(성냥)의 강릉, 삼척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다황

문제: 이 말은 ‘요강’의 사투리로 본래는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을 뜻합니다. 강원도 영원 지역에서는 ‘요강’과 구분하지 않고 말하며 이 외에 경상북도 대구, 충청도 충주, 서천 등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강’의 사투리이자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타구

문제: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하며 ‘주머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담배, 돈, 부시 따위를 싸서 가지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조그만 주머니를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핸드백, 지갑 등을 제조하는 국산 상표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쌈지

문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 중 하나는 바로 닭입니다. 예전부터 가축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닭에 관한 어휘도 많고 사투리도 많은데요, 다음 중 ‘닭장’을 뜻하는 사투리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①달구집 ②당메 ③달거장 ④훼

정답: ② 당메. (당메는 ‘닭의 모이’라는 뜻의 사투리입니다.)

문제: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는 잡곡 중 하나인 ‘수수’를 ‘쉬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수수의 한 종류의 찰수수와 붉은색 수수는 각각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 찰수수-차쉬끼, 붉은색 수수-소쉬끼

문제: 강원도 인제를 배경으로 한 한수산의 소설 ‘유민’ 중 한 구절입니다.

[안방으로 돌아오자 진명이 밥알이 곱게 뜬 ○○를 팔각 상에 받쳐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에 들어갈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혜’를 뜻합니다. 달달한 맛이 일품인 식혜의 ○○에 들어갈 강원도 지역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감주(甘酒)

문제: 동짓날에는 팔죽을 먹는데요, 팔죽에는 찹쌀가루나 수수 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만든 것을 집어넣죠. 쫄쫄하게 하기도 하고 팔죽과도 잘 어울리는 이것을 강원도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표준어로 쓴 경우 정답이 아님을 명시.)

정답: 새알, 웅심이.

(표준어는 ‘새알심’입니다.)

문제: 우리나라 의복 중에서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홑바지를 ‘잠방이’라고 합니다. 이 잠방이는 정선 지역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잠방이의 정선 사투리를 적어 주세요.

정답: 곰방주우

문제: 민속놀이 중의 하나로, 아이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짧은 막대를 띄워 긴 막대로 쳐, 멀리 날린 사람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자치기’라고 하지요. 여기서 문제, 자치기 놀이에 사용되는 짧은 막대와 긴 막대의 강원도 사투리를 각각 적어주세요.

정답: 짧은 막대-메뛰기/ 긴 막대-자

문제: 민간 신앙에서,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 ‘고수레, 고수레’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이 ‘고수레, 고수레’를 강원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소리 낼까요?

정답: 꼬시네, 고시네, 고씨네

문제: 강원도 사투리로 밀뛰기는 방아깨비의 사투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X.

밀뛰기는 메뛰기의 사투리입니다.

문제: 강릉 지역에서 ‘재간치지 마라.’라고 할 때, ‘재간치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정답: 실수하다.

문제: 삼척 지역에서 ‘저지레치지 마라.’라고 할 때, ‘저지레치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정답: 실수하다

문제: 다음은 표준어에 없는 사투리 표현입니다. 사투리 ‘메밀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답: 밤알이 네 개 들어 있는 밤송이

문제: 다음은 표준어에 없는 사투리 표현입니다. 사투리 ‘미실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답: 조금 모자라는 사람.

문제: 다음은 표준어에 없는 사투리 표현입니다. 사투리 ‘부생이치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답: 바빠서 안절부절 못 한다.

문제: 다음은 표준어에 없는 사투리 표현입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일을 하기 전 잠시 쉬는 것을 사투리로 흘멩이치다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X.

‘잔질구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제: 다음은 표준어에 없는 사투리 표현입니다. 사투리 ‘채신편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답: 버릇없이 까불며 아양을 떠다.

문제: 다음은 표준어에 없는 사투리 표현입니다. 밥을 먹는 모습이 천하거나 우악스러운 모습을 ‘잔질구다.’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X.

‘개걸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제: 다음은 표준어에 없는 사투리 표현입니다. 허기가 저서 눈치를 보지 않고 아무거나 먹는 모양을 뜻하는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흘멩이치다.

<난이도 下>

문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강원도 평창, 횡성, 정선, 삼척 등에서는 ‘가랑비’를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보기 중 ‘가랑비’의 강원도 사투리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 ① 보슬비 ② 여우비 ③ 실비 ④ 이슬비

정답) ② 여우비 (여우비는 별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를 뜻하는 표준어입니다.)

보슬비, 실비, 이슬비 모두 표준어로 있지만 ‘가랑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 지금은 솜으로 만들고, 솜보다 더 좋은 소재로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전에는 나무로 만든 목침을 베고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목침의 사투리는 어감이 참 귀여운데요, 목침의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몽침이

문제: 다리미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대레비

문제: 구두쇠를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남의 것만 얻어 먹고 자기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먹통

문제: 된장국에 시래기를 넣어서 끓이면 맛이 아주 깊고 시원하지요. 이 시래기를 부르는 사투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추’는 시래기의 사투리가 맞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O.

시래기의 사투리는 건추 외에도 찌리기,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문제: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지팡이’의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지패이

문제: 강원도 삼척 지역의 사투리로 ‘절구’를 의미하는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발까이, 질구통

문제: 찌개를 끓이거나 설령탕 등을 담는 그릇을 독배기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강원도 사투리로 독배기는 ‘투가리’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O.

투가리 혹은 뚜가리라고 합니다.

문제: 학질 즉 말라리아의 다른 말로 강원도 평창 지역 외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보통 학질을 이렇게 말하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처음 앓는 학질, 하루씩 걸려서 앓는 학질이라는 의미 인데요. 학질을 뜻하는 평창 지역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하루거리

문제: 강원도 사투리 ‘포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저수지

문제: 강원도 강릉 사투리 ‘오부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전부, 모두

문제: 비가 올 때 하늘이 번쩍하며 번개가 치죠. 번개 역시 다양한 강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번개의 강원도 사투리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 ① 번개 ②번쩍불 ③편개 ④번개뿔

정답) ③편개.

편개는 제주지역의 사투리입니다.

문제: 다음 중 ‘가워’의 강원도 사투리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가새 ②가워 ③까새 ④깍께

정답: ②가워.

가워는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의 사투리입니다.

문제: 소나기의 강원도 사투리 중 하나를 써주세요. (표준어인 소나기는 오답으로 처리.)

정답: 복수정답. 쏘낙비, 쏘나기, 쏘내기

문제: 다음 중 겨울의 강원도 사투리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겨우레 ②겨을 ③저을 ④시아내

정답) ④시아내.

시아내는 부산 지역의 사투리입니다.

문제: 다음 중 ‘구덩이’의 강원도 사투리를 고르세요.

- ①구데이 ②둠병 ③구시 ④굼티기

정답: ①구데이.

둠병은 순천, 구시는 경상남도 남해, 굼티기는 충청도 사투리.

문제: 다음 중 ‘마을’의 강원도 사투리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①동니 ②고을 ③메실 ④모슬

정답: ④모슬.

모슬은 전라남도 강진 지역 사투리

문제: 강원도 사투리 ‘모새, 물개, 몽개’는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정답: 모래

문제: 모퉁이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으세요.

정답: 귀투이, 모태이, 모투이, 모투히(모투이), 버퉁히(버퉁이), 모소리, 구텡이

문제: 물을 길기 위하여 땅을 파서 지하수를 괴게 한 곳이나 그런 시설을 표준어로 ‘우물’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물’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윤굴, 윤물, 웃물

문제: 음식을 만들 때 밀가루, 고춧가루 등등 가루를 참 많이 쓰죠? 다음 중 가루의 강원도 사투리를 골라주세요.

①갈 ②갈루 ③몽가리 ④그를

정답: ②갈루.

갈은 경상도, 전라도 전지역에서 쓰이고 몽가리는 전라남도, 그를은 제주지역에서 쓰입니다.

문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이기도 한 ‘장물’의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간장

문제: 움푹 파여 물이 괴어 있는 곳을 ‘웅덩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다음 중 ‘웅덩이’의 강원도 사투리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①똥병 ②덤병 ③등범 ④방죽

정답: ①똥병.

똥병은 충청남도 사투리입니다. 참고로, 방죽은 정선 지역의 사투리입니다.

문제: 가족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들의 아내를 이르는 표준어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는 강원도 각 지역에서 여러 사투리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며느리’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며늘아기, 미나리, 미누리, 새아가

문제: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을 표준어로 ‘그림자’라고 합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그림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삼척지역에서는 사투리가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림자’의 삼척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거름자, 그림자

문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끼지요. 이 눈곱 역시 강원도 사투리가 있는데요, 눈곱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눈꼽지, 눈게비, 눈꼬비, 눈껍

문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릎이 아프다며 비가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무릎’을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돼요. 자, 그렇다면 ‘무릎’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고벙이, 무릅, 무루팍, 무꾸베이, 무꾸방, 무르파기

문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등등 손가락에는 다 이름이 있는데요, 가장 작은 손가락을 표준어로 ‘새끼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끼손가락’의 강원도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애기손가락

문제: ‘풀무’는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로 예전에 아궁이 등에 불을 댈 때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풀무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풍구

문제: 사람의 머리 가장 위에는 정수리가 있습니다. 이 정수리의 강원도 사투리가 ‘장배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O.

강원도에서 정수리를 장배기라고도 합니다.

문제: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안장을 ‘길마’라고 합니다. 이 길마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지르매

문제: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을 ‘구유’라고 합니다. 구유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구영, 굽

문제: 양쪽 눈의 방향이 같지 않아 사시인 사람을 낚잡아서 이르길 ‘사팔뜨기’라고 합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사팔뜨기를 눈의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먼산배기

문제: 임신 초기에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것을 입덧한다고 합니다.
입덧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입또듬

문제: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 걸으려 하며 걸음마를 땡니다. 이 걸음마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거름발(걸음발)

문제: 바람개비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팔랑개비

문제: 강원도 사투리 ‘팜마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망아지

문제: ‘올가미’는 강원도 사투리로 무엇일까요?

정답: 옹누

문제: 강원도 사투리 ‘나생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냉이

문제: 고명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피미

문제: 버섯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버섯

문제: 강원도에서 옥수수알을 튀긴 튀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광밥

문제: 강원도에서 사투리로 ‘불에 그을린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정답: 불에 끄신다./ 불에 끄실린다.

문제: 허수아비의 강원도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허재비

문제: 수수깡의 강원도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쉬시대공

문제: 무말랭이의 강원도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우거리

문제: 철쭉꽃의 삼척, 강릉 지역 사투리를 쓰세요.

정답: 함박꽃, 개꽃

문제: 수탉의 삼척지역 방언을 적으세요.

정답: 장탸 혹은 장달

문제: 강릉, 삼척 지역의 사투리 ‘보구래’는 표준어로 무엇일까요?

정답: 쟁기

문제: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것을 목말이라고 합니다. 목말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동고리, 무등

문제: 강릉에서 사용하는 ‘느르배기’의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새총

문제: 강릉 방언 ‘뽕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낭떠러지

문제: 강원도 사투리 ‘깔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딸꼭질

문제: 강원도 사투리 ‘씨갱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민들레

문제: 강원도 사투리 ‘질거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어로 써주세요.

정답: 버릇

문제: 표준어 ‘티끌’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티, 티갑지, 티겹지

문제: 표준어 ‘저녁’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제녁, 지낙, 지녁

문제: 어린 여자아이를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가시나, 가시내, 게지바이, 기지배, 에미나, 지지바

문제: 사람의 다리를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달구막지, 달구리

문제: 사람이나 동물의 목을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매가지, 모가지

문제: 발목 부근에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뼈를 복사뼈라고 하는데요, 이 복사뼈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복사뼈, 복사시

문제: 표준어 ‘수염’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시염, 쉬염, 씬

문제: 표준어 ‘혀’ 또는 ‘혓바닥’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서바닥, 세빠닥, 셋바닥, 헤, 세

문제: 표준어 ‘고기’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괴기

문제: 표준어 ‘송늑’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밥송늑, 송님, 송녕

문제: 표준어 ‘손가락’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수까루, 술, 속갈, 쫓갈

문제: 사람의 몸에 나는 두드러기, 이 두드러기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두드래기, 두두러기, 두드레리

문제: 말을 더듬는 사람을 표준어로 ‘말더듬이’라고 하는데요, 말더듬이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버어리, 더듬발히, 반병어리

문제: 다리가 다치거나 하여 걸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을 절름발이라고 하죠. 절름발이의 강원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정답: 절뚝바리, 절룩배이, 절국바리

문제: 주로 어린아이가 걸리는 질병으로, 몸에 열이 많이 나고 온몸에 붉은 색 두드러기가 납니다. 한번 걸리면 다시 걸리지 않는 이 병의 이름은 ‘홍역’인데요, 홍역의 강원도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홍진

문제: 표준어 ‘피라미’의 강원도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참피리

문제: 표준어 ‘마당’의 강원도 사투리를 적어주세요.

정답: 뜨락, 뜰, 마대히, 타작

부록7.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홍보 자료

국립국어원 및 효석문화제 누리집



알림마당

- 알림마당
- 국어원 소식
- 학회·행사·기타 안내
- 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
- 홍보 영상 및 방송 자료

국어원 소식

첫화면 > 알림마당 > 국어원 소식

전 국민이 함께하는 사투리 한마당(보도자료)		등록일	2014-07-31
작성자	국립국어원	조회수	1079
첨부자료	 국립국어원_보도자료_강원_언어문화_행사_및_사투리_상품_아이디어_공모전_20140731.hwp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4-92호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4-92호>

전 국민이 함께하는 사투리 한마당

- 국립국어원,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 및 사투리 상품 공모전 개최

□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에서 펼쳐지는 사투리 한마당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활짝 핀 메밀꽃과 강원 지역어가 어우러진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평화 효석문화제**’가 열리는 강원 평창군 북평면 **효석문화마을**에서 9월 13일(토)에 개최한다.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하는 지역 언어문화 행사는 지역어를 활용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축제와 연계함으로써 지역 언어문화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는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미호석문화선언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6회 평화 효석문화제’와 연계해 진행한다.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출하는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영동, 영서, 영북 등 강원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강원 각 지역의 참가자와 관광객이 함께하는 ‘알코 드려요(알려 드려요)’에서는 유쾌하고 구경꾼 강원 사투리 만담을 만날 수 있고 청진 군민 마리랑예술단의 마당극 ‘양반전’에서는 살아 있는 사투리의 해학과 마리랑 가락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최고의 고등학생 사투리 유망주를 뽑는 ‘사투리 골든벨’은 사투리가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견제 동화를 각색한 뮤지컬 ‘대노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는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마당이 될 것이다. **강원 언어문화 행사와 함께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마카 오서요, 사투리 전시회’도 열린다.** 예술 작품 속에 담긴 강원 사투리, 각 지역의 사투리를 비교할 수 있는 강원 사투리 지도,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한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된 북평에서 치러지는 행사의 만큼 강원 지역의 감성과 정서가 반영된 다양한 전시작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014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행사 일정

● ‘쉽표, 마침표’국립국어원 소식지

쉽표, 마침표

듣고

느끼고

즐기다

2014

월간

2014년 12월

2014년 11월

2014년 10월

2014년 09월

2014년 08월

2014년 07월

2014년 06월

2014년 05월

동·서양 언어의 결합
베트남 편

30. September. 2014.

[우리말 편지] 동·서양 언어의 결합 베트남어 문자 베트남 편

우리에게 아두가 있었다면 베트남에는 쏘놈이 있었다? 동양 언어와 서양 언어의 만남! 베트남어의 역사에 대해 지금 알아보세요!

2014. 9. 30. | 526 조회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모든 세대가 즐기는 사투리 한 마당, '마카 오서요!'

2014. 9. 30. | 389 조회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국립국어원,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 개최

국립국어원과 평창시는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맞아 (사)이효석문학선양회에서 주최하는 '제16회 평창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강원도 평창군 효석문화마을에서 진행하였다.

행사명: 2014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행사 기간: 2014년 9월 13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평창 효석문화제 특성주대 강원도 평창군 평평면 소재		
주요 행사		
	시간	행사 내용
식전공연	11:00~11:15	평창 둔전평 농악
개막식	11:15~11:40	개막 선언, 제막식, 귀빈 소개, 축사
1부	11:40~12:40	정선 아리랑 공연
	12:40~13:50	'말코 드레오' 사투리 한마당 공연
2부	13:50~15:00	사투리 골든벨
	15:00~16:00	머느리 방귀에 매달꽃 피었네 어린이 뮤지컬
폐막식	16:00~16:30	시상식 및 폐막 선언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되었다. 식전 행사인 '평창 둔전평 농악' 길놀이를 시작으로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의 '아리랑 공연' 등 강원 주요 무형문화재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강원 사투리 한마당 '말코 드레오'에서는 살아 있는 사투리의 해학을 엿볼 수 있었으며, 강원 도내 고등학생들과 함께한 '사투리 골든벨'에서는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대회를 통해 북평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아현 학생이 대상, 삼지대관고등학교 최은도 학생과 주문진고등학교 박지민 학생이 각각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 밖에도 어린이 뮤지컬 '머느리 방귀에 매달꽃 피었네'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강원 언어문화와 전통 예술을 함께 체험하는 마당이 되었다.

또한 이번 효석문화제 기간(9월 5일~9월 14일) 동안 '강원 사투리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예술 작품 속 강원 사투리, 각 지역의 사투리를 비교할 수 있는 강원 사투리 지도,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한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한곳에 전시되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전시 부스에서 진행한 '가로세로 사투리 낱말 퍼즐 맞추기' 행사에는 1,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강원 언어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효석 문학의 정취와 강원 사투리가 어우러진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은 사라져 가는 지역에 녹아 있는 지역민의 삶과 정서의 가치를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게 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 문화유산으로서 지역어를 보존하고 지역의 언어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든 세대를 아울러 지역어가 자연스럽게 향유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기타 홍보 (기사 및 블로그, 옥외 배너)

NAVER **효석문화제 사투리한마당**

동영상 검색 블로그 카페 지식iN 이미지 동영상 여행사전 뉴스 더보기

블로그 1~10 / 39건

국립 효석문화제...거창한마당속행... 2014.09.13 **2건**
지역문화축제로서 알려진 자리이지만 흥인 효석문화제에서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한마당'과 '효석백일장'과 같은 참여 행사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더욱...
blog.naver.com/bbalong/22099706974 연소잇는 국장인 어... 블로그 내 검색

[문리일 설거] 마카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2014.10.17 **2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맞아 (사)효석문화선양회에서 주최하는 제16회 평화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강원도...
blog.naver.com/utima365/220153228964 <일표, 마칠표> ... 블로그 내 검색

매밀꽃 가뭇한곳, 평화 효석문화제가 열립니다 2014.08.22 **2건**
2014 평화 효석문화제 아스라이 바치는 달빛 마라에 소풍을 볼 부여농촌드 애쓰게... asp 마로를 하고이사로 사투리 한마당 볼 각을 접합전도 다합하게...
blog.naver.com/dalchung/22009979973 달chung의... 블로그 내 검색 <약도>

2014 평화효석문화제(평화 매밀꽃축제) 2014.09.07 **2건**
2014년 평화 효석문화제가 9월5일 시작되어 9월14일까지 계속됩니다. 평화 매밀꽃축제...
blog.naver.com/diarypension/220115647271 다이아리펜션 블로그 내 검색

[매밀꽃 문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사투리 한마당 2014.09.07 **2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통해 효석문화제가 열리는 강원 평창군 평창면 효석문화마을에서 9월 13일(토)에 개최한다.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하는 지역 언어문화...
blog.naver.com/apple2003/220084266502 대원자의 블로그 블로그 내 검색

간월동 '느끼다' (2014평화효석문화제) 2014.09.15 **2건**
효석문화마을에서 열린 평화 효석문화제가 평화 매밀꽃축제가 14일까지 열린다고해서... "문학 마을에서는 단양군 매밀꽃 볼 무렵, 상왕곡 소풍 복 명당인, 사투리한마당..."
blog.naver.com/20140910/22012259717 <디리들같은> 디... 블로그 내 검색

제16회 평화효석문화제(평화 매밀꽃축제) 2014.09.05 **2건**
과 16회 평화효석문화제(평화 매밀꽃축제)가 2014년 9월5일(금)부터 14일(일)까지 강원도... 9월13일에는 국립국어원이 후원한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blog.naver.com/diarypension/220082489057 다이아리펜션 블로그 내 검색

[강원도 평화] 평화 매밀꽃 볼 무렵 2014.09.10 **2건**
9월 13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7시까지 마카오서요라는 사투리 한마당이...
blog.naver.com/masinsia/220110094270 공경숙으로... 블로그 내 검색 <약도>

간월동에올라, 2014 평화효석문화제 2014.09.11 **2건**
드라곤즈는 효석문화제에는 각을 체험한사를 하는 곳도 열립니다 다식작가, 규방문화 체험장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사투리 한마당 체험장은 2014년 사투리...
blog.naver.com/dalchung/220110011190 달chung의... 블로그 내 검색 <약도>

매밀꽃 볼 무렵! 속으로 만난 봄날여행 2014.09.04 **2건**
효석문화마을에서 열린 평화효석문화제가 평화 매밀꽃축제가 주최한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과 전국사투리상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거는 지역어...
blog.naver.com/0kyunda/220131132589 현대자랑자 열매... 블로그 내 검색

공립언론 뉴스is()

국립국어원, 지역 언어문화를 위하여... '사투리 한마당'

기사등록 일시 : 2014-09-26 20:26:10

2014년 9월 13일(토) 11시~17시
효석문화제 행사 무대

【서울=뉴스is】 이재훈 기자 =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이 9월13일 '평화 효석문화제'가 열리는 강원 평창군 평창면 효석문화마을에서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열었다.

국립국어원이 지역어를 활용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행사다. 지역 언어문화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평창] 오늘 효석문화제서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2014-9-13 (토) 15면 - 평창기 기자 [기자의 디로그서 보기](#) [+](#) [-](#) [인쇄](#) [f](#) [t](#) [p](#)

▼ [지면보기](#)

【평창】 국립국어원(원장-민현식)은 활짝 핀 매밀꽃과 강원 지역 어가 어우러진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13일 오전 11시부터 '평창 효석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평창군 평창면 효석문화마을에서 개최한다.

지역 언어문화 행사는 지역어를 활용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축제와 연계함으로써 지역 언어문화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올해는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기념해 제16회 평화 효석문화제와 연계해 진행한다.

강원 각 지역의 참가자와 관람객이 함께하는 '알고 드려요(알려 드려요)'에서는 유쾌하고 구성성 강령사투리 만담을 만날 수 있고 정선군한아리랑예술단의 마당극 '일반전'에서는 살아있는 사투리의 해학과 아리랑 가락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정익기기자

사회 Society 사회일반 | 교육 | 사건/사고 | 지역 | 테크코리

[평창]평창 '사투리 한마당' 성료

2014-9-15 (월) 21면 - 평창기 기자 [기자의 디로그서 보기](#) [+](#) [-](#) [인쇄](#) [f](#) [t](#) [p](#)

▼ [지면보기](#)

【평창】 국립국어원(원장-민현식)의 강원 언어문화 행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이 지난 13일 효석문화제 행사장인 평창군 효석문화마을 일원에서 열렸다.

도내 고교생들과 함께한 '사투리 골든벨'은 최이현(북평여고) 학생이 대상, 최은도(상지대 관성고), 박지민(주문진고) 학생이 금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김희영 도 경제부지사, 지형근 평창군부군수, 이원섭 서울대 명예교수, 조남환 강릉사투리보존회장, 유재춘 강원대 학생처장, 장근용 이효석문화선양회 이사장, 강정훈 강릉원주대 교수, 남기락 강원대 교수, 최철웅 강원대 한국어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익기기자

국립국어원, '마카 오서요-사투리 한마당'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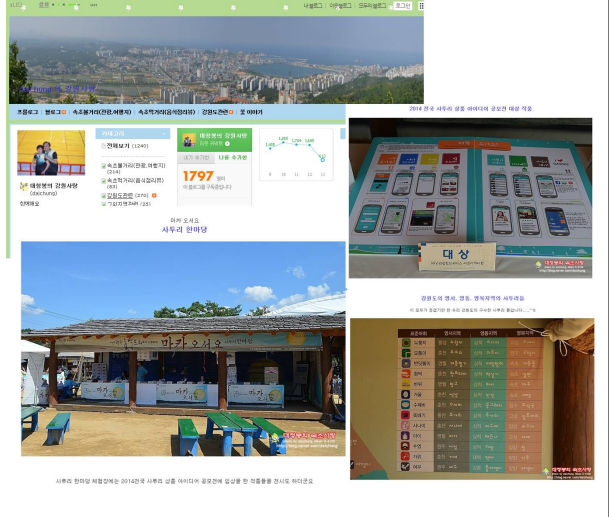
평창 효석문화제 연계... '전국 사투리 상용 아이디어 공모전'도

(서울=뉴스is) 이대경 | 2014.09.31 11:23:21 송고

기사보기 [네트워킹](#) [추천](#) [공유하기](#) [0](#) [Tweet](#) [인쇄](#)



국립국어원은 오는 9월 13일 강원 평창군 평창면 효석문화마을에서 지역 언어문화 행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어원은 지역어를 활용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지역 언어문화가 일상



부록8.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기념품 자료

● 효석문화제 연계 기념품 : 책갈피



● 이벤트 기념품 : 볼펜



● 행사 기념품 : 티셔츠



부록9.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가로세로 사투리 퍼즐 예시 및 홍보지

				① 쑥				
				국				⑥ 흘
			② 가	새				러
			생				⑦ 세	껍
③ 붕	그	레	이			⑧ 편	덩	이
				⑤ 구				
				텅				⑨ 백
	④ 아	라	레	이				실
	예					⑩ 불	배	기

[illegible]

부록10.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시나리오

개막행사 (11:10~11:40)		
개막선언		(식전행사-평창 둔전평 농악 공연 후)
	11:10 ~11:20	<p>▶ 네 방금보신 사투리 한마당의 서막을 열어주신 ‘둔전평’농악은 유서 깊은 이곳 봉평에서 전통을 지키고 있는 평창의 소리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의 전통 예술 공연입니다. 둔전평 농악은 평창군 용평면 일대에 전해오는 농악으로, 산업화되면서 많은 농악이 사라져갔지만 그 전통이 잘 유지되어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p> <p>▶ 오늘은 강원도 사투리를 신명나게 쓰고 듣고 하는 날입니다. 사투리는 우리 민족의 삶과 해학, 재치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언어가 정보화 시대에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 국립국어원에서는 현대화 물결 속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우리 사투리를 잘 보존하고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매년 지역마다 찾아가는 ‘사투리 한마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투리 한마당’은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축제의 색깔이 살아있어 의미가 더 깊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가고파 국화축제와 함께하는 마이오이소 사투리 한마당>이 펼쳐졌으며 올해는 강원도 평창에서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되는 지역이기에 의미가 더 깊습니다.</p> <p>▶ 말을 이어가다보니 제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사회를 맡은 송영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축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행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우리 강원도 사투리를 오늘 맘껏 쓰시고 맘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p> <p>▶ 이 행사는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브랜비즈가 주관하며, 강원도청, 평창군, 이효석문학선양회, 국립민속박물관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p> <p>▶ 자 지금부터 강원도의 정신이 담겨 있는 구수한 사투리를 시작하오니, 오늘 행사에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내빈들은 단상에 올라와 개막식 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p>

개막행사 (11:10~11:40)		
개막선언 제막식	11:20 ~11:25	<p>▶ 잠시 협조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풍선은 잠시 후에 제막식 시작과 함께 제 안에 따라 지금부터 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섯을 세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을 다 세고 나서 앞에 있는 막이 열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선을 각자의 소원과 함께 소원을 빌면서 함성과 함께 풍선을 날리는 겁니다.</p> <p>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외쳐 주세요! 5, 4, 3, 2, 1 !</p> <p>(풍선을 날리고 내빈들은 제막식을 진행한다.)</p> <p>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p> <p>-BGM-</p> <p>여러분! 함성과 함께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 감사합니다.</p>
내빈소개	11:25~ 11:30	<p>▶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야외행사의 특성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p> <p>지금부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먼 길 와 주신 귀한 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p>

<p>내빈소개</p>	<p>11:25~ 1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현식 국립국어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영 강원도 경제부지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지형근 평창부군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천진기 관장님을 대신해서 권석주 섭외교육과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유재춘 강원대학교 학생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양근용 이효석문학선양회 이사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익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남기탁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장정룡 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조남환 강릉사투리보존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 끝으로 오늘 행사의 가장 귀한 소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보냅니다. ▶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손님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막행사 (11:10~11:40)		
환영사		<p>▶ 다음은 오늘의 행사를 주최하신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민현식 원장님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민현식 원장님 환영 인사(3분)</p>
축사	11:30~11:40	<p>▶ 다음은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축하하러 와 주신 내빈 중에 세분만 시간관계상 단상으로 모셔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미영 강원도 경제부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지형근 평창부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유재춘 강원대학교 학생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p> <p>▶ 우리 고장의 언어를 개성 있고 특색 있게 잘 보존하고 가치를 만들어 가자는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p>
축하공연 (11:40~12:40)		
축하공연	11:40~12:40	<p>▶ 이번순서는 . 지역의 색깔이 잘 묻어 나있는 공연인데요. 강원도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감자, 옥수수, 춘천 닭갈비, 스키장, 네 아리랑이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14년 전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도후 연출가를 중심으로 정선에 있는 아우라지를 소재를 가지고 공연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지금은 정선군 군민들로 이루어진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으로 자리를 잡아 전국을 돌며 공연할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지금은 지역의 전통공연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아리랑 모음’공연을 선보이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아리랑공연</p> <p>▶ 네, 정말 강원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흥이 나면서도 뭐랄까 강원도의 한이 있는 무대였습니다. 자칫 잊힐 수 있는 우리 전통 소재를 현대화 시켰으며 정선 아리랑공연은 지역민들과 함께 복원하고 가꿔 나가기에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우수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색깔이 살아있는, 가슴에 한이 와 닿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느낀 것이 있다면, 강원도에는 자연이 주는 보물 이외에 후세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가치 있는 강원도만의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알코 드래요 무대 준비)</p>

사투리만담공연 (11:10~11:40)		
알코 드래요	12:45~ 13:45	<p>▶ 다음은 알코 드래요 순서입니다. 여러분~ 알코 드래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 관객반응 유도) (애드리브 /아~네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알코 드래요를 관객 중에 몇 분을 무대로 유인하여 알코 드래요라는 말을 하게하고 그 뜻을 물어 본다. 5명 정도 5명이 다 대답했을 무렵 사회자는 어떻게 진짜로 맞는 말인지 모른다. 가우똥하고 있는데 심명숙 교수님 등장하면서 (강원도 사투리로)</p> <p>▶ 심명숙교수: 이보드래요 “아니 강원도 사투리도 모르면서 어케 사회를 본단 말이요 알코드래요의 본토 발음은 이케 하는기래요 하면서 시범을 보이면서 5명중에 가장 잘하는 분을 지목하여 시키고 상품도주고 들어보낸 다음 강원도 사투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다며 강원도 강릉사투리로 맘껏 뽐내며 강원도 사투리의 자부심을 자랑한다.</p> <p>▶ 송영하 사회자 : 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심명숙교수님의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의 자부심과, 인정이 넘치는 인사말씀이었습니다. 심명숙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알코드래요를 함께 진행을 맡은 심명숙 교수님은 홍익대학교에서 미술대학교 동 대학원에서에서 회화를 전공하시고 또 강원대학에서 미술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화가이십니다. 개인전만 21회, 단체전 170회를 전시회를 가진 화가이십니다.</p> <p>그런 분이 어떻게 강원도 사투리에 대해서 잘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교수님 원래 강원도 분이랴 사투리를 잊지 않고 원래부터 사투리를 잘 하셨나요?</p> <p>○ 심명숙 교수 : 질 문 답</p> <p>▶ 사회자 : 강원도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강원도의 자연이 참 아름다우면서도 말씨도 강원도 지형처럼 어쩔 이렇게 구성지게 예쁠까 생각하게 하는데요. 강원도 사투리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요?</p> <p>○ 심명숙 교수 : 질 문 답</p>

사투리만담공연 (11:10~11:40)		
알코 드래요	12:45~ 13:45	<p>▶ 송영하 사회 : 네, 이런 훌륭한 강원도를 사랑하시는 심명숙 교수님과 알코 드래요를 함께 진행하게 되서 영광입니다. 사실 심명숙 교수님과 같이 사회를 보게 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지 모릅니다. 사투리를 한참 듣다 보면 어디서 끝나는 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심명숙 교수님의 진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수님 오늘 알코 드래요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p> <p>○ 심명숙 교수 : 예 오늘의 알코 드래요는 일종의 만담인데요. 강원도 사투리가 지역이 넓다보니 강원도에도 영서지역, 영동, 영북 지역 등으로 나뉘는데요. 억양은 비슷할 수도 있겠으나 사투리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알코 드래요를 보시면서 영서지역은 이런 말씨구나, 영북 지역, 영동 지역 등 비교해보면서 들으시면 참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서시는 분들이 각자 농업하시는 분들이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시기도 하지만 재미가 꽤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역의 원주민들의 사투리를 직접 듣게 됩니다.</p> <p>▶ 송영하 사회 : 네. 지금부터 강원도의 대표 사투리 만담꾼들이 여러분을 사투리의 구수하고 맑은 세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코 드래요! 하고 외치면 시작하겠습니다. 알코 드래요! 큰 박수와 함께 등장 .</p> <p>▶ 출연진 등장 : (경포초 3학년 한예원, 최흥서 등장하면서 제가 알코 줄게요(강릉사투리로 수정) 여러분! <이효석선생님 그래고 신사임당과 울곡선생님이 강릉사람이래요> (한예원, 최흥서 등장/ 진행)</p>

사투리만담공연 (11:10~11:40)		
알코 드래요	12:45~ 13:45	<p>▶ 송영하사회자 : 네, 아주 우리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무대였습니다. 강릉시 경포초등학교의 3학년 한예원, 최홍서 학생~ 제목은 <이효석선생님 그리고 신사임당과 울곡선생님이 강릉사람이래요> 잠깐 인터뷰 좀 진행해 볼까요?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인기꾼 친구들이죠~</p> <p>(사회자, 출연진들과 간단한 인터뷰)</p> <p>Q: 자신 소개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Q2 : 사투리에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어요?</p> <p>심명숙 교수 : Q3: 사투리노래 하나 불러줄 수 있어요?</p> <p>▶ 송영하사회자 : 임진왜란에 이런 숨은 일화가 있는 줄은 오늘 알았네요. (웃음)</p> <p>다음 무대는 영월대표로 영월군 모운리 김흥식 이장님의 ‘모운동의 자랑’이야기입니다. 김흥식 이장님은 kbs 아침마당 출연을 계기로 사투리사회자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폐광촌이었던 모운동을 아름다운 동화마을, 구름이 모이는 아름다운 동화마을로 바꾸시는 선두에 서신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p> <p>(김흥식 이장 등장 / 진행)</p> <p>▶ 심명숙 교수 : 네~ 정말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네요. 현재 32가구 60여명 거주하는 조그만 마을이지만, 과거해발700고지 탄광으로 유명했던 모운동이야기. 2008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대상을 차지한 강원도 시골 모운동의 동화같은 이야기. 이장님의 강원도 사랑, 모운동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쩔 말씀도 재미나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한수 배워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정선군 대표로 윤돈중씨의 <정선 토속사투리와 때사공 이야기> 를 소개합니다~</p> <p>(윤돈중 등장 / 진행)</p>

		<p>▶ 송영하 사회 : 네. 잘 봤습니다. 필요하면 인터뷰/ 감사합니다. 심교수님은 방금 들으신 정선사투리라고 할까요? 정선에 사시는 분의 정선 사투리 대해 어떤 느낌이신지요?</p> <p>○ 심명숙 교수 : (정선군 사투리 느낌을 평한다.)</p> <p>▶ 송영하 사회 : 예 그렇군요. 다음 출연자는 마지막 출연자이신데요. 어떤 분이신지요?</p> <p>○ 심명숙 교수 : 다음 분은 작년도 2013년 강릉사투리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으로써 오늘 평창에서 사투리한마당이 펼쳐진다 해서 특별히 시간 내어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시어 오신분입니다.</p> <p>▶ 송영하 사회 : 자 지금부터 강원도 영서지역 사투리한마당 농산물 판매장에서 서울 사람들과 겪는 재밌는 에피소드. 평창의 장성선 씨의 <강원도 농산물이 최고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p> <p>○ 심명숙 교수 : 예 꼬신대차, 뽕센 양파, 분이 짹짹나는 감재등 강원도 농산물들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평창의 영서지역의 최고의 사투리 만담꾼 같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p> <p>▶ 송영하 사회 : 심명숙 교수님 오늘의 알코 드래요를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p> <p>○ 심명숙 교수 : 간략하게 평가</p> <p>▶ 송영하 사회 : 네 사투리는 우리나라의 지역의 언어이자 토속어입니다. 사투리는 결코 지역의 경계언어가 아닙니다. 지역의 전통을, 정서를 잘 나타내며 사투리는 보존하고 가치를 인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투리에는 웃음과 해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코 드래요를 함께 해주신 강원대학교 심명숙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p>
--	--	--

사투리 골든벨 / 거리 민속 놀이 / 가족 뮤지컬		
사투리 골든벨	13:50~ 14:55	<p>자 이번 시간도 역시 사투리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알까 하는 문제입니다. 골든벨 형식을 빌려서 사투리 골든벨을 강원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방언의 소중함을 알려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미 7월 강원 도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8월 14일 신청마감을 하였고, 오늘 이곳 효석문화제 행사장에서 본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 1명에게는 50만원 상금과 금상2명에는 상금 30만원, 은상 3명에게는 상금 20만원, 동상 5명엔 상금 10만원, 참가자 모두에게는 문화상품권 2만원이 상품으로 지급됩니다.</p> <p>사투리 골든벨의 진행은 이번 사투리 골든벨의 문제를 직접 출제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특별히 즉석에서 정답인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p> <p>강원대학교 최윤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윤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최윤 교수님 등장 안녕하십니까. 최윤 교수님! 오늘의 사투리 골든벨의 출제의 난이도를 평가하신다면....</p> <p>최윤 교수 : 답변</p> <p>자, 지금부터 사투리골든 벨(징) 시작합니다~ (징~ 땡 친다.) * 문제지 대본*</p>
거리민속놀이	15:00~ 15:20	평창군 거리 민속놀이
가족뮤지컬	15:25~ 16:30	<p>뮤지컬 “며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p> <p>(무대 준비 10분 동안 사회자 재량)</p> <p>다음은 온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전래 동화를 각색하여 사투리와 메밀꽃이 만났다고 합니다. ‘며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 다 같이 보시죠!</p> <p>(뮤지컬 공연 시작)</p> <p>오늘 우리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준 뮤지컬 단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p>

폐막식 (16:30~17:00)		
시상식	16:30~ 17:00	<p>폐회식 - BG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아쉽게도 ‘효석문화제와 함께 하는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의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의 귀한 자산인 사투리가 널리 알려지고, 다음세대에 통해서도 지켜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먼저 사투리 골든벨에 대한 우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 사투리 골든벨 대상에게는 국립국어원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집니다. 대상 00고등학교 0학년 000 위 사람은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한 2014 강원도 언어문화 행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사투리 골든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9월 13일 국립국어원장 민현식 대독 ▶ 사투리 골든벨 금상을 시상하겠습니다. 금상 수상자는 2명입니다. 금상에게는 국립국어원장상과 상금 30만원이 주어집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상 00고등학교 0학년 000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금상 00고등학교 0학년 000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p>시상식</p>	<p>16:30~ 17:00</p>	<p>▶ 사투리 골든벨 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은상 수상자는 3명입니다. 은상에게는 국립국어원장상과 상금 20만원이 주어집니다. - 은상 00고등학교 0학년 000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p> <p>동상 수상자는 4명입니다. 상금은 10만원입니다. - 동상 00고등학교 0학년 000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p> <p>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p> <p>○ 오늘 저희가 지역 언어문화를 지키고자 준비한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2014 마카오서요, 사투리 마당’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언어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 될 것입니다.</p> <p>○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투리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과 자랑을 약속드리며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2014 마카 오서요, 사투리 마당’축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시기 바랍니다.</p> <p>○ 감사합니다.</p>
------------	-------------------------	---

주관 사업 기관: (주)브랜비즈 (책임: 박영희)

공동 협력 기관: 강원대학교 한국어 문화원

담당 연구원: 홍서현(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4년 12월 22일

발행일: 2014년 12월 22일

인 쇄: (주)브랜비즈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위탁 사업비로 수행한 ‘2014년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